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및 오류 양상 연구

-학습자 말뭉치를 중심으로-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양비

(楊霏, YANG FEI)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및 오류 양상 연구

-학습자 말뭉치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호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양 비
(楊霏, YANG FEI)

양비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12월

위 원 장 변 명 운 (인)

부위원장 구 본 관 (인)

위 원 김 호 정 (인)

국문 초록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은 모든 언어에 존재한다. 한국어에는 수량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단위성 의존명사로 구성된 수량사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단위성 의존명사 연구는 주로 정의 및 분류에 대한 논의, 다른 언어의 단위성 의존명사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습자의 실제 사용 양상 및 오류 양상을 조사하고 오류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하여 말뭉치에 수록된 학습자의 실제 언어 사용 양상과 오류 양상을 파악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단위성 의존명사를 어떻게 습득해 나가는지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교육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교육적 제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에 따라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의 자료 수집 단계에서 총 68개의 단위성 의존명사를 연구 목록으로 선정하고 국립국어원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목록이 포함된 정문 말뭉치와 오류 말뭉치를 재구성하였다.

말뭉치에서 나타난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달도별로 보았을 때 1급 학습자의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6급 이상의 말뭉치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40가지의 단위성 의존명사가 사용되고 있었다. 둘째, 고유어, 외래어보다는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 빈도가 더 높았다. 셋째, 단위성 의존명사별로 사용 빈도를 살펴본 결과, ‘년(年)’이 가장 자주 쓰이는 단위성 의존명사로서 총 1663어절에서 사용되었다. ‘일(日)’(702어절), ‘월(月)’(702어절)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도량 단위성 의존명사들이다. 사물의 수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 중에서는 ‘가지’(660어절), ‘명(名)’(435어절), ‘개(個)’(315어절)의 순서로 사용 빈도가 높았다. 장르 유형으로 볼 때 구어 장르에서는 ‘발표’, 문어 장르에서는 ‘정서·감정 표현의 글’에서 높은 사용 빈도를 보여주었다,

학습자의 단위성 의존명사의 구체적인 사용 양상 분석은 단위성 의존명사와 수관형사(한자어 수관형사/고유어 수관형사/아라비아숫자)의 결합,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해 수량사구를 구성하는 양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중국인 학습자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구조는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 구조이며 전체 어절 수의 81%를 차지하였다. 명사가 들어간 구조 중에 명사가 후행하는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관형격조사(의)+명사’ 구조의 사용은 9%로 명사가 선행하는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6%)보다 더 선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오류 분석 단계에서 총 428개의 오류문을 도출하고 통계적으로 기술한 뒤 의미적, 형태적, 통사적 오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숙달도별 오류율에 있어서는 단위성 의존명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1급 학습자들이 3.31%의 낮은 오류율을 보였다. 반면에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5급 학습자의 오류율은 8.1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급에서 3급까지 상승 추세가 보이며 4급에서 잠깐 줄어들었다가 5급에 이르러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오류의 구체적인 양상에 있어 우선 의미적 오류는 초급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개(個)’의 과잉 사

용과 형태나 의미가 비슷한 단위성 의존명사들끼리의 대치 오류가 대부분이었다. 형태적 오류는 '번째', '명(名)', '가지', '분(分)', '월(月)' 등 개별 단위성 의존명사인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 종류인 통사적 오류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이다. 이는 학습자가 단위성 의존명사와 수관형사의 결합 제약을 어기거나 수량사구의 구성 요소, 어순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잘못된 어순으로 사용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단위성 의존명사 학습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오류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원인을 모국어, 목표어, 학습 과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단위성 의존명사 오류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가 대부분이었다. 우선 학습자가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의미 자질을 모국어 양사와 혼동하여 의미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모국어의 음운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아 평음/격음/경음에 구별에 생기는 발음 오류나 철자 오류, 모국어 수량사구 어순을 그대로 적용하여 생기는 통사적 오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한편 학습자가 목표어 규칙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여 과잉 일반화하거나 불완전하게 적용시켜 오류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특히 '월(月)/개월(個月)', '시(時)/시간(時間)'과 같은 유사한 단위성 의존명사의 변별, 고유어/한자어 수관형사와의 결합 관계 등이 학습자에게 난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단위성 의존명사의 교재 제시 빈도, 제시 방법, 수량사구 형식의 단일성 등도 학습자의 오류를 유발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학습자의 오류 양상 및 오류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에게 단위성 의존명사를 가르칠 때 모국어를 활용하여 단위성 의존명사 쌍을 대조하며, 해당 단위성 의존명사와 연결할 수 있는 명

사나 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연어 생성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해 수량사구를 만들 수 있도록 어순에 관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을 객관식 문항을 통해 도출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말뭉치 분석을 통해 밝혔다. 둘째, 학습자 오류 유형 및 변화 양상을 1급부터 6급 이상까지의 숙달도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단위성 의존명사에 대한 학습자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교육 내용 설계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

핵심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교육, 단위성 의존명사, 학습자 말뭉치, 말뭉치 분석, 오류 분석

학 번: 2018-23991

목 차

국문 초록 ····· i

목 차 ····· v

Ⅰ.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연구 ····· 4

2.1. 단위성 의존명사에 관한 연구 ····· 4

2.1.1. 단위성 의존명사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 ····· 4

2.1.2. 단위성 의존명사에 대한 한국어교육학적 접근 ····· 5

2.2. 학습자 말뭉치에 관한 연구 ····· 12

3.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 14

3.1. 연구 자료 ····· 14

3.2. 연구 방법 및 절차 ····· 16

Ⅱ.이론적 배경 ····· 20

1. 단위성 의존명사의 개념 및 유형 ····· 20

1.1. 단위성 의존명사의 개념 ····· 20

1.2. 단위성 의존명사의 유형 ····· 24

2. 단위성 의존명사 및 수량사구 ····· 33
2.1. 수관형사와 단위성 의존명사의 결합 ····· 33
2.2. 수량사구의 유형 ····· 44
2.2.1. 단위성 의존명사 미개입 구성 ····· 52
2.2.2. 단위성 의존명사 개입 구성 ····· 57
3. 오류 분석 이론 ····· 65
3.1. 오류의 정의 ····· 65
3.2. 오류의 유형 ····· 68
3.3. 오류의 원인 ····· 69
3.4. 오류 분석의 절차 ····· 73

Ⅲ.말뭉치에 나타난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 양상 ····· 79
1. 분석 자료의 통계치 ····· 79
1.1. 숙달도별 사용 빈도 ····· 79
1.2. 단위성 의존명사별 사용 빈도 ····· 81
1.3. 장르별 사용 빈도 ····· 84
2. 단위성 의존명사의 통사적 사용 향상 ····· 88
2.1. 수관형사와 단위성 의존명사의 결합 양상 ····· 88
2.1.1. 분석의 틀 ····· 88
2.1.2. 유형별 분석 결과 ····· 90
2.1.2.1. 숙달도에 따른 수관형사 유형별 결합 양상 ····· 90

2.1.2.2. 단위성 의존명사 어원별 수관형사 결합 양상 ·····92
2.1.2.3. 단위성 의존명사별 수관형사 결합 양상 ·····92
2.2. 수량사구의 사용 양상 ·····97
2.2.1. 분석의 틀 ·····97
2.2.2. 유형별 분석 결과 ·····100
2.2.2.1.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형의 결합 양상 ·····103
2.2.2.2. ‘명사+(조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형의 결합 양상 108
2.2.2.3.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형의 결합 양상 ···112
2.2.2.4. ‘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동사(구)’ 형의 결합 양상 ·····118

Ⅳ.말뭉치에 나타난 단위성 의존명사 오류 분석 ·····123

1. 오류의 판정 기준과 판정 방법 ·····123

2. 분석 자료의 통계치 ·····124

2.1. 숙달도별 오류 빈도 및 오류율 ·····124
2.2. 단위성 의존명사 어원별 오류 빈도 및 오류율 ·····127
2.3. 단위성 의존명사별 오류 빈도 및 오류율 ·····128
2.4. 수량사구 유형별 오류 빈도 및 오류율 ·····132
2.5. 장르별 오류 빈도 및 오류율 ·····133

3. 오류 양상 및 원인 분석 ·····135

3.1. 오류 양상 분석 ·····135

3.1.1. 의미적 오류 ····· 136
3.1.2. 형태적 오류 ····· 144
3.1.3. 통사적 오류 ····· 150
3.2. 오류 원인 분석 ····· 157
3.2.1. 모국어로 인한 오류 ····· 157
3.2.2. 목표어로 인한 오류 ····· 159
3.2.3. 교육 과정으로 인한 오류 ····· 161
4. 교육적 제안 ····· 162
4.1. 단위성 의존명사 쌍의 의미 대조 ····· 162
4.2. 연어적 능력의 향상 ····· 163
4.3. 수량사구의 구성 교육 ····· 165

Ⅴ.결론 ····· 167

참고문헌 ····· 173
Abstract ····· 181

표 목 차

〈표 1〉 한국어의 수량표현 ····· 2
〈표 2〉 단위성 의존명사 최종 목록 ····· 15
〈표 3〉 말뭉치 재구성 절차 ····· 17
〈표 4〉 사용 양상 분석의 틀 ····· 18
〈표 5〉 오류 분석의 틀 ····· 18
〈표 6〉 단위성 의존명사에 관한 명칭과 정의 ····· 22
〈표 7〉 채완(1990:175-178)의 분류사 체계 ····· 25
〈표 8〉 곽추문(1996)의 한국어 분류사 체계 ····· 26
〈표 9〉 채옥자(2014:48)의 단위사 체계 ····· 27
〈표 10〉 유동준(1983:56-57)의 분류사 체계 ····· 28
〈표 11〉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분류사 범주 ····· 29
〈표 12〉 한국어 학습용 단위성 의존명사의 분류 ····· 30
〈표 13〉 어원에 따른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 결합 양상 ····· 34
〈표 14〉 어원에 따른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결합 양상 ····· 39
〈표 15〉 한국어 단위명사와 수관형사의 결합 유형 ····· 42
〈표 16〉 채완(1982:159)의 수량사구 유형 ····· 45
〈표 17〉 서정수(1996)의 수량사구 유형 ····· 46
〈표 18〉 최형용 외(2017)의 수량사구 유형 ····· 48
〈표 19〉 한송화(1999:281)의 수량사구 유형 ····· 48

〈표 20〉 우형식(1998)의 수량사구 유형 ·····49
〈표 21〉 분류사구문의 두 가지 유형 ·····50
〈표 22〉 윤희수(2018:11)의 수량사구 유형 ·····51
〈표 23〉 한국어 수량사구의 유형 ·····52
〈표 24〉 명사 선행구성와 명사 후행구성의 대조 ·····61
〈표 25〉 각 단위성 의존명사 유형에 허용된 수량사구 유형 ·····63
〈표 26〉 다른 분류기준에 따른 오류 유형 ·····69
〈표 27〉 오류의 원인 및 표현 ·····72
〈표 28〉 전체 말뭉치 자료의 통계적 정보 ·····79
〈표 29〉 구어 장르 유형에 따른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양상 ···85
〈표 30〉 문어 장르 유형에 따른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양상 ···87
〈표 31〉 어원에 따른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결합 빈도 ·····92
〈표 32〉 단위성 의존명사별 수관형사 결합 양상 ·····93
〈표 33〉 단위성 의존명사 수량사구 분석 세부 기준 ·····97
〈표 34〉 어원에 따른 수량사구 유형 사용 빈도 ·····103
〈표 35〉 '명사+(조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성의 사용 빈도 ·····109
〈표 36〉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성의 사용 빈도 ·····113
〈표 37〉 평가자 간의 일치성 검정결과 ·····124
〈표 38〉 어원별 오류 빈도와 오류율 ·····127

〈표 39〉 단위성 의존명사 어원별 오류율 차이분석 ·····128
〈표 40〉 단위성 의존명사별 오류 빈도 차이 분석 ·····130
〈표 41〉 단위성 의존명사별 사용 빈도 및 오류율 ·····130
〈표 42〉 수량사구 유형별 오류 빈도 및 오류율 ·····132
〈표 43〉 수량사구 유형별 오류율 차이분석 ·····133
〈표 44〉 장르 유형에 따른 오류 빈도 및 오류율 ·····134
〈표 45〉 장르 유형별 오류율 차이분석 ·····135
〈표 46〉 의미적 오류-대치형의 빈도 통계표 ·····137
〈표 47〉 단위성 의존명사 '개(個)' 의 결합 제약(오상룡:1994, 채완:1999, 서원:2010 참조) ·····138
〈표 48〉 학습자 형태적 오류 유형 ·····149

그 림 목 차

〈그림 1〉 각 정의에 따른 범위 관계 ·····23

〈그림 2〉 ‘명사-수사-(분류사)’ 구조 ·····46

〈그림 3〉 가스(Gass, 2013)의 오류 분석 절차 ·····73

〈그림 4〉 숙달도 및 자료 유형별 사용 빈도 ·····80

〈그림 5〉 각 단위성 의존명사의 숙달도별 사용 빈도 ·····82

〈그림 6〉 구어와 문어 말뭉치에서의 단위성 의존명사별 사용 빈도 ·····83

〈그림 7〉 구어 장르에 따른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빈도 ·····85

〈그림 8〉 문어 장르 유형에 따른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빈도 ···86

〈그림 9〉 숙달도에 따른 수관형사 유형별 결합 양상 ·····91

〈그림 10〉 단위성 의존명사별 부정수 결합 빈도 분포 ·····96

〈그림 11〉 각 수량사구 유형의 분포도 ·····101

〈그림 12〉 수량사구의 세부 유형 분포도 ·····102

〈그림 13〉 숙달도에 따른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성의 사용 빈도 ·····104

〈그림 14〉 숙달도에 따른 ‘명사+(조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성의 사용 빈도 ·····108

〈그림 15〉 숙달도에 따른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성의 사용 빈도 ·····112

〈그림 16〉 숙달도에 따른 ‘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동사(구)’ 구성의 사용 빈도 ·····119
<그림 17> 숙달도에 따른 단위성 의존명사 오류 빈도 ·····125
<그림 18> 숙달도에 따른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빈도 및 오류율 126
<그림 19> 단위성 의존명사별 오류 빈도 ·····129
<그림 20> 숙달도에 따른 의미적 오류 빈도 ·····136
<그림 21> 숙달도에 따른 형태적 오류 빈도 ·····145
<그림 22> 단위성 의존명사별 형태오류 빈도 ·····146
<그림 23> 숙달도에 따른 통사적 오류 빈도 ·····150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의 인도·유럽 언어에 비해 한국어, 중국어를 비롯한 동아시아권 언어 및 베트남어, 태국어 등 동남아시아 언어가 가진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단위성 의존명사[1]가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위성 의존명사는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중심 기능뿐만 아니라 단위의 대상이 되는 명사나 동사의 의미적 자질과 연결되어 분류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예컨대 '학생 한 명' 처럼 '명(名)' 은 수관형사 '한' 과 함께 '학생' 의 수량 단위를 의미하는 동시에 '학생' 이 '인간' 의 부류에 속하는 것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단위성 의존명사는 이름 그대로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며, 항상 명사나 수관형사 등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한국어의 수량 표현은 보통 아래 <표 1>과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④⑤⑥처럼 단위성 의존명사의 도움을 받아 실현된 수량 표현이 다른 표현에 비해 사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2].

---

1) 단위성 의존명사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보아 '단위성 의존명사', '단위어', '양사', '분류사' 등 용어로 명명하여 연구해 왔다. 단위성 의존명사의 중심 기능을 셈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느냐 대상 명사의 의미를 분류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 전자의 경우에는 '단위명사, 단위성 의존명사, 단위어, 양사' 등의 용어가 쓰이고, 후자의 경우 영어의 'clssifier' 를 번역하여 '분류사, 수 분류사' 라는 용어가 주로 쓰인다. 용어마다 그에 대응하는 범위 차이가 작지 않은데 '단위성 의존명사' 라는 용어는 명사의 하위범주 중의 독립된 하나인 만큼 다른 용어보다 정확한 범위를 가짐으로 본고에서 국립국어원(2005), 고영근·구본관(2018) 등에 따라 '단위성 의존명사' 를 사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최정도(2018:217)에서 한국어의 수량표현을 단일 수량표현과 복합 수량표현으로 나누고 복합 수량표현을 다시 '단위사 구성' 과 '수사 구성' 으로 나눴다. 국어 500만 어절 말뭉치 자료를 통해 국어 수량표현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복합 수량표현이 단일 수량표현보다 자주 사용되며 복합 수량표현 중 '단위사 구성' 의 사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윤희수(2018:63)에서도 '전반적으로 한국어에서 수량을

<표 1> 한국어의 수량표현

①	수관형사[3]+명사	예: 두 학생
②	명사+수사	예: 학생 둘
③	수사+관형격조사(의)+명사	예: 하나의 사업
④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예: 세 명
⑤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예: 학생 한 명
⑥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관형격조사(의)+명사	예: 한 명의 학생

이처럼 단위성 의존명사는 사용 빈도가 높은 데다가 대상 명사와의 대응 관계가 복잡하며 한자어/고유어 수관형사와의 결합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다. 특히 단위성 의존명사 중에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어와 동일하한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의미나 용법이 달라진 경우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는 단위성 의존명사를 습득할 때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엘리스(Ellis, 1997:15)에서 언급하였듯이 L2 습득을 조사하는 주요 방법은 학습자 언어 표본을 수집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제2 언어 습득 과정에서의 학습자 언어 및 그중에 포함된 오류는 학습자가 목표 언어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학습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를 알려 줄 수 있다. 교사에게는 오류가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가에 관한 증거가 된다(코더Corder, 1981).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단위성 의존명사를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교수 학습에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 오류를 포함한 학습자의 전반적인 언어 사용 양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구는 학습자

말할 때 단위명사와 함께 쓰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3) 수사와 수관형사의 구분에 대해서 주로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의미적인 동일성에서 출발하여 수관형사를 수사의 변형으로 보고 수사만 인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사와 수관형사를 서로 다른 품사로 보는 관점이다. 본고는 통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와 수관형사가 차별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즉 체언으로 쓰이고 조사와 직접 결합할 수 있는 것을 ‘수사’ 로, 수식언으로 뒤에 오는 성분을 꾸며주는 것은 ‘수관형사’ 로 판단된다.

말뭉치[4]이다. 학습자 말뭉치는 일반 말뭉치와 달리, 학습자가 생산한 언어 자료로 구성하는 오류가 내재화된 특수 말뭉치이다. 필모어(Fillmore, 1992:35)에서 코퍼스가 아무리 작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찾아내지 못했던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다. 다른 사지선다형 문항을 비롯한 제약된 언어적 과제를 통해 진행한 분석이나 작은 규모의 표본 자료로 도출된 연구 결과에 비하면 말뭉치 자료로 진행한 연구는 학습자의 습득 양상의 전반을 이해하여 일반화하는 데 더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학습자 말뭉치에 수록된 학습자의 실제 언어 사용 양상과 그중에 포함된 오류 양상을 살펴보아 중국인 학습자의 단위성 의존명사 습득양상과 난점을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중국인 학습자들의 실제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국인 학습자가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에서 보이는 오류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오류가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오류 분석 결과가 교수 학습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먼저 학습자 말뭉치에 수록된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 빈도를 숙달도, 어원, 장르 등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그다음 학습자가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하여 수량사구를 구성할 때 어떠한 특징이 보이는지도 밝힐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단위성 의존명사 오류를 의미적 오류, 형태적 오류, 통사적 오류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오류의 양상 및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세 번째 연구문제를 알아내기 위해서 오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국어의 영

4) ‘말뭉치’는 연세대학교 한국어 사전 편찬실에서 제안한 용어로서 영어의 corpus에 상응하는 말이다.(고석주 외, 2004:3) 학자 및 기관에 따라 ‘코퍼스’, ‘말모둠’, ‘글모둠’ 등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향, 목표어의 영향, 교육 과정의 영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교육적 제안을 제시할 것이다.

2. 선행연구

2.1. 단위성 의존명사에 관한 연구

2.1.1. 단위성 의존명사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

전술한 바와 같이 '단위성 의존명사'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단위성 의존명사에 대한 연구는 정의 및 기능에 관한 논의부터 시작되며, 이 외에도 분류 범주에 관한 연구, 단위성 의존명사의 통사적 특징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어 왔다.

먼저 단위성 의존명사는 수량화와 분류화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 및 기능에 관한 연구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수량화' 관점의 연구는 박성훈(1985), 강창석(2009), 채옥자(2012) 등이 있었으며, '분류화' 기능 관점의 연구는 채완(1990), 곽추문(1996), 정경재(2010), 양하얀(2012)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단위성 의존명사에 다른 명칭을 부여하고 특정 기능에 주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2장에서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 단위성 의존명사의 분류 범주를 귀납한 연구는 우형식(2001), 채옥자(2014), 리우팡(2016), 진려봉(2017), 사타 자코모(2019)가 있다. 우형식(2001)은 분류사를 인간성, 식물성, 현상성, 비현상성, 비개체 등으로 나누어 범주화한 바가 있다. 리우팡(2016)은 인지 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 분류사를 범주화하였는데 먼저 생물, 무생물 그리고 추상물 분류사의 세 가지 큰 범주로 나누고 이 세 갈래 안에서도 다시 세분하였다. 사

타(2019)는 그간 많은 연구에서 단위명사를 의존명사와 자립명사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범주로 연구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립명사가 어떻게 단위성 의존명사의 역할을 갖게 되는지를 연구하였다. 사타는 자립명사 중에서 의존명사처럼 사용되는 단위사들을 '준(準) 의존명사'라고 부르고 단위사의 '의존명사 단위사'와 '준(準) 의존명사 단위사' 또한 '자립명사 단위사'로 분류되는 단위사 체계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위성 의존명사의 통사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수량사구를 구성하는 유형, 의미 특징 등에 관한 연구는 유동준(1983), 박소영(2017), 박종언・박명관(2020) 등이 있다. 유동준(1983)은 분류사가 기본적으로 분류화의 기능을 가지며 명사, 수사와 호응 관계를 가져야 명사를 개체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분류사에 관련되는 4가지 수 표현을 설명하고 분류사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박소영(2017)은 수분류사 구문에 명사가 생략된 경우를 중심으로 통사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로 수분류사는 선행 명사구를 지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명사구 생략의 인허자가 된다고 제시하였다. 박종언・박명관(2020)은 수사와 분류사의 복합체를 '수분류사구'라고 칭하며 이 구조가 명사와 결합할 때 받는 통사적 제약을 분석하였다.

2.1.2. 단위성 의존명사에 대한 한국어교육학적 접근

한국어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단위성 의존명사에 관한 연구도 언어 간의 대조연구, 습득 순서에 관한 연구, 교육 현황에 관한 연구, 오류에 관한 연구,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대조이론 관점에서 출발하여 한국어와 학습자의 모국어에 대응하는 단위성 의존명사와 비교하는 연구는 오상언(2010), 이영남(2011), 양호(2013), 나옥봉(2016), 묘우(2018), 장위(2020) 등을 들 수 있다. 오상언(2010)에서는 한・중 분류사를 명사 분류사와 동작 분류사 두 가지로 나누고 그들의

개념과 분류, 그리고 통사적으로 명사 분류사구에서의 실현양상을 살피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이영남(2011), 묘우(2018)는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에서 나오는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와 중국어 능력 시험(HSK)에서 나오는 중국어 양사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양호(2013)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 95개를 대상으로 선정한 뒤, 이들을 시간, 공간, 수량・횟수, 등급・서열, 화폐・비율 등 다섯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용법을 비교하였다. 장위(2020)는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와 중국어 양사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부분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또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누고 의미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와 태국어(쭈타맛 분추, 2006), 인도네시아어(나자루딘, 2010), 일본어(우형식 외, 2005)를 비교해 본 연구들이 있었다.

둘째, 단위성 의존명사의 습득 순서에 관한 연구로는 이다미・이귀옥(2002), 이선영・신혜원(2013) 등이 있다. 이다미・이귀옥(2002)에서는 23명의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산출 과제(production task)[5]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제2언어 학습자들은 인성(animacy human) > 기능(function) > 생물(animacy nonhuman) > 모양(shape)의 순서로 분류사를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분류사의 사용 빈도, 분류사의 특성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선영・신혜원(2013)은 유도 모방 과제를 사용하여 52명의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수 분류사에 대한 지식과 한국어 전반적 능숙도의 관계, 또한 한국어 수 분류사 습득 순서와 입력빈도 간의 상관도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험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수 분류사에 대한 지식 수준 또한 높아졌다. 개별 수 분류사의 습득 순서는 '개(個) > 마리 > 권(卷) > 잔(盞) > 벌 > 송이 > 켤레 > 병(甁) > 자루 > 분 > 장(張) > 포기 > 그루 > 갑(匣) > 알 >

5) 관제 수행하는 방법은 피험자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how many objects are there in the picture?" 라고 묻는다. 피험자가 알맞은 수량표현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톨 > 명(名) > 재 > 모 > 대(臺)’로 나타났다.

셋째, 단위성 의존명사의 교육 현황에 관한 연구로는 정은실(2009), 왕슈에(2013), 이정은(2013), 홍로(2014), 등림(2015), 류허란(2020) 등이 있다. 정은실(2009)에서는 학습 단계의 맞는 분류사 체계를 설정하기 위해 먼저 주요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 6종 총 35권에 나타난 분류사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를 통해서 같은 급별인 교재마다 제시된 분류사 수의 격차가 크다는 것[6]과 제시 단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류사의 난이도 및 사용 빈도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로, 왕슈에(2013)에서도 분류사의 교재 제시 현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재분석, TOPIK 문항 분석, 그리고 설문 조사 등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 분류사의 교육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였다. 결론은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분류사를 조사함으로써 한국어 분류사를 사용 빈도와 교수 학습의 위계에 따라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TOPIK 문항에 관한 분석 결과는 한국어 능력 시험 제17회부터 29회까지 분류사에 관한 빈칸 채우기 문항이 매회 1문제씩 출제되고 있고 읽기, 듣기 지문에서도 빈번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서 분류사가 가진 중요성 및 분류사 교육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정은(2013)은 단위성 의존명사를 ‘단위명사’로 칭하며 6개의 교육 기관의 한국어 교재 총 45권을 선정하여 교재별로 단위명사 출현 빈도 및 제시 양상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단위명사는 초급 단계에서 문법 표현과 기초 어휘를 학습할 때 같이 제시되었으며, 연습 활동에서 학습한 어휘를 충분히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같은 단위명사라 할지라도 다른 학습 단계에서 교육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학습 단계별로 단위명사 목록을 선정하고 교육 현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홍로(2014)는 수량사구의 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 교육 기

6) 정은실(2009: 26)은 이화여대 교재에 나타난 분류사의 수는 서울대 교재에 제시된 분류사의 1/6로 현저히 적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관에 출판된 총 9종의 한국어 교재(초급, 중급)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재에는 '명사+수사(수관형사)+분류사' 형식이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으며 한자어 분류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출현 빈도에 있어서 중급 단계보다는 초급 단계에서 더 많이 제시된 것으로 보였다는 결론이 있었다.

넷째, 단위성 의존명사에 관한 연구가 오랫동안 활발히 진행됐으나 오류 관련 연구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유주명(2007)은 최초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분류사 오류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조사는 중국 대학교 한국어와 초급, 중급, 고급반 학생 2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습자의 시험지 및 작문자료를 수집한 뒤 그중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였다. 학습 단계별 오류율은 초급 65.4%, 중급 26.9%, 고급 7.7%로 학습 단계가 높을수록 오류 발생 수가 적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분류사의 오류 유형을 '중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문법적/의미적)와 '한국어의 내적 간섭에 의한 오류'(형태적/문법적/의미적)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의 개선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긴 시간에 걸쳐 상당한 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오류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냈다. 하지만 오류에 대해서 세밀한 기준에 따라 판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문법적 오류 중에 '*열다섯 원(십오 원)', '*새 삼 마리'(새 세 마리) 등을 한 유형으로 나눴는데 사실 이것들은 수관형사의 오류이며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형태적 오류 중에도 수관형사와 수사의 혼동으로 발생한 오류가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분류사를 포함한 오류문만 도출하고 사용 빈도를 계산하지 않아 오류율을 설명하는 데에 엄밀하지 못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남았다. 그리고 장홍수(2010), 추청(2013), 왕슈에(2013), 왕홍범(2019)은 객관식 문항을 통해 학습자의 오류 양상 및 원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장홍수(2010)에서 한국과 중국에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에 대한 의미적, 어순적, 수

사(수관형사)와의 결합 등 세 가지 항목의 습득을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초급 학습자의 동형이의어로 인한 오류율(44.4%), 어순으로 인한 오류율(27.2%), 수사(수관형사)의 선택으로 인한 오류율(35.9%)이 모두 다른 단계 학습자보다 높았다. 추청(2013)은 45명의 초급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은 한국어 능력 시험 18～27회에서 출제된 문제와 『함께 배워요 한국어』 1, 2 에서 제시한 문제로 구성하였다.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가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은 모어 간섭, 목표 언어에 대한 이해 부족, 두 언어의 다른 통합 관계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설문 조사가 15개의 문항만으로 구성되었고 문항들도 모두 사지선다형 문항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가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잘 파악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왕슈에(2013)에서도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산대학교 재학 중인 중국인 학습자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3개의 문항을 통해서 학습자의 분류사에 대해 인식을 알아보았다. 인식 조사의 결과로 일상생활에서의 분류사 사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6.03%에 불과하였다[7]. 2단계에서는 분류사구 구성에 대한 지식, 한자어 한·중 분류사의 차이에 대한 지식, 분류사구에서 '들, (이)나, 에'의 첨가 여부에 대한 지식 등 42개의 객관식 문항을 추출하여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왕슈에가 지적하는 형태적 오류 중에 수사(수관형사)의 오류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았다. 또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학습자가 나타낼 법하다고 생각하는 오류 양상과 학습자가 실제로 생산하는 오류 양상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객관식 문항을 사용해 학습자의 실제 오류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더 큰 범위의 학습자 어휘 오류에 관한 연구인 민자(2001), 홍은진(2006), 유력몽(2012) 중에도 단위성 의존명사에 관한 오류 양상을 밝힌

7) 이 연구에서 '일상생활에서 분류사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16.03%에 불과하며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응답자는 각각 49.06%, 34.90%를 차지하고 있다.

적이 있다. 민자(2001)에서 학습자가 중국어를 한국어로 직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사용 습관이 한국어 작문에 그대로 반영되어 오류가 생긴다고 한다[8]. 이는 국어와 한국어의 수량사구 어순 및 결합 제약이 다르기 때문이다. 홍은진(2006)에서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의 일종으로 수사(수관형사)의 오류 양상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오류의 유형으로 첫 번째는 목표어인 한국어의 구조적 차이를 몰라 일어난 오류이며 두 번째는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가 전이된 오류이다[9]. 유력몽(2012) 또한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 중에 2%가 수량표현에서 나타난 오류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유력몽은 학습자의 수사 오류는 고유어로 된 수사를 변용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는 표현에 나타나고(예 *향수 셋 병) 단위명사의 오류의 경우는 한·중 단위명사의 의미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위성 의존명사의 교육 방안을 모색한 연구로는 정은실(2009), 양호(2013), 왕슈에(2013), 등림(2015), 장신희(2020) 등을 들 수 있다. 정은실(2007)은 한국어 교재, 기존의 연구물, 구어 텍스트 등을 대상으로 분류사 목록을 단계별로 추출하였으며 효율적으로 교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분류사 교수 방법으로 '덩이(Chunk) 형태의 활용', '어원의 활용', '연어의 활용', '범주화를 통한 학습' 등 참고할 만한 교육적 제안을 하였다. 한편 양호(2013:78)에서 동일한 한자어라 하더라도 한국어에서의 용법과 중국어에서의 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왕슈에(2013)는 설문 조사를 통해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중국인 학습자들은 분류사의 선택 및 분류사구의 어순을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모형

8) 이러한 오류의 예로, '*김 선생님은 한 딸과 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한 구름이 없습니다.', '*정말 한 재미있는 밤이었습니다'.

9) 첫 번째 유형은 예컨대 학습자가 '한자어 수관형사+한자어 단위성의존명사' 의 결합 규칙을 몰라 '두 주', '일 살' 등 오류를 나타내는 상황이며 두 번째 유형은 모국어 전이로 '전화 2개를 하다' 등 표현을 만드는 상황이다.

을 설계하며 ‘어순 교육’, ‘연어망을 통한 덩어리 활용’, ‘동형한자어의 활용’, ‘어원의 활용’ 등 방법을 제안하였다. 홍로(2014)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어원에 따른 덩어리 활용 교육’, ‘어순 교육’, ‘동형한자어의 수량사구 교육’ 등 다른 연구와 비슷한 교육 제안을 제시하였다. 등림(2015)은 초급 한국어 교재에서의 단위성 의존명사 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바람직한 교수법으로 모둠 활동, 짝 활동, 개인 활동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단위성 의존명사를 교육할 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방안을 제시했으나 실제로 해당 교수 방안을 실행하지는 못했기에 학습자의 학습 효과, 언어 능력 향상 여부 등의 검정이 부족하다는 점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장홍수(2010)와 장신희(2020)에서는 앞선 연구들의 단점을 살려 교육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습자를 모집하여 강의를 진행한 다음 평가를 통해 수업 효과를 검증하였다. 두 연구에서 실험 집단의 성적 향상이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홍수(2010)의 교육적 실제에서 중국인 학습자한테 학습자 모국어를 활용하여 한·중 양어의 단위성 의존명사의 의미적, 어순적 차이, 수량사구 구성 차이를 밝히고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 규칙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내용이 학습자 수준을 가리지 않고 TOPIK 기출 문제로만 편성했다는 점 그리고 대조집단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장신희(2020)에서는 대조집단을 만들었으며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의 사전평가 오답 수와 사후평가 오답 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전평가에서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의 오답 수 간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강의를 진행한 뒤 실험 집단의 오류율이 대조 집단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사가 목표 단위성 의존명사를 제시할 때 학습자 모국어를 활용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자(중국어)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되었다.

2.2. 학습자 말뭉치에 관한 연구

초기의 말뭉치는 1960년대에 미국의 브라운대학에서 구축한 100만 어절 규모의 브라운 코퍼스(Brown Corpus)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말뭉치를 이용한 사전 편찬이나 언어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당시 한국어 사전편찬실)에서는 1988년에 처음으로 말뭉치를 구축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말뭉치를 구축해 왔다. 또한, 1998년에 들어오면서 21세기 세종계획이라는 정부 지원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말뭉치 이론 및 구축 등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후에 말뭉치를 활용하여 교육내용을 구축하거나 학습자 언어를 탐구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우선 말뭉치를 통해서 한국인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수량사구를 사용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 자료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내용 및 지침을 제안한 연구로 마룽연(2016), 윤희수(2018)를 들 수 있다. 마룽연(2016)은 먼저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동사 유의어를 이해 및 사용에 나타난 오류 양상을 살펴본 뒤 오류의 기본적인 원인을 유의어 교육내용 제시의 부족으로 파악하였다. 말뭉치를 이용한 동사 유의어의 분석과 교육내용의 구축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말뭉치는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이며 KWIC(Keyword in context) 문맥 색인 방식을 통해 동사 유의어를 변별할 때 필요한 격틀 정보, 연어 정보, 화용 정보, 활용형정보 등을 분석하였다. 윤희수(2018)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수량사구 유형을 정립하기 위해 수량사구의 주요 구성성분인 수사 및 수관형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코퍼스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자료는 '21세기 세종계획'의 형태분석 말뭉치 1,000만 어절이며 분석 대상을 고유어 수사 '둘, 셋, 다섯', 한자어 수사 '이, 삼, 오' 그리고 고유어 수관형사 '두, 세, 석, 서'로 선정하여 말뭉치를 재구성하였다. 코퍼스 분석을 통해 총 8가지의 수량사구 유형 및 그에 따른 특징과 사용 양상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최근 들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전체 혹은 어느 특정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한 언어 요소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전체 오류에 대한 고찰(강현화, 2017), 어미에 관한 연구(한송화, 2018; 길혜빈, 2018; 윤수정: 2019), 정도부사에 관한 연구 (김은정, 2018), 조사에 관한 연구(김미경, 2017), 접사에 관한 연구(이은서, 2017), 한자어에 관한 연구(루준언, 2017) 등이 있다.

학습자의 전체 오류에 대한 고찰로 강현화(2017)는 중국인 학습자와 전체 학습자의 말뭉치를 바탕으로 형태 표지별(문어, 구어) 사용과 오류 양상(오류 위치, 오류 양상, 오류 층위)을 분석해 보았다. 오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 중국인 학습자는 전반적으로 전체 학습자와 비슷한 수준의 오류율을 보였으나, 고유명사, 감탄사에서는 낮은 오류율 보인 반면에 조사, 어미 등 기능 어휘에 상대적으로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어미에 관한 연구에서 한송화(2018)는 종결어미에 착안하여 전체 학습자의 문어와 구어 중에 나타난 종결어미 사용 양상과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길혜빈(2018)은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결어미 ‘-으면’, ‘-어야’, ‘-거든’의 사용 양상 및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적인 한국인의 조건 연결어미의 사용 양상도 같이 살펴보아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윤수정(2019)은 부사형 어미 ‘-게’를 의 사용 용법과 학습자 오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내용과 비교하여, 어미 ‘-게’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 제언하였다.

김은정(2018)은 학습자들의 숙달도와 모어를 각각 변인으로 삼아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연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사용하여 정도부사의 숙달도별, 모국어별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학습자가 나타낸 오류를 분석하였다.

김미경(2017)은 학습자 말뭉치를 기반으로 중·고급 수준인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이/가’, ‘은/는’ 오류 및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여타 선행연구에 비해 김미경의 연구는 오류 분석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들이 두 조사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학습자의 중간언어 발달 과정에 대해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은서(2017)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접사 사용에서 나타나는 중간언어 체계를 고찰하기 위해 학습자 숙달도에 따른 접사의 사용률, 다양도 회귀도를 살피고,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사 오류를 분석하여 오류의 원인을 추론하였다. 학습자의 접사 사용 양상을 살핀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한두 가지의 접사를 선정하여 연구한 데에 비해 이 연구는 접사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접사 사용에 대한 학습자의 중간언어적 양상을 살폈다는 점에서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로서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루준언(2017)은 기초 한자어목록을 도출한 뒤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사용 오류를 부분 이형동의어, 완전 이형동의어, 동형 완전이의어, 동형 부분이의어의 4종류로 나누어 오류 분포를 분석하였다. 또한 오류의 원인으로 모국어 전이로 인한 오류, 목표어 영향에 의한 오류, 의사소통 전략으로 인한 오류 및 환경에 따른 오류로 분류해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비슷한 연구 방법으로 실제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문어 자료를 통해 학습자 언어를 파악하며 오류의 원인을 규명해 냈으며 대규모 말뭉치의 가치와 효용성을 입증해 냈다. 아직까지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 다양한 대상과 주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가 많아지리라 예상한다.

3.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3.1. 연구 자료

국립국어원「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10]에 제시된 의존명사는 총 131개가 있다. 그중에 ①표준국어대사전에 '단위', '세는 단위', '헤아리는 말' 등 의미를 지닌 단위성 의존명사를 도출한 뒤 ②최형용 외(2017)에 제시된「의존명사에서의 분류사 목록(262개)」[11]과 비교하여 최종 목록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단위성 의존명사 최종 목록

고유어	달05[12], 마리01, 분01, 살04, 원01, 해01, 가지04, 군데, 번째, 그루01, 대01, 모금01, 바퀴01, 벌02, 채08, 판01
한자어	개07(個), 개월(個月), 권01(卷), 년02(年), 명03(名), 번04(番), 분06(分), 세09(歲), 시10(时), 시간04(时间), 월02(月), 일05(日), 장17(張), 주24(週), 호13(號), 년대(年代), 년도(年度), 대16(臺), 등03(等), 부13(部), 점10(點), 초07(秒), 편09(篇), 개국01(個국), 건04(件), 교시03(校時), 대07(代), 도04(度), 동14(棟), 리02(里), 석07(席), 세07(世), 위05(位), 조12(條), 조14(組), 주년02(周年), 주일03(週日), 차04(次), 척08(隻), 평02(坪), 회04(回)
외래어	달러(dollar), 미터02(meter), 밀리미터(millimeter), 센티미터(centimeter), 퍼센트(percent), 그램(gram), 킬로(kilo), 킬로그램(kilogram), 킬로미터(kilometer), 톤01(ton), 리터01(liter)

본 연구는 위 <표 2>와 같이 총 68개[13]의 단위성 의존명사를 포함한

10)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2003년 5월에 발표한 것이다. 1단계 982개, 2단계 2,111개, 3단계 2,872개, 총 5,965개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목록에 담긴 내용은 순위(연구원 2002년 보고서인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의 빈도 순위), 단어, 품사, 풀이, 등급(최종적으로 부여된 등급) 등이 있다.

11) 이 목록에 제시된 분류사들은 본고에서 다루는 '단위성 의존명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범주에 상이한 부분이 있기에 목록에 '놈', '군', '님' 등은 분류사에 속하지만 단위성 의존명사에 속하고 있지 않아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12) 이 숫자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른 의미를 지닐 때 대응하는 표제어의 어깨번호와 일치한다.

13) 기존 연구 중에 이정은(2013:62)은 한국어 학습용 어휘 중 단위명사 목록이 총 125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렸으나 '단위명사'와 '단위성 의존명사'의 범주 차이가 있기

최종 목록을 선정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국립국어원 '학습자 말뭉치' 이다.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국내 교육 기관 학습자, 이주민, 학문목적 학습자, 국외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그들이 생산한 학습자료를 수집, 처리해 분석할 수 있도록 구축한 말뭉치이다. 이 학습자 말뭉치는 2019년 12월 기존 원시 말뭉치 3,650,832어절(문어 2,819,363어절, 구어 831,469어절, 형태주석 말뭉치 2,629,251어절(문어 2,037,748어절, 구어 591,503어절), 799,157어절(문어 462,322어절, 구어 336,835어절)[14]의 표본을 보유하고 있다. 본고에서 사용 양상 분석에는 형태주석 말뭉치를, 오류 분석에는 오류주석 말뭉치를 활용하여 말뭉치를 재구성하고 분석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3.2.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연구 자료 선정의 기준이 되는 단위성 의존명사 최종 목록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총 68개의 단위성 의존명사 목록을 도출하였다.

2단계는 연구 대상이 되는 말뭉치를 재구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국립국어원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를 이용해서 1단계에서 도출된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한 문장의 형태주석 말뭉치와 오류주석 말뭉치를 추출한다. 말뭉치를 도출할 때 검색어의 세종 형태표지는 의존명사(NNB)로 한정하여 학습자의 국적을 중국으로 한정하지만 한국어 등급이나 말뭉치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국어와 문어 자료를 함께 도출한다. 또한, 도출된 어절이 단위성 의존명사로 쓰이고 있는지를 판정하는 과정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도출된 형태주석 말뭉치는 사용 양상의 분석에 쓰이

때문에 본고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로 되어있는 단위성을 지닌 의존명사에만 한정하였다. 예컨대 '송이', '조각' 등은 단위를 나타내는 자립명사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의존명사]에 속하고 있지 않음으로 연구 대상에 배제하였다.

14) 국립국어원 『2019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연구 및 구축 최종보고서』

고 오류주석 말뭉치는 오류 분석에 사용된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오류주석 말뭉치에 기본적으로 오류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형태주석 말뭉치에도 식별되지 못한 오류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의 판정 및 태깅 작업을 한 차례 더 진행하였다. 2단계의 재구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3> 말뭉치 재구성 절차

	형태주석 말뭉치	오류주석 말뭉치
1차: 학습자 말뭉치 원시 자료	27436어절	885어절
2차: 말뭉치 자료 재구성	①연구 목록에 맞는 '단위성'을 지닌 의존명사 어절을 도출	①연구 목록에 맞는 '단위성'을 지닌 의존명사 어절을 도출
	②정문과 오류문을 판별	②형태주석 말뭉치에 나타난 오류문을 식별 및 태깅
	③오류문을 태깅하여 제외	③원어민을 구해 오류를 판정해서 수용 가능성이 높은 오류를 제외
3차: 최종 연구 자료	**9184어절**	**428어절**

3단계에서는,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다. 2단계에서 도출된 형태주석 말뭉치 자료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실제 사용 양상을 알아내고자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 빈도, 단위성 의존명사가 수관형사와 결합해서 수량사구를 이루는 양상(수관형사와의 결합 양상/ 수량사구 유형)이 숙달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내고자 한다. 분석의 틀은 <표 4>와 같다.

<표 4> 사용 양상 분석의 틀

숙달도 / 양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6급 이상
	문어/구어						
수관형사와 단위성 의존명사의 결합 양상	고유어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한자어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아라비아숫자+단위성 의존명사						
수량사구 구성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동사(구)						

4단계는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분석하기 전에 원어민 화자 4~5명을 구하여 오류의 정도에 대해 판단하게 할 예정이다. 오류 분석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단위성 의존명사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여 생기는 의미적 오류, 철자나 발음에 관한 형태적 오류, 그리고 수관형사 및 명사와 결합하여 수량사구를 이루는 데에 생기는 통사적 오류,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숙달도에 따른 분포 및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분석의 틀은 <표 5>와 같다.

<표 5> 오류 분석의 틀

숙달도 / 오류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6급 이상
	문어/구어						
의미적 오류	부적합 어휘 사용						
형태적 오류	철자나 발음 오류						
통사적 오류	수량사구 구성 오류						

5단계는 오류 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오류의 원인을 탐색하여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미한 단위성 의존명사 교육 자료 및 교수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에 사용 양상의 분석 결과 및 오류 분석의 결과를 총괄하여 논의하고 본 연구의 교육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단위성 의존명사의 개념 및 유형

1.1. 단위성 의존명사의 개념

이 절에서는 ‘단위성 의존명사’ 라는 용어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단위성 의존명사의 정의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단위성 의존명사’ 는 한국어에서 독립된 품사범주로 자리 잡지 못하며 그의 명칭 및 범위에 관한 논의도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학자들이 단위성 의존명사의 ‘수량화’ 기능과 ‘분류화’ 기능의 두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명칭을 부여하여 연구해 왔다. 최현배(1955:214) 『우리말본』에서 셈을 나타내는 매김씨 아래에 쓰여서 그 ‘셈의 낱덩이’ (단위)를 나타내는 ‘안옹근 이름씨’ (불완전명사)를 ‘셈낱덩이 안옹근 이름씨’ (수단위 불완전명사)라고 명명하며 그 범주에 도량형을 들어내는 명사들도 포함하였다. 남기심・고영근(1993)『표준국어문법론』, 고영근・구본관(2018)『우리말 문법론』, 그리고 국립국어원(2005)『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에서는 모두 ‘수사나 수관형사와 같은 수량표현과 같이 쓰이는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 라는 정의에 따르며 단독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의존명사의 하위범주로 다루었다. 서정수(1996:466)『국어문법』에서도 비슷한 견해로 의존명사를 일반 의존명사와 수량 단위 의존명사로 나누며 그중에 수량 단위 의존명사를 ‘수효나 분량을 헤아릴 때 수사(수관형사) 아래에 쓰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숭녕(1968)은 ‘단위명사’ 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것이 수를 계산할 때 쓰이는 말이며, 꼭 의존명사만 단위명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보통 명사가 단위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고 파악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수량화 기능에 착안하여 논의가 이루어다가 이익섭(1973)에 의해 '분류사' 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다. 그 후 80년대에 들어서야 김영희(1981)에서 분류사 자체가 거론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최형용 외, 2017:49). 임홍빈(1991)에서 분류사가 양수 표현 뒤에 쓰이며, '분류사' 자신을 수량화하지 못하고 의미적 지시 관계에 놓이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우형식(2000)은 한국어 분류사가 셈의 단위가 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온 점에서 한국어 분류사는 '수 분류사' 에 속하는 것으로 전제되었다고 하며 그의 본질적인 기능은 명사 지시물에 대한 분류화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우형식(2000:63)에 따르면 '고양이 두 마리' 와 같은 표현에서 '고양이' 가 동물의 속성을 띠고 있다는 인식에서 분류사 '마리' 를 선택한 다음에 수량사와 통합되어 '고양이' 를 개체화하고 수량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대상 인식→부류화→개체화→수량화' 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분류사의 주된 기능이 분류화라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람을 셀 때 '명(名)' 이 사용되고 동물을 셀 때 '마리' 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분류사를 단위화 기능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다. 분류사의 기능은 채완(1990:169)에서 셀 수 있거나 셀 수 없는 명사에 관여해서 그 명사를 셀 수 있게 해 주는 것과 셈의 대상이 되는 명사의 의미론적 특성을 명세화(specify)해 주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한 바 있다. 분류사라고 칭하는 학자들은 첫 번째 기능보다 두 번째 기능에 더 주목하여 논의해 왔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단위성 의존명사가 선행 명사와 결합할 때 명사의 의미자질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부정하지 않지만 '분류화' 기능이 단위성 의존명사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즉 수량화 기능이 단위성 의존명사의 주된 기능이며 명사와의 선택 관계를 통해서 분류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아울러 '분류사' 라는 명칭은 품사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며 애매모호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라는 정의를 따르며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는, 단위성을 지닌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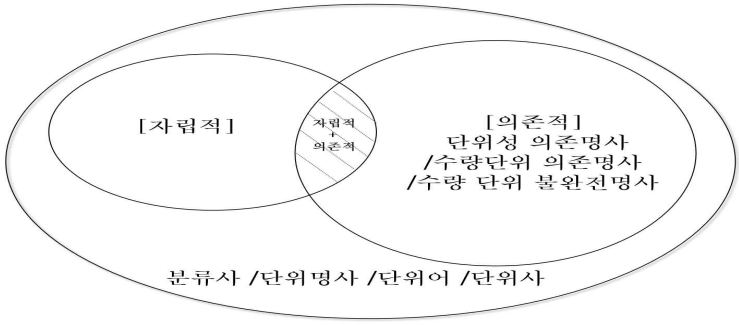
존명사에 한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상 소개한 단위성 의존명사 명칭 및 정의에 관한 논의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단위성 의존명사에 관한 명칭과 정의

명칭	대표논저	정의
셈낱덩이 안옹근 이름씨(수단위 불완전명사)	최현배(1955)	셈을 나타내는 매김씨(관형사) 뒤에 쓰여서 그 셈이 낱덩이를 나타내는 안옹근 이름씨(불완전명사)
단위명사	이숭녕(1968)	수를 계산할 때 쓰이는 말
단위어	박성훈(1985)	수량을 헤아리는 기준이 되거나 분량의 표준이 되는 것을 이르는 말
量詞(양사)	강창석(2009)	수사(수관형사) 뒤에 붙여 量(양)을 나타내는 말
수량 단위 불완전명사	양주동・유목상(1968)	완전명사의 뜻을 바꾸거나 형식화하여 쓰인 말로써 사물을 계량하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단위사(수량단위 명사)	채옥자(2014)	실체의 수나 동작 혹은 사건의 횟수를 세는 단위
수량단위 의존명사	서정수(1996)	수효나 분량을 헤아릴 때 수사(수관형사) 아래에 쓰는 것
단위성 의존명사	남기심・고영근(1993) 국립국어원(2005) 고영근・구본관(2018)	수사나 수관형사와 같은 수량표현과 같이 쓰이는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
분류사	임홍빈(1979)	보통 명사를 단위화하여 표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존재

	채완(1990)	셀 수 있거나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게 해 주며 셈의 대상이 되는 명사의 의미론적 특성을 명세(specify) 해 줌
수 분류사	우형식(2000)	셈의 단위가 되면서 명사 지시물에 대한 부류화 기능을 함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단위성 의존명사는 각 학자에 따라 명칭과 정의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각각 포함하는 하위 유형의 범위도 달라진다. 본고에서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각 정의의 범위 관계를 정리했다.



<그림 1> 각 정의에 따른 범위 관계

그림에서 범위가 가장 넓은 범주는 이른바 '분류사', '단위명사' 혹은 '단위어', '단위사' 라는 것인데 이 범주에서는 사물을 분류하거나 그 수를 헤아리는 기능을 행하는 자립명사 및 의존명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사람', '가구', '걸음' 등 명사는 자립적 명사이지만 '한 사람', '다섯 가구', '한 걸음' 과 같이 수관형사 뒤에 위치하여 단위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립적 명사를 제외하고 오른쪽 원에 들어갈 의존명사들만 다루고자 한다. 또한 <그림 1>에서 교착된 부분은 '시간', '그루', '해' 등을 예로 들 수 있는

데 이러한 명사들은 자립적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단위성 의존명사로 쓰여 수를 헤아릴 때 쓰일 수도 있다. 물론 '분류사' 라고 명명하지만, 그의 하위범주를 한정하여 일부만 다루는 연구들도 있었다. 예컨대 임홍빈(1991)은 일반 명사가 단위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는 일반 명사로 보고, 나머지 단위성 의존명사만을 '분류사' 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없는 언어에서 단위성 의존명사가 있는 언어로 발달해 왔으며 한자어, 외래어를 차용하면서 단위성 의존명사의 범주가 계속 변화해 왔다.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단위를 계산하는 방식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아울러 자립적 명사에도 단위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단위성 의존명사 범주에 들어간 것들이 있다. 단위성 의존명사로 인정하는지 혹은 단위의 의미를 띤 자립명사로만 인정하는지는 사전마다도 약간의 기준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단위성 의존명사는 역동적인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여러 명칭 중에 가장 명확한 범위를 가지는 '단위성 의존명사' 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각 단위성 의존명사의 품사 분류와 정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르겠다.

1.2. 단위성 의존명사의 유형

단위성 의존명사의 범주에 대한 논의도 정의와 같이 수량화 기능에 중심을 둔 것과 분류화 기능에 중심을 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간 많은 학자가 단위성 의존명사를 어원, 기능, 의미 등 다양한 측면에 입각하여 분류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원에 의한 분류 체계이다. 우선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는 기원에 따라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 '외래어 의존명사' 로 삼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할 때 본고에서 다루는 학습용 단위성 의존명사들을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어원에 따른 단위성 의존명사 유형

ㄱ.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 달, 마리, 분, 살, 원, 해, 가지, 군데, 그루, 대, 모금, 바퀴, 벌, 채, 판

ㄴ.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 개(個), 개월(個月), 권(卷), 년(年), 명(名), 번(番), 세(歲), 분(分), 시(時), 시간(時間), 월(月), 일(日), 장(張), 주 (週), 호(號), 년대(年代), 년도(年度), 대(臺), 등(等), 부(部), 점(點), 초(秒), 편(篇), 개국(個國), 건(件), 교시(校時), 대(代), 도(度), 동(棟), 리(里), 석(席), 세(世), 위(位), 조(組), 조(條), 주년(周年), 주일(週日), 차(次), 척(隻), 평(坪), 회(回).

ㄷ.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 달러(dollar), 미터(meter), 센티미터(centimeter), 퍼센트(percent), 그램(gram), 밀리미터(millimeter), 킬로그램(kilogram), 킬로미터(kilometer), 톤(ton), 리터(liter).

기능을 기준으로 삼아 분류한 연구는 채완(1990)을 들 수 있다. 채완(1990)은 이른바 분류사[15]를 부류분류사와 도량분류사로 이분한 다음 부류분류사를 다시 기능에 따라 의(衣), 식(食), 주(住)생 관계, 문자생활관계, 기계· 기구류에 관련된 분류가, 사건·행위에 관련된 분류사로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도량분류사는 표준화 도량형 외에 도량분류사로서 인체가 척도가 되는 분류사[16]도 따로 모아 기술하였다. 채완의 분류 체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채완(1990:175-178)의 분류사 체계

부류 분류사	기능	의생활	감, 벌, 가마, 짝, 켤레, 가닥...
		식생활	뭇, 그루, 송이, 두(頭), 마리, 가락,

15)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분류사', '단위사', '단위명사' 등 개념들이 본고에서 다루는 '단위성 의존명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하위범주가 서로 다르다. 이로 인해 각 학자의 논술을 인용할 때 원문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16) 채완(1990)에 따르면 일시적 도량 분류사로 쓰이는 인체 분류사의 예로 '발'이 있다. 이가 헤아리는 길이는 사람이 두 팔을 벌려 펼친 길이이다. 이러한 도량 분류사는 사람의 개체 차이 또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꼬치...
		주생활	칸, 채, 동(棟), 우리,..
		문자생활	권(卷), 쪽, 부(部), 편(篇), 행(行), 장(張),...
		기계・기구류	척(隻), 대(臺), 정(挺), 문(門), 자루, 발(發)
	사건・행위		가지(제기차기), 판, 회(回), 건(件), 방(放)...
	모양		개(個), 덩어리, 쌍(雙), 방울, 알, 장(張)...
도량 분류사	표준화된 도량형		미터법: 미터, 킬로그램... 척관법: 척, 승...
	일시적 도량형		걸음, 길, 모숨, 발, 발짝, 보(步)...

채완(1990)에서 사건, 행위를 기술하는 단위성 의존명사를 부류 분류사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해 곽추문(1996)에서 다른 의견을 제기하였다. 곽추문(1996:1)에서 분류사를 '사람이나 사물, 동작이나 행위의 수량 단위를 표시하는 말'이라고 정의하면서 그간에 명사 분류사에 대한 연구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동작 분류사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동작 분류사를 따로 분리하여, 부류 분류사와 도량 분류사하고 대등한 층위에 넣었다. 곽추문(1996)에서 주장한 분류사의 하위범주는 아래 <표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8> 곽추문(1996)의 한국어 분류사 체계

분류사	**부류 분류사**	개체 분류사	유정성	사람: 명(名), 분, 놈
				동물: 마리, 두(頭), 수(首), 필(匹)
			비인간적 존재: 구(具), 위(位)	
			속성	식물: 송이, 그루, 포기
				문자/문화: 권(卷), 편(篇), 매(枚)
				건물: 채채, 동(棟), 칸, 곳, 군데
				기계/도구/운송구단: 대(臺), 량(輛),

				문(門)
				의복/피륙: 벌, 칠, 장(張), 감
			모양	알, 방울, 가닥, 개비
			기타	가지, 개(個), 건(件)
		집체 분류사		유정성: 쌍(雙), 작, 뭇
				무정성: 벌, 단, 다발, 켤레
	도량 분류사	용기분류사		잔(盞), 병(甁), 통, 그릇
		신체분류사		손, 발, 걸음, 줌
	동작 분류사	단일성		번(番), 판, 대, 모금, 바퀴
		집체성		바탕, 차례

채옥자(2014)에서도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소위 '단위사'를 사물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사와 같은 평면에 설정하고 다루었다. 다른 연구와 다른 점은 이 연구에서 도량형 단위를 사물 단위의 큰 범주 아래 놓고 사간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사물 단위사도 기분 범주로 나누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어 단위사를 기본적으로 사물, 동작, 시간의 세 범주로 나누며 사물 단위사를 다시 개체, 집합, 도량형 단위사로 분류할 수 있다.

<표 9> 채옥자(2014:48)의 단위사 체계

단위사	사물 단위사	개체 단위사	개(個), 명(名), 마리, 그루, 송이, 대(臺), 자루 등
		집합 단위사	켤레, 다스, 톳, 손 등
		도량형 단위사	미터, 킬로그램, 리터 등
	동작 단위사	번(番), 차례(次例), 회(回), 바퀴, 순배 등	
	시간 단위사	초(秒), 분(分), 일(日), 주일(週日), 달 등	

유동준(1983:56)에서는 단위성 의존명사를 분류사라 칭하며 분류사의 분류 기준으로 '분류사 자체가 사람에게 어떤 모양으로 인식되느냐'[17]

17) '어떤 모양으로 인식되느냐'라는 말은 유동준(1983:4)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둥그런 공 모양으로 인식되면 '밤 한 톨', '도토리 세 톨'과 같이 '톨'이라는 분류사를 쓰며, 납작한 모양으로 인식되면 '종이 한 장'과 같이 '장'이라는

, 그리고 '분류사와 호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명사들을 분류사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느냐'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유동준에 의한 분류사의 구체적인 분류 범주는 아래와 같다. 이 연구에서는 앞 연구들에서 다루던 동작이나 사건의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을 제외하였다. 또한, 시간에 관련된 단위성 의존명사를 모양-무형 범주에 넣어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분류사 범주에는 역시 분류화 기능을 기진 자립적 명사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명사들은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다루지 않겠다.

<표 10> 유동준(1983:56-57)의 분류사 체계

분류사 범주	척도 범주		절대척도분류사: 근(斤), 평(坪), 판(板),
			상대척도분류사: 줌, 뼘, 잔(盞)
	모양 범주	유형	구형분류사: 톨, 방울, 알
			장방형분류사: 가락, 자루, 개비
			편형분류사-잎, 장(張), 폭(幅)
		무형	검, 편(篇), 시간(時間)
	배열범주	규칙 배열	엮음분류사: 두름, 꽤
			포갬분류사: 연(聯), 꾸러미
		불규칙배열	꼬치
	인성범주	인성분류사	명(名), 분, 구(具)
		비인성분류사	필(匹), 마리
	수량범주	중립분류사	개(個)
		수량분류사	낱분류사: 병(甁), 마디
			무리분류사: 다발, 접

리우팡(2016)은 인지 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 분류사를 범주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생물분류사, 무생물 분류사 그리고 추상물의 세

분류사를 쓰는 것을 의미한다.

가지 큰 범주로 나누고 이 세 갈래 안에서도 다시 세분하였다.

<표 11>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분류사 범주

생물 분류사	인간성 분류사	개체/집단
	동물성 분류사	
	식물성 분류사	전체/부분/전체・부분(뿌리)
무생물 분류사	형상성 분류사	점형/선형/평면성/입체형
	기능성 분류사	의・식・주생활/문화・농경・경제생활/기계・도구
	수효성 분류사	개체적/집합적
	부분성 분류사	선형물/평면・입체물
추상물 분류사	도량성 분류사	표준적/일시적
	시간성 분류사	시간의 길이/시각/나이
	사건성 분류사	넓은 쓰임/제한 쓰임

이상 정리한 바와 같이 학자들이 각자 다른 면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성 의존명사를 분류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분류 방법을 참고하여 각 단위성 의존명사의 문법적 특성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학습용 단위성 의존명사를 분류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를 재거나 되거나 하여 양을 헤아리는 '도량 단위성 의존명사', 수량이나 차례를 헤아리는 '수량 단위성 의존명사', 그리고 동작이나 사건의 횟수를 헤아리는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 [18]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그 다음 도량 단위성 의존명사의 하위범주로 시간, 길이, 넓이, 무게, 부피, 온도로 나누고 시간을 다시 시점을 나타내는 것과 일정한 시간의 길이를

18) '동량'이라는 것은 '동작이나 사건의 회수'를 일컫는 말이다. 중국어 학계에서 단위성 의존명사를 '양사(量词)'라는 독립 품사범주로 인정받고 있다. 양사에는 다시 사물의 양을 나타내는 '수량사'와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동량사(动量词)'로 이분하고 있다 (刘月华, 200:129). 본고에서는 '동량'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한국어에 동작이나 사건의 횟수를 헤아리는 단위성 의존명사를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로 명명하기로 했다.

나타내는 것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12> 한국어 학습용 단위성 의존명사의 분류

도량 단위성 의존명사	시간	시점	년(年), 월(月), 분(分), 시(時), 일(日), 초(秒)
		기간	개월(個月), 달, 교시(校時), 년(年), 년대(年代), 년도(年度), 대(代), 분, 살, 시간(時間), 일(日), 주(週), 주년(周年), 주일(週日), 초(秒), 해
	길이		미터, 밀리미터, 센티미터, 킬로, 킬로미터
	넓이		평(坪)
	무게		그램, 킬로그램, 톤
	부피		리(里), 리터,
	온도		도(度)
	기타		달러, 원, 퍼센트
수량 단위성 의존명사	사물		가지, 개(個), 개국(個國), 건(件), 군데, 권(卷), 그루, 동(棟), 마리, 명(名), 모금, 벌, 부(部), 분, 석(席), 장(張), 점(點), 쪽, 채, 척(隻), 편(篇), 조(組), 대(臺)
	순서/차례		번째, 동(棟), 등(等), 번(番), 세(世), 위(位), 차(次), 호(號), 조(條), 부(部)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	대, 바퀴, 번(番), 판, 회(回)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도량 단위성 의존명사 중에 시간을 표시하는 단위성 의존명사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간은 끝없이 흘러가는

것이며 그것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시점이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본고에서는 '년(年), 일(日), 분(分), 초(秒)' 등 시간 단위성 의존명사를 시점과 기간 두 범주에 모두 포함시켰는데 아래 예시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2ㄱ)에서의 년이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며 (2ㄴ)에서는 일 년이 지속되는 동안을 단위화하는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2ㄱ)에서 '일(日)'은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데에 비해 (2ㄷ)은 하루 동안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이와 반대로 (5ㄱ-ㄹ)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월(月)', '시(時)' 등은 시점으로만 쓰이고 기간을 나타낼 때 대응하는 '개월(個月)', '시간(時間)'을 사용한다. 이러한 특징은 정연실(2010:66)에서 '서(序)'와 '양(量)'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일(日)'과 '년(年)'은 '서'의 의미와 '양'의 의미 모두 가능하지만 '월(月)'은 '일(日)'이나 '년(年)'에 비하여 서수적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월(月)'은 서수적 의미로 많이 쓰이고 양을 표현하려고 할 때 '개(個)'를 붙여 '개월(個月)'로 사용하게 된 것은 여기서 기인한다. 또한 '동(棟)', '권(卷)', '부(部)'도 사물을 세는 동시에 차례를 나타내는 단위로 쓸 수 있다. (6ㄱ)에서 '두 동'은 아파트의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삼 동'은 차례대로 나열된 아파트 중에 3번째 건물을 가리킨다.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에 따라 앞에 오는 수관형사의 형태도 달라질 것이다.

(2) ㄱ. 오늘은 2020년 1월 1일이다.
ㄴ. 그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다.
ㄷ. 기말 시험이 5일밖에 안 남았다.
(3) ㄱ. 회의는 12시 30분부터 시작한다.
ㄴ. 토픽 시험은 3시간 30분 동안 진행한다.
(4) ㄱ. 현재 시각은 12시 21분 14초이다.
ㄴ. 그는 5초 만에 콜라 한 병을 다 마셨다.
(5) ㄱ. 작년 3월에 한국에 왔다.

ㄴ. 한국어 배운 지 삼 개월(세 달)이 됐다.

ㄷ. 오후 4시에 출발할 예정이다.

ㄹ.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쯤 걸린다.

(6) ㄱ. 그 남자는 두 동짜리 아파트 건물주이다.

ㄴ. 나는 이 아파트 3동(삼 동)에서 살고 있다.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는 본고에서 동작이나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헤아리는 단위성 의존명사에 부여한 명칭이다. 이러한 단위성 의존명사는 채옥자(2012:321)에 의해 ‘동작단위사’라고 명명하고 (7ㄱ)과 같은 순간성을 지닌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것과 (7ㄴ)과 같이 일정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사건의 횟수를 세는 것으로 이분한 적이 있다.

(7) ㄱ. 걸음, 대, 발09(發), 발/발짝, 방, 점10, 합01(合), 홰01 등

ㄴ. 게임, 그루, 교02(校), 끼01, 고팽이, 돌림01, 무08(無), 바퀴, 바탕02, 박10(泊), 배1, 번(番), 벌05, 범04(犯), 사리, 선15(選), 수04(手), 승12(勝), 잠1, 주11(周), 켜, 탕01, 판, 패01(敗), 차03(次), 차례(次例), 축, 회08(回) 등

앞 절에서 단위명사에 정의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단위사’에는 자립적 단위사와 의존적 단위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채옥자(2012)의 분류에서 ‘걸음’, ‘게임’, ‘바퀴’ 등은 자립적 명사로서 본고의 ‘단위성 의존명사’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홰’(닭이 우는 차례를 세는 단위), ‘범’(형벌을 받은 횟수를 세는 단위), ‘켜’(노름하는 횟수를 세는 단위) 등이 단위성 의존명사에 속하지만 결합할 수 있는 동사가 제한적이며 사용 빈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 범주에 넣어 다루는 단위성 의존명사들은 ‘대’, ‘바퀴’, ‘번(番)’, ‘판’, ‘회(回)’가 있다.

2. 단위성 의존명사 및 수량사구

2.1. 수관형사와 단위성 의존명사의 결합

단위성 의존명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명사, 수관형사와 공기 관계를 이루어 함께 쓰인다. 학습자들이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할 때 만나는 첫 번째 어려움은 수관형사와의 결합에 다양한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단위성 의존명사를 어원으로 분류하면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로 나눌 수 있다. 이와 연결하는 수관형사도 한자어 수관형사와 고유어 수관형사로 나누고 있다[19]. 단위성 의존명사와 수관형사의 첫 번째 결합 제약은 바로 어원이 고유어냐 아니면 한자어냐에 따른 제약이다.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 결합은 이론상으로 어원에 따라 '한자어 수관형사-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 '한자어 수관형사-고유어 단위명사', '한자어 수관형사-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 '고유어 수관형사-한자어 단위명사', '고유어 수관형사-고유어 단위명사', '고유어 수관형사-외래어 단위명사', 이 여섯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한자어 수관형사-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 및 '고유어 수관형사-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결합 사례는 극히 적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인 결합양상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

19) 본 연구에서 '쓰리'와 같은 외래어 수관형사를 사전에서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실제 사용에서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에 따라 '쓰리 페이지'와 같은 '외래어 수관형사-명사' 구성이 사용되었다는 경우도 존재한다.

<표 13> 어원에 따른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 결합 양상

한자어 수관형사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①	예: 삼 개월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②	예: 만 원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③	예: 십 미터
고유어 수관형사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④	예: 다섯 시간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⑤	예: 한 그루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⑥	예: 한 다스

①한자어 수관형사-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

한자어 수관형사와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결합은 가장 전형적인 결합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을 취하는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 중에 시간을 헤아리는 '년(年), 년대(年代), 년도(年度), 주년(週年), 개월(個月), 월(月), 주(週), 주일(週日), 일(日), 교시(校時), 분(分), 초(秒), 대(代), 세(歲)' 등이 대부분이다. 이때 단위성 의존명사들이 시점이나 기간을 나타내는 것과는 상관없이 다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한다. 그리고 시간 외에 도량형 범주에 속하는 다른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 '리(里), 도(度)'도 이 규칙에 허용한다. 차례와 순서를 헤아리는 '등(等), 위(位), 번(番)' 등이 있는데 이들은 보통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8ㄱ)은 한자어 수관형사와 시간 관련된 단위성 의존명사와 결합되는 예시를 보여주는 표현들이다. (8ㄴ)은 도량 단위성 의존명사에 범주에 들어갈 단위성 의존명사들이 한자어 수관형사와 같이 쓰이는 예시다. (8ㄷ)은 순서나 차례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들인데 여기서 '동(棟)'은 집채의 세는 단위가 아니라 차례를 나타내는 것이다. 집채를 세는 단위로 쓰일 때는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해서 사용한다. 또한 (8ㅁ)에서처럼 앞에 수가 아라비아숫자로 표시될 때도 읽을 때는 한자어 방식으로 읽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현상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

자어 수관형사 체계가 유입할 때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가 이미 많이 사용되어 있었으며 한자어 수관형사와는 자연스럽게 대응 관계를 맺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정연실, 2010:70).

(8) ㄱ. {일, 이, 삼, 사, 오... 십, 이십, 삼십...} 년(年), 년대(年代), 년도(年度), 주년(週年), 개월(個月), 월(月), 주(週), 주일(週日), 일(日), 교시(校時), 분(分), 초(秒), 대(臺)
ㄴ. {일, 이, 삼, 사, 오... 십, 이십, 삼십...} 리(里), 도(度)
ㄷ. {일, 이, 삼, 사, 오... 십, 이십, 삼십...} 동(棟), 등(等), 번(番), 세(世), 위(位), 차(次), 호(號)
ㄹ. 20대(代)(이십 대), 3월(月)(삼 월), 2008년(年)(이천팔 년)

②한자어 수관형사-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

한자어 수관형사와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주장들이 많다. 물론 홍로(2014)에서 '일 쪽'을 들면서 이러한 구조의 성립을 인정했지만, 품사의 성질을 따질 때 '쪽'은 단위를 나타내는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의존명사로 표제되어 있지 않아 본고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이 외에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예는 단 화폐 단위인 '원'을 들 수 있다. '원'은 (9)와 같이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하여 '십 원', '만 원', '천 원' 등 표현을 이룬다. 한국 화폐 단위는 한자어 '圓'과 일본어 '圜'을 거쳐 1962년 이후로 고유어 양사 '원'으로 시행되었다. 이전 단위인 '圓'이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로서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하여 사용되다가 고유어 '원'으로 바꾸면서도 결합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을 제외한 모든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는 고유어 수관형사와만 결합해서 사용한다.

(9) {일, 이, 삼, 사, 오... 십, 이십, 삼십...백, 천, 만, 억..} 원

③한자어 수관형사-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는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지 못하며 한자어 수관형사와만 연결할 수 있다.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 중의 대부분이 도량적 단위들이다. (10ㄱ)은 길이, 무게, 부피 등 도량 단위성 의존명사가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예들이다. 또한, 미국 화폐 단위인 '달라', 백분율을 나타내는 '퍼센트'도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하고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10) ㄱ. {일, 이, 삼, ...십, 이십, 삼십...백, 천, 만, 억...} 미터, 밀리미터, 센티미터 ,킬로, 킬로미터, 그램, 킬로그램, 톤, 리터...
ㄴ. {일, 이, 삼, 사, 오... 십, 이십, 삼십...백, 천...} 달러, 퍼센트...

④고유어 수관형사-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

①에서 다루던 바와 같이 시간 관련된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는 대부분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한다. 그러나 '시간(時間), 시(時)'는 예외적으로 고유어 수관형사와만 결합한다. 여기서 '시간(時間)'은 하루의 24분의 1이 되는 기간을 세는 단위이며 '시(時)'는 그에 대응하는 시각을 이르는 말이다. '시간(時間)' 및 '시(時)'가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한다는 것은 이 두 단어가 고유어화되어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영근・구본관, 2018:81). (11ㄴ)은 도량 단위성 의존명사 중에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인 '평(坪)'이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예이다. 또한 사람과 관련된 '명(名)', 개체를 헤아릴 때 쓰이는 '개(個)', 동작이나 사건의 횟수를 나타내는 '번(番)'도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한다.

(11) ㄱ. {한, 두, 세, 네, 다섯... 열, 스무 , 서른, 마흔...} 시간(時間), 시(時)

ㄴ. {한, 두, 세, 네, 다섯... 열, 스무 , 서른, 마흔...} 평(坪)

(12) {한, 두, 세, 네, 다섯... 열, 스무 , 서른, 마흔...} 명(名), 개(個)

(13) {한, 두, 세, 네, 다섯... 열...스물...서른...마흔...} 번(番)

⑤고유어 수관형사-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

대부분의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에 고유어 수관형사가 결합한다. ①에서 다뤘던 '년(年), 개월(個月), 세(歲)' 등은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데에 비해 그에 대응하는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인 '해, 달, 살' 등은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해서 사용한다. (14ㄱ,ㄴ,ㅁ)은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가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하고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가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예이다. 이는 원래 고유어에 같은 의미의 단위성 의존명사가 사용되고 있는데도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를 차용했기 때문에 두 가지 표현이 공존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 단위성 의존명사들은 일정한 기간을 나타낼 때만 사용되며 '2020년', '5월', '3시' 처럼 서수적인 시점에 사용할 수 없다. 시간 단위성 의존명사 외에 사람이나 사물의 개체를 세는 '마리, 분, 벌, 그루, 채, 군데' 등도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④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번'(番)을 제외한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는 대부분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한다. 이에 해당하는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는 경기의 횟수를 세는 '판', 때리는 횟수를 세는 '대', 어떤 둘레를 도는 횟수를 세는 '바퀴' 가 있다.

(14) ㄱ. 년(年)-해: 일 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ㄴ. 개월(個月)-달: 사 개월/ 네 달 전부터 오늘의 만남을 기다렸

다.[20]

ㄷ. 세(歲)- 살: 삼십 세/ 서른 살이 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15) {한, 두, 세, 네, 다섯... 열, 열한, 열두, 열셋...스무, 서른, 마흔...} 마리, 분, 벌, 그루, 채, 군데, 모금...

(16) {한, 두, 세, 네, 다섯... 열, 열한, 열두, 열셋...스무, 서른...} 판, 대, 바퀴

⑥고유어 수관형사-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

고유어 수관형사와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가 결합하는 예문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에 관해서 김수진(2003:42)에서 '면도칼 한 세트'를 예로 들면서 '고유어 수사-외래어 단위명사'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단위명사'라는 개념에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의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면도칼 한 세트'에서의 '세트'가 도구의 한 벌을 세는 단위로 쓰이지만 품사를 따지면 자립명사에 속하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홍로(2014:18)에서도 고유어 수사(수관형사)와 결합하는 유일한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가 '다스'임을 제시한 바가 있다. '다스'는 물건 열두 개를 묶어 세는 단위를 뜻하여 어원을 돌리켜 보면 영어 'dozen'이 일본어화 되어(dâsu) 한국어에 유입

20) 백봉자(2003:4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에 따르면 다음 단위명사들이 고유어 수사와 결합할 때 그 수사 '세, 네'가 관형사형인 '서, 너' 혹은 '석, 넉'으로 바꾸어 쓴다는 규칙을 제기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세 달'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아 '석 달'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 서/너 {되, 말, 돈}
석/넉 {달, 되, 대, 주일, 잔, 장, 자}
하지만 표준어 규정-표준어 사정 원칙 제 4절 제 17항에 따르면 '서/너', '석/넉'과 아울러 써야 하는 단위명사로 각각 '돈, 말, 발, 푼', '냥, 되, 섬, 자'만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단위명사는 '네/네'를 사용해도 표준어로 인정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더 많이 접하는 '세/네'를 사용하고자 한다.

된 외래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유어 수관형사와 연결되어 '양말 한 다스', '볼펜 한 다스'와 같이 묶음의 수량을 표현할 수 있다.

(17) 양말 한 다스를 샀다.

이상 허용 가능한 6가지 유형에 각각 해당하는 단위성 의존명사 목록을 아래 <표 14>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14> 어원에 따른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결합 양상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
한자어 수관형사	년(年), 년대(年代), 년도(年度), 주년(周年), 개월(個月), 월(月), 주(週), 주일(週日), 일(日), 교시(校時), 분(分), 초(秒), 대(代), 세(歲), 도(度), 등(等), 위(位), 번(番), 권(卷), 개국(個국), 호(號), 리(里), 석(席), 세(世), 조(條), 평(坪), 회(回)	원	미터, 밀리미터, 센티미터 ,킬로, 킬로미터, 그램, 킬로그램, 톤, 리터, 달러, 퍼센트
고유어 수관형사	대(臺), 개(個), 장(張), 권(卷), 번(番), 시(时),시간(时间), 명(名), 편(篇), 부(部), 동(棟), 점(點), 건(件),	달, 해, 살, 가지, 마리, 벌, 채, 군데, 그루, 분, 모금, 바탕, 바퀴, 판, 번째,	-

	척(隻)	대	
*모두 허용	번(番), 권(卷), 부(部), 동(棟), 편(篇), 조(組),	-	-

위에서 어원에 따라 단위성 의존명사와 수관형사의 결합 양상을 분류하고 용례를 통해서 의미적 조건도 검토해 봤다. 일반적으로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는 고유어 수관형사와 호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는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경우에는 한자어 수관형사와만 결합한다. 그렇지만 실제 사용에서 많은 예외들이 있다.

<표 14>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단위성 의존명사 중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형태인 단위성 의존명사일지라도 그가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할 것인지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할 것인지가 좌우된다. (18ㄱ,ㄴ)에서의 '번(番)'은 일의 횟수를 세는 단위로 쓰일 때 '한 번, 두 번'과 같이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반면에 어떤 범주에 속한 사람이나 사물의 차례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일 때 '1번 버스', '11번 출구'와 같이 아라비아숫자로 쓰고 한자어로 읽는다. 또한 (19ㄱ)에서 '권(卷)'이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할 때 지시대상인 책의 수량이 하나인 것을 의미하며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할 때는 여러 책으로 구성된 전집에서의 첫 번째 책을 뜻한다. 즉, 대상의 양을 의미할 때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고 순서나 차례를 지시할 때에는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한다. 이 외에 '부(部), 동(棟), 편(篇)' 등도 의미에 따라 한자어 수관형사 혹은 고유어 수관형사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이처럼 어원뿐만 아니라 의미상의 차이도 단위성의존명사와 수관형사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다가 예외로 인해 오류를 나타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8) ㄱ. 그 영화를 두 번 봤다.

ㄴ. 지하철역에 가려면 2번(이 번) 버스를 타야 한다.

(19) ㄱ. 이 책 한 권을 다 읽었다.

ㄴ. 삼국지 일 권을 읽고, 이 권을 바로 펼쳤다.

단위성 의존명사가 어떠한 수관형사를 선택하는지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수의 크기이다. 고유어 수관형사 체계가 1-99까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고유어와만 결합하는 단위성 의존명사들이 수가 커질수록 한자어 수관형사와의 결합을 채택하게 된다. 또한, 백 이하의 범주에도 한자어 수관형사와 고유어 수관형사의 경계가 흐려져 두 가지 수관형사 체계가 다 허용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다. 윤희수(2018:39)에서 (20ㄱ,ㄴ)의 예시를 들면서 '15'를 분수령으로 삼아 수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한자어 수사(수관형사)를 대부분 허용하지 않다가 '15' 정도 이상의 수를 넘어가는 경우부터 수가 커질수록 한자어 수사(수관형사)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고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앞에 논했던 '번(番)', '회(回)' 등의 경우와 달리, 고유어 수관형사 체계를 사용하든, 한자어 수관형사 체계를 사용하든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20) ㄱ. 나는 보통 하루에 {한 ,두, ... , 열, 스무,,... } 시간을 일한다.

ㄴ. 나는 보통 하루에 {*일, *이,..., ?십오, 이십} 시간을 일한다.

한편 채완(1983:23)은 10을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10 이하의 수에서는 한자어 수사(수관형사)가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와 연결되면 부자연스러운 듯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나타내려는 수가 적을 때는 한자어 수관형사를 피하고 고유어 수관형사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10 이상의 수로 넘어가면 수가 커질수록 한자어 수관형사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또한,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가 고유어 수관형사와 연결되는 경우는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가 한자어 수관형사와 연결되는 것보다는

허용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10 미만의 수에서는 고유어 수관형사 쪽이 선호되고 있다.

윤희수(2018:38-39)에서 단위명사와 수사(수관형사)가 결합하는 유형을 아래 <표 15>와 같이 네 가지 부류로 나눈 바가 있다. 물론 이 연구에서 사용된 '단위명사'의 범주에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 자립명사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중에 단위성 의존명사에 관한 내용이 참고할 만하다.

<표 15> 한국어 단위명사와 수관형사의 결합 유형

A부류	100 미만의 수관형사와 결합할 때, 고유어 수관형사와만 결합하고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할 수 없다	달5, 분1, 배9, 사람, 숟가락, 짝, 해1, 끼1, 돌1, 덩어리, 마디, 방울, 모금1
B부류	100 미만의 수관형사와 결합할 때 전반적으로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나, 15~20 이상의 수량에서는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이 가능한 경우	가지4, 개(個)10, 그릇, 대(臺)16, 마리, 명(名), 번(番), 번째, 벌, 병, 분(分)8, 살4, 상자(箱子)9, 시간(時間)4, 접시, 줄, 잔(盞)3, 장(張)21, 칸, 켤레2, 컵, 곡(曲)2, 공기(空器)7, 바퀴, 봉지6, 판8, 알, 송이1, 쌍(雙)2, 발짝, 종(種)9, 채8, 통12, 포기1
C부류	100 미만의 수관형사와 결합할 때 한자어 수관형사와만 결합하고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할 수 없는 경우	개월(個月), 년(年), 도(度)5, 미터, 분(分)1, 원1, 월(月)2, 인분(人分), 일(日)7, 주일(週日)3, 세(歲)13, 센티미터, 시(時)10, 호(號)14, 그램, 초(秒), 킬로그램, 킬로미터, 년대(年代), 년도(年度), 달러, 리터1, 밀리미터, 박10, 센티,

		위(位)5, 자(字)14, 조각, 퍼센트, 개국(個國)1, 년생(年生), 실5, 무, 인(人), 승(乘), 조(條)13, 종(種), 주년(週年), 칼로리, 톤, 호(戶)4
D부류	100 미만의 수관형사와 결합할 때 한자어 수관형사와 고유어 수관형사가 모두 결합이 가능하나, 둘이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	권(卷), 년(年), 반(班), 주(週), 층(層)2, 학기(學期), 학년(學年), 회(回), 교시(校時)3, 세대(貰代)2, 주간5, 쪽2, 페이지, 조(組)15, 편9, 평(坪)

이 논문에서 A부류에 해당하는 단위성 의존명사들이 100 이하의 수와 결합할 때 고유어 수관형사와만 결합하고 한자어 수관형사와는 보통 결합할 수 없다. 이 부류에 들어가는 단위성 의존명사는 '달, 분, 해, 모금' 이 있는데 모두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이다. B부류는 전반적으로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지만 15~20 이상의 수량에서는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분류에는 일부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와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가 해당되지만 어원과 상관없이 수가 커질수록 두 가지 수관형사 체계를 다 허용하게 된다. C부류는 A부류와 반대되는 분류로 한자어 수관형사와만 결합하고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부류에는 대부분의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와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가 해당된다. 이것은 앞에 어원만을 조건으로 보았을 때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고유어 수관형사,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한자어 수관형사의 결합 원칙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D부류는 고유어 수관형사나 한자어 수관형사와 다 결합할 수 있지만 다른 체계를 선택할 때 의미도 달라지는 단위성 의존명사들이다.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단위성 의존명사와 수관형사는 어원에 따른 체계를 가지며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된다.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할 때

단지 어원을 기준으로 수관형사를 선택하면 안 되며 의미, 수의 크기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연결해야 한다. 모국어 화자들은 어감으로 구사하고 이러한 규칙들을 문제없이 적용하고 있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다양한 결합 형식은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 큰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

2.2. 수량사구의 유형

먼저 '수량사구'의 개념부터 정의해 보겠다. 관련 논저에서 이익섭(1973:46)은 '수량사구'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으며 '명사 뒤에서 그 명사의 수량을 표시해 주는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수량사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수사 자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이며 또 하나는 수사(수관형사)가 단위성 의존명사와 결합하여 명사구를 이루는 경우이다. 그 후에 채완(1983), 한송화(1999), 시정곤(2000), 윤희수(2018) 등 많은 연구에서 이 명칭을 사용해 왔다. 이 외에도 '양화 표현'(채옥자, 2014), '수량 표현'(채옥자, 2014), '수량표현구'(진봉매, 2010; 정우영 외, 2013), '수량명사구'(우형식, 1996; 박호관, 2003), '양화명사구'(박정준, 1996), '분류사구'(오상언, 2014; 홍로, 2014) 등의 용어가 정의되어 사용되었다. 물론 정의에 따라 대상 명사가 '수량사구'에 포함하기도 제외하기도 하며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도 범위 설정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이익섭(1973), 한송화(1999)의 '수량사구'에는 수사(수관형사)와 단위성 의존명사만 포함되지만 채완(1983), 시정곤(2000), 윤희수(2018)의 정의에 따르면 명사도 수량사구의 성분에 포함되어 있다.

본고는 '수량사구'를 수관형사, 단위성 의존명사, 수식 대상이 되는 명사 혹은 동사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결합하여 수를 나타내는 구라고 정의하겠다. 이러한 수량사구를 다시 단위성 의존명사가 있는 구성과 없는 구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의 수량사구 구성은 학자에 따

라 다양하게 유형화되어 왔는데 본 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뤘던 수량사구 유형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분석의 틀로 삼고자 하는 수량사구의 유형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수량사구 연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채완(1982)의 분류부터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는 통사적인 고찰을 통해 한국어 수량사구 유형의 변천을 밝혀냈다. ‘Q-N’[21] 형에서 시작하여 어순이 도치된 N-Q 형, 분류사가 삽입된 N-(Q-CL)형과 (Q-CL)-N형으로 변천해 왔으며 이 네 가지 유형이 사용되었다.

<표 16> 채완(1982:159)의 수량사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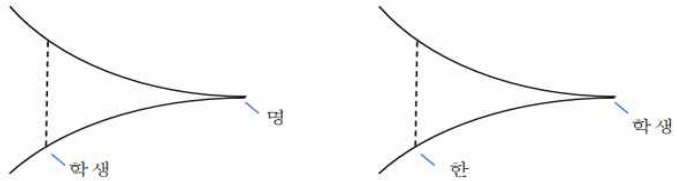
구조	예시
N-Q 명사-수사	사람 둘
N-(Q-CL) 명사-(수사-분류사)	사람 두 명
Q-N (수사-명사)	두 사람
(Q-CL)-N (수사-분류사)-명사	두 명(의) 사랑

유동준(1983:65)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분류하였으며 명사가 선행하는 유형을 사용하느냐 명사가 후행하는 유형을 사용하느냐를 결정하는 조건을 살펴보았다. 또한 ‘명사-수사(수관형사)-분류사/∅’ 구성과 ‘수사(수관형사)-분류사/∅-명사’ 구성을 짝을 지어 대비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구조의 쓰임새의 차이는 화자의 수량화 대상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즉, 화자가 명사를 비한정·불특정적으로 이해하면 ‘명사-수사(수관형사)-(분류사)’ 구조를 사용하며, 이와 대조적으로 화자가 명사를 한정적·특정적으로 수량화하고자 하면 ‘수사(수관형사)-(분류사)-명사’ 구조를 선택한다.

아래 <그림 2>는 두 가지 유형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 그림 지시 대상인 ‘학생’이 앞에 오는 경우, 명사가 배경으로 나타나 있으며 화자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자신의 담화공간에만 전제한다고 판

21) 여기서 N은 Noun(명사), Q는 Quantifier(수사) , CL는 Classifier(분류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단한다. 이는 곧 화자가 명사를 비한정·불특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명사 '학생'이 수관형사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때 화자는 '학생'에 관한 정보가 청자의 담화공간에도 등록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화자가 명사를 한정·특정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사-수사-(분류사)]구조
학생 한 명

[수사-(분류사)-명사]구조
학생 한 명

<그림 2> '명사-수사-(분류사)' 구조
와 '수사-(분류사)-명사' 구조의 의미 차이

그 후에 이어진 다양한 수량사구 연구에서도 이 네 가지 유형 체계를 따랐다. 이익섭(2005:80)의 『한국어문법』에서도 이 네 가지 구조로 정리하고 그중에 '명사-수사(수관형사)-단위명사' 유형이 가장 널리 쓰이며 제약을 가장 적게 받는다고 기술하고 있었다.

서정수(1996)에서는 수사(수관형사)와 단위성 의존명사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수량어'라고 칭하고 '수량어'가 체언을 한정하는 방식을 크게 '수량어-명사'와 '명사-수량어'의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두 유형은 각각 수량어의 표현 형식에 따라 세분되었는데 아래 세부 유형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서정수(1996)의 수량사구 유형

유형	구조	예문
제1유형 수량어-명사	수관형사+명사	한 책, 네 딸, 다섯 학교
	수사+의+명사	하나의 믿음, 대 여섯의 장정

	수관형사+수량 단위+의+명사	다섯 명의 학생
제2유형 명사-수량어	명사+수사	여자 다섯, 학생 둘
	명사+수관형사+수량단위	학생 두 명, 양말 열 켤레

이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수사-의-명사' 형식을 별개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이 유형에서는 명사의 선택이 제한적이다. 대개 형체가 없고 셀 수 없는 [+무형] [-가산]의 의미 자질을 가진 추상적인 명사여야만 실현이 가능하다. 위에서 제시된 '믿음', '장점' 말고도 '존재', '사례', '문화', '의미', '욕심' 등과 결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상명사들은 고정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수사만으로 수량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구조에서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존재'와 같이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수사가 그 수량의 의미를 넘어서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우형식(1996)과 곽추문(1996)에서 수사(수관형사)가 삽입되지 않는 '명사+분류사' 구조를 언급한 적이 있었다. 아래 (21ㄷ,ㄹ)과 같이 이 구조는 언제나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뒤에 오는 '~나 V'가 수사의 '정도 이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곽추문, 1996:10).

(21) 명사+분류사 구성의 예시

ㄱ. 돈 푼이나 벌었다.

ㄴ. 술 잔깨나 비운다.

ㄷ. *사과 개나 먹었다.

ㄹ. *종이 장이나 썼다.

최형용 외(2017)에서는 수량사구를 아래 <표 18>과 같이 6가지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그중에 '명사+분류사' 구성을 한 유형으로 간주하여 따로 분류했다. 이러한 구조는 통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 '깨나'의 후행 없이는 성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수량사구의 한 유형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표 18> 최형용 외(2017)의 수량사구 유형

	구조	예시
가	명사+수량사+분류사	학생 세 명
나	수량사+분류사(의)+명사	세 명의 학생
다	명사+수량사	사람 셋
라	수량사+명사	세 사람
마	수량사+분류사	십 분
바	명사+분류사	나이 살

한편 한송화(1999)에서는 수량화 대상 명사가 수량사구를 선행하느냐 후행하느냐에 따라 '전치 수량사구'와 '후치 수량사구'로 이분하였다.

<표 19> 한송화(1999:281)의 수량사구 유형

	구조	예시
전치 수량사구	명사+수사(수관형사)+(수량 단위 명사)	자동차 열 대
후치 수량사구	수사(수관형사)+(수량 단위 명사+관형격조사'의')+명사	열 대의 자동차

우형식(1998)도 이와 유사하게 위치에 따라 분류했지만 한송화(1999)와 반대로 분류사의 실현 위치에 따라 분류사가 명사 뒤에 오는 구성을 후행구성이라고 하며 분류사가 명사 앞에 오는 구성은 선행구성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대상 명사가 없는 경우는 단일구성이라고 칭하고 아래 <표 20>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20> 우형식(1998)의 수량사구 유형

	구조	예시
후행구성	명사+수사(수관형사)+분류사	갈매기 한 마리
선행구성	수사(수관형사)+분류사+명사	십여 명의 병
단일구성	수사(수관형사)+분류사	두 끼

김수진(2003:31)에서는 '명사-조사-수사(수관형사)-(자립적・비자립적) 단위명사' 구조를 제시하면서 따로 분류하여 논술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학생이 한 사람', '강아지가 한 마리'를 예로 설명할 수 있다. 박종언・박명관(2020)에서 '명사 후 수분류사구'와 '명사 후 유동 수분류사구'를 분류했는데 여기서 '명사 후 유동 수분류사구'라는 것은 명사와 수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사이에 조사가 삽입되는 구조를 의미하였다.

이 외에 최형용 외(2017:162)에서는 조사가 개입된 구조를 하나의 유형으로 보지 않았으나 '명사+수사(수관형사)+분류사' 구성에서 명사와 뒤에 오는 수량사구가 각각 격조사나 보조사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아래 예시 (22ㄱ)은 바로 선행하는 명사 '장미' 뒤에 주격조사 '가'를 추가한 경우이며 (22ㄴ)은 지시대상 '사과'와 후행하는 수량사구 '세 개' 뒤에 모두 목적 격조사 '를'을 취한 예시이다. 즉, 단위성 의존명사 뒤에만 조사가 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명사 뒤로 이동하거나 같은 격조사가 선행 명사 뒤와 단위성 의존명사 뒤에 반복해서 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22) ㄱ. 장미가 세 송이 피었다.
ㄴ. 사과를 세 개를 먹었다.

한편 홍용철(2019)에서는 이러한 분류에서 나아가 더 세밀하게 분류하

고 명칭을 부여하였다. 홍용철(2019:486)에 따르면 분류사 구문은 명사의 격표지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비유동 분류사구문' 과 '유동 분류사 구문' 의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비유동 분류사 구문은 다시 비수식 대상 명사가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 각각 명사 전 분류사 구문과 명사 후 분류사 구문으로 나뉜다. 격표지가 상반되는 유동 분류사 구문도 다시 무격 유동과 격표지 유동으로 세분할 수 있다.

<표 21> 분류사구문의 두 가지 유형

유형	세부 유형	예시
비유동 분류사구문	명사 전 분류사 구문	철수가 세 개의 사과를 먹었다.
	명사 후 분류사 구문	철수가 사과 세 개를 먹었다.
유동 분류사구분	무격 유동 분류사 구문	철수가 사과를 세 개 먹었다.
	격 표지 유동 분류사 구문	철수가 사과를 세 개를 먹었다.

이러한 구성에 조사 삽입의 가능 여부는 수식 받은 명사와 뒤에 오는 구성의 통사적 지위가 대등한가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익섭(1973)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이중주어문[22]과 동일한 구조로 파악하고 있는데 조사가 삽입하는 전제는 앞에 명사와 뒤 수량사구가 동격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아래 (23ㄱ,ㄴ)에서 반영하듯이 (24ㄱ,ㄴ)과 같이 앞에 명사와 뒤에 오는 성분이 대등하게 격 표지를 받을 수 있다.

(23) ㄱ. 택시 세 대가 달려왔다.
ㄴ. 택시가 세 대가 달려왔다.

22) '이중주어문' 이란 '형이 손이 크다', '토끼는 앞발이 길다' 와 같은 한 문장에서 하나의 서술어에 두 개의 주어가 대응되는 문장을 말한다.

(24) ㄱ. 형 눈이 더 크다.

ㄴ. 형이 눈이 더 크다. (이중주어문)

윤희수(2018)에서는 한국인의 수량사구 사용을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서 한국어 수량사구의 구성을 ‘단순구성’과 ‘복합구성’으로 나누어 총 9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묶음 수량사 구성’이 기술되었는데 이는 예문 ‘파랑, 빨강, 초록 세 가지 색깔’처럼 수량화하려는 대상을 직접 나열하면서 수량사와 연결하는 유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되, 나열명사구는 수량화 대상이 아니라 단지 ‘세 가지 색깔’이 ‘파랑, 빨강, 초록’이라는 것을 지시하고 있을 뿐이며 ‘세 가지’만을 수량사구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표 22> 윤희수(2018:11)의 수량사구 유형

	구조			예시
단순 구성	수사			아홉에서 여덟을 빼다.
	수사(수관형사)+단위명사			세 학생, 두 자루
복합 구성	묶음 수량사	중복 구성	나열명사구+수사(수관형사)+단위명사+명사	파랑, 빨강, 초록 세 가지 색깔
		단일 구성	나열명사구+수사(수관형사)+단위명사	충, 효, 신, 용, 인 등의 다섯 가지
			나열명사구+수사	영월과 원주 둘
	일반 수량사	후행 구성	명사+수사(수관형사)+단위명사	학생 세 명, 연필 두 자루
			명사+수사	학생 셋
		선행 구성	수사(수관형사)+단위명사+(의)+명사	세 명의 학생, 두 자루의 연필
			수사+의+명사	하나의 책, 둘의 군인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어 수량사구를 단위성 의존명사가 실현되는 구성과 실현되지 않는 구성으로 나누어 본다. 또한, 단위성 의존명사가 실현된 4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표 23> 한국어 수량사구의 유형

<table>
<tr><th colspan="3">구조</th><th>예시</th></tr>
<tr><td rowspan="7">한국어 수량사구</td><td rowspan="4">단위성 의존명사 미개입 구성</td><td colspan="2">①수사</td><td>일 더하기 이, 셋이 같이 간다.</td></tr>
<tr><td rowspan="2">수관형사+명사</td><td>②수관형사+자립명사</td><td>세 사람, 한 가족</td></tr>
<tr><td>③수사+의+자립명사</td><td>하나의 믿음</td></tr>
<tr><td colspan="2">④명사+수사(고유어)</td><td>아들 셋, 학생 둘</td></tr>
<tr><td rowspan="4">단위성 의존명사 개입된 구성</td><td colspan="2">①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td><td>삼 개월, 십 년;
두 명, 다섯 병</td></tr>
<tr><td colspan="2">②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td><td>남자 세 명, 옷 한 벌,</td></tr>
<tr><td colspan="2">③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관형격조사(의)+명사</td><td>세 명의 학생</td></tr>
<tr><td colspan="2">④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동사(구)</td><td>세 번 말하다</td></tr>
</table>

2.2.1. 단위성 의존명사 미개입 구성

①수사

먼저 수사가 단독적으로 쓰이는 수량표현부터 살펴본다. 아래 예문(2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수사만으로도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25) ㄱ. 일 더하기 이는 삼이다.
ㄴ. 셋이 같이 간다.
ㄷ. 하나만 주세요.

(25ㄱ)에서 '일, 이, 삼' 은 지시대상이 없으며 수의 의미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25ㄴ,ㄷ)에서의 '셋', '하나' 는 지시대상을 수량화하는 기능을 행하는데 여기서 지시대상이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혹은 여기서 수사가 대명사의 기능을 하면서 수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시에 지시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25ㄴ)과 같은 구조는 생략된 지시대상에 대한 인식이 문맥에서 이미 나타났거나 대화 상대방의 머릿속에 전제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25ㄷ)의 경우도 매우 제한적이며 원칙적으로 (26ㄴ)과 같이 수량화하려는 대상 명사가 나타나야 한다. 더불어 앞에 수사가 큰 경우에는 단위성 의존명사 없이 단독으로 쓰이지 못한다. (26ㄷ)의 경우 보통 열 이상의 수사일 때는 직접 쓰이지 못하고 뒤에 단위성 의존명사의 도움으로 실현될 수 있다.

(26) ㄱ. 하나 주세요.
ㄴ. 사과/빵/가방 하나 주세요.
ㄷ. *열/스물/ 서른 주세요.
ㄷ'. 열/스물/ 서른 개 주세요.

이 구조에 한자어 수사가 단독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고유어 수사보다 제한적이다. (25ㄱ)과 같은 수학의 경우에 한자어 수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25ㄴ,ㄷ)과 같이 지시대상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자어 수사만 사용된다.

②수관형사+자립명사

‘수관형사+명사’의 경우는 명사가 자립명사인 경우와 의존명사인 경우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단위사’, ‘분류사’ 등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두 경우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이익섭 외(2005:118)에 따르면 ‘수사(수관형사)+명사’의 유형은 중세 한국어에서 활발히 쓰이다가 지금은 수사(수관형사)가 고유어 수사(수관형사)에만 제한되고 명사도 한정된 범위에서만 쓰이는 위축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 즉, 아래 (27)과 같이 고유어 수관형사 ‘한, 두, 세, 네’와 자립명사 ‘사람, 나라, 회사’ 등과의 결합은 문제없으나 한자어 수사는 사용되지 못한다.

(27) ㄱ. 한/두/세/네 사람, 나라, 회사...
ㄴ. *일/이/삼/사 사람, 나라, 회사...

이 구성에 허용되는 자립명사 또한 제한적이다. 우선 명사가 수관형사의 수식을 직접 받으려면 [+가산]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 (28ㄴ)에서 ‘커피’는 셀 수 없는 물질명사이므로 수관형사와 직접 연결하면 비문이 된다. 또한 채완(1982:164)에서 이 구조에 사용되는 명사가 ‘[+사람]일 때를 제외하고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임홍빈(1979:193)에서는 [+사람] 이외에 ‘특정지시성’(特定指示性)과 관련된다고 지적하였다. 즉 (29ㄱ)에서 ‘두 학생’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비문이 되고 (29ㄴ)처럼 지시사 ‘그’를 통해서 ‘특정지시성’을 부여해야 성립이 충족된다는 주장이다. 지시사 ‘이, 그, 저’ 등은 명사의 지시 범위를 좁히고 한정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그럼 [+사람]의 성격을 가지지 못한 (30ㄱ)과 같은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는 화자와 청자가 같이 그 두 가방을 보고 있거나 어느 두 가방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을 때 ‘두 가방’이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

된다. 마찬가지로 (30ㄷ)도 '두 자동차'를 명시적으로 특정 대상으로 한정하거나 청자와 화자가 같은 대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요컨대 자립명사의 경우 '특정지시성'을 가질 때 즉 지시대상이 화자와 청자에게 이미 인식된 대상일 때 이 '수관형사+자립명사' 구조가 성립될 수 있다.

(28) ㄱ. 두 사람이 똑같이 생겼다.
ㄴ. *두 커피를 마셨다.
(29) ㄱ. * 그는 두 학생을 모른다.
ㄴ. 그는 그 두 학생을 모른다.
(30) ㄱ. 두 가방이 비슷하다.
ㄴ. (전시되고 있는 그)두 가방이 비슷하다.
ㄷ. 두 자동차가 긁혔다.
ㄹ. (집 앞에 세워 둔)두 자동차가 긁혔다.

③수사+의+자립명사

이 구조에서는 수사가 직접 관형격조사 '의'와 결합하여 명사를 수식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구성에 쓰이는 자립명사가 [+무형], [-가산]의 의미자질을 가진 추상명사여야 하며 항상 '하나'와 통합한다. 또한 여기서 사용되는 수사는 그 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31ㄱ)에서는 '어떤'이나 '같은'의 뜻을 내포하며, (31ㄴ)에서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31) ㄱ. 하나의 믿음, 하나의 추억
ㄴ. 하나의 이유, 하나의 사랑

④명사+수사(고유어)

구성 요소만 보았을 때 구조④는 구조②의 도치 형태이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의 선택이다. 이 구조에서는 고유어 수사와만 결합하여 한자어 수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또한, 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색해지며 '명사+수사' 뒤에 조사를 직접 추가하는 것보다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32)와 같이 '학생 하나', 혹은 '학생 둘'과 같은 표현에는 어색함을 느껴지지 않으나 수의 가치가 커지면 다소 어색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때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 '명'이 삽입된 구조를 사용해야 한다.

(32) ㄱ. 학생 셋이 들어왔다.
ㄴ. *학생 열두가 들어왔다.
ㄷ. 학생 열두 명이 들어왔다.

명사의 사용에도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임홍빈(1978:190)에서 하나씩 셀 수 있는 명사라면 모두 '명사+수사' 구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으나 채완(1982:160)에 따르면 셀 수 있는 명사일지라도 [+유정]일 때 [+사람]만이 이 유형을 자연스럽게 허용한다. 예컨대 아래 (33ㄱ,ㄴ,ㄷ)에서 명사가 모두 [+가산]의 성질을 띠고 있지만 (33ㄱ)과 같이 [+유정] [+사람]의 자질을 동시에 가져야 '명사+수사' 구성을 이룰 수 있다.

(33) ㄱ. [+유정] [+사람]{군인/ 남자/ 여자/ 학생...} 셋
ㄴ. [+유정] [-사람] *{고양이/ 강아지/ 코끼리...} 하나
ㄷ. [-유정] *집 둘을 샀다.

[+가산]의 조건에는 일정한 형태가 있고 셀 수 있는 명사가 해당된다. 이뿐만 아니라, '소주', '커피' 등이 일정한 용기에 담길 때 그 용기의 개수를 세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상품으로서의 명사들은

이 구조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34ㄱ)과 같이 소주, 커피, 맥주 등은 실제적인 액체의 양보다는 용기 수를 세기 때문에 수사와 직접 결합하여 수량화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구조에 사용되는 수사도 매우 제한적이다. 보통 '하나' 만 쓰이고 일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 단위성 의존명사 '개' 를 첨가하여 '두 개', '세 개' 로 표현하거나 그에 대응하는 용기 '병/잔/그릇' 등으로 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34) ㄱ. {소주/커피/맥주/냉면} 하나 주세요.
ㄴ. *{소주/커피/맥주/냉면} 둘/셋/넷 주세요.
ㄷ. {소주/커피/맥주/냉면} 한/두/세...+ {개/병/잔/그릇} 주세요.

④와 ②의 구별 중의 하나는 명사가 선행하는 구조 '명사+수사' 가 나열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반면에 명사가 후행하는 '수관형사+자립명사' 의 경우는 나열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다(진봉매, 2010:81). 가령, (35ㄱ,ㄷ)은 각 명사의 수량을 나열하는 것으로 쓰이는 표현인 반면에 (35ㄴ,ㄹ)은 비문이다.

(35) ㄱ. 남자 둘, 여자 셋, 총 다섯이다.
ㄴ. *두 남자, 세 여자, 총 다섯이다.
ㄷ. 만년필 둘, 볼펜 셋, 연필 열, 모두 열다섯을 사왔다.
ㄹ. *두 만년필, 세 볼펜, 열 연필, 모두 열다섯을 사왔다.

2.2.2. 단위성 의존명사 개입 구성

①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이 유형에서 가장 전형적인 것은 수사가 (36)과 같은 시간, 거리, 무게, 등에 관한 도량형 단위성 의존명사들과의 결합이다. 이러한 단위성 의존

명사 자체가 그가 속한 부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사가 드러나지 않아도 지시대상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36) ㄱ. 시간: 년, 살, 월, 달, 개월, 주일, 주, 일, 시간, 분, 초...
ㄴ. 거리: 킬로미터, 미터...
ㄷ. 무게: 킬로그램, 그램, 톤...
ㄹ: 기타: 원, 번, 호, 쪽, 평...

이 외에 명사가 앞에서 이미 언급되거나 대화 상대방의 머릿속에 특정한 대상이 존재할 때도 사용된다. 채완(1983:27)에서 명사가 청자와 화자에게 같은 지시대상으로 전제되었을 때 생략될 수 있다고 한 바가 있다. 한송화(1999:282)에서는 (37)과 같은 예시를 들면서 '수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성은 화용론적으로 '묶기 관계에 있는 복원 가능한 명사구'가 생략된 것이라고 다루고 있다.

(37) 어제 화재 사고로 [사람이/Ø]두 명이 사망했다.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성의 하위 부류로는 '나열 명사구'의 사용이며, 이는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

(38) ㄱ.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ㄴ. 목살, 항정살, 삼겹살 세 가지

이러한 구성에서 '두', '세'는 앞에 명사를 수량화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지시하고 한정시키는 기능도 함께 담당한다. 따라서 '수관형사+ 단위성 의존명사'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구성들은 앞에 나열 명사구가 선행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게 된다.

②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이 유형은 한국어 모국어 화자가 많이 사용하는 유형이며 한국어 교재에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구조이다. 채완(1982)에서 한국어 수량사구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기원을 '수사(수관형사)-명사' 구성이라고 하며 현대 국어에서는 '명사-수사(수관형사)-분류사' 결합 형식이 가장 선호된다고 논의하였다. 대부분의 단위성 의존명사 및 수관형사가 이 유형을 제한 없이 이룰 수 있다.

(39) ㄱ. 고양이 한 마리
ㄴ. 사람 한 명
ㄷ. 종이 한 장

또한, 앞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구조가 문장에서 실현될 때 명사와 수관형사 사이에 조사가 첨가될 수 있다. 예문 (40ㄴ)에서 대상 명사 '고양이' 가 격조사 '를' 을 취해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40) ㄱ.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다.
ㄴ. 나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다.

③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관형격조사(의)+명사

이 구성에서 관형격조사 '의' 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강조되었다. 김광해(1981)에서 '의' 를 통사적과 의미적으로 자세히 다루면서 '의' 가 때로는 Ø제로화될 수 있고 때로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의' 가 Ø제로화되는 환경은 '소유-비소유주의 관계', '전체-부분의 관계', '친족 관계' 로 분류해 보았다. 또한, '의' 가 필수적으로 출현하는 경우로 단위성 의존명사와 결합할 때

를 지적하였다. 채완(1982:166)에서는 Q-CL-N (수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명사) 형에서 'Q-CL' 와 N 사이에 사이시옷이 삽입된 예시들이 많았으며 현대 국어에서 사이시옷이 '의' 로 바꾸고 '의' 가 없으면 비문이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의 구조에서 '의' 가 필수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실제 사용에서 이러한 구조는 뉴스, 문학 작품 등 문어에서만 많이 쓰이고 구어에서는 명사가 전치 구조인 '명사+수사+단위성 의존명사' 의 구조가 보다 선호되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명사가 후행하는 구조가 명사가 선행하는 구조보다 더 문어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은 학자들에게 인정받았지만 두 구조 간의 의미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상이한 관점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두 구조는 성분들이 나열되는 순서만 다를 뿐 의미상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의미 상이론의 입장에 동의하며 우형식 외(2005:137)의 예문을 통해서 그 연유를 자세히 설명하겠다.

(41) ㄱ. 사과 한 상자 (선행)
ㄴ. 한 상자의 사과 (후행)

(41ㄱ)에서 명사가 선행하는 구조에서 사과는 종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데에 비해, (41ㄴ)에서는 '사과' 라는 종적 속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다수의 사과를 지시한다. 즉 선행 구성에서 명사는 큰 범위로 그것이 가리키는 구성원 전체를 의미하며, 반대로 후행 구성은 일정한 단위로 한정된 대상만을 가리킨다.

또한 선행 구성이 지시대상의 수량(한 상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후행 구성은 개체화된 지시물(사과)을 확증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표 24> 명사 선행구성와 명사 후행구성의 대조

구성	예시	함의	초점
명사+수사+단위성 의존명사	사과 한 상자	동질성 × 종적○	개체의 수량
수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한 상자의 사과	동질성○ 종적○	개체화된 지시물 그 자체

윤희수(2018)에서 또한 아래 예시를 들면서 두 구조의 의미적 차이를 입증하였다. 예문 (42ㄱ)과 같은 수량을 물은 질문에는 (42ㄴ,ㄷ)처럼 명사가 후행인 구조로 답할 수가 없다. 의미적으로 명사가 후행하는 구조가 수량에 초점을 두지 않고 명사를 수식한다는 부가적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셈을 위해서 쓸 수 없다.

(42) ㄱ. 사과를 몇 개 샀어요?
ㄴ. -?두 개의 사과를 샀어요.
ㄷ. -?두 개 사과 샀어요.
ㄹ. -사과 두 개를 샀어요.

유동준(1983:70)에서는 화용론적으로 이 두 구조의 차이를 규명하였는데 이는 화자와 청자가 대상 명사에 대한 정보가 전제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대상 명사 혹은 명사에 관련된 정보가 화자의 담화공간에만 등록되고 청자와 담화 맥락을 공유하고 있지 않을 때 '명사+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조를 택하고 반대로 청자의 담화공간에 등록되어 있으면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관형격조사(의)+명사' 구조를 사용한다.

이상의 관점들을 종합해서 볼 때 명사 선행구조와 후행구조 간에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관형격조사(의)+명사'의 구조는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조

에 비해 문어적 성질이 더 강하며 구어에서 쓰이면 다소 어색할 수 있다. 지시대상의 수량을 강조하고 싶거나 지시대상이 전제되어 있지 않을 때 명사가 선행하는 구조가 선호되며 지시대상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화자와 청자 머릿속에 모두 전제되어 있을 때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관형격조사(의)+명사' 구조를 사용한다.

④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동사(구)

앞에 논의했던 모든 연구들은 사물의 수효를 나타내는 수량표현에만 집중하고 사건이나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수량표현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의 경우를 따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가 다른 단위성 의존명사와 똑같이 뒤에 오는 명사를 한정하는 관형어 기능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의 구조로 뒤에 오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 기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단위성 의존명사가 지시대상을 직접 세는 것과 다르게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는 그 동사는 세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나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대상으로 헤아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띤다.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보자면 예문(43ㄱ,ㄴ)과 같이 단위성 의존명사 '번(番)'이 수관형사 '두'와 결합하여 단독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의 구조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용법은 다른 단위성 의존명사와 차이는 없으나 (43ㄷ,ㄹ)에서 다른 단위성과 구별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43ㄷ)에서 '세 번' 뒤에 명사 커피가 오지만 커피를 수량화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다'라는 동작의 발생 횟수를 양화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43ㄹ)에서 '다섯 번'은 '영화를 보다'라는 동작의 횟수를 의미한다.

(43) ㄱ. 두 번 정도는 괜찮다.

ㄴ. 한 번의 여행/심사/사고/실수/시련/기회
ㄷ. 하루에 세 번 커피를 마신다.
ㄹ. 그 영화를 다섯 번 봤다.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의 특이점은 다른 단위성 의존명사 범주와 다르게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44ㄱ-ㄹ)에서 보듯이 사물을 세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명사와 수사만으로 수량표현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동작의 횟수를 헤아릴 때 단위성 의존명사가 필수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44ㅁ)에서 단위성 의존명사 '번(番)'을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는 말이다. 이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사물을 수량화할 때 부연적으로 부류화 기능을 하면서 지시대상을 대체할 수 있는 반면에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44) ㄱ. 사과 한 개
ㄴ. 사과 하나 (Ø개)
ㄷ. 한 명의 학생
ㄹ. 한 (Ø명) 학생
ㅁ. 한 번 봤다.
ㅂ. *한(Ø번) 봤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를 고려하여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를 단독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표 25> 각 단위성 의존명사 유형에 허용된 수량사구 유형

단위성 의존명사 유형			예시	허용된 수량사구 유형			
				①	②	③	④
도량 단위성	시간	시점	2020년, 2시,	○	×	×	×

의존명사	기간	3년, 24시간/ 3년의 시간	○	×	○	×
	길이	10미터, 5킬로의 거리, 해발 이천 미터	○	○	○	×
	넓이	10평, 논 백오십 평	○	○	×	×
	무게	100그램, 사과 오 킬로그램	○	○	×	×
	부피	1리터, 생수 2리터	○	○	×	×
	온도	10도, 체온 35도	○	○		×
	기타	5달러, 10퍼센트, 잔돈 천 원	○	○	×	×
수량 단위성 의존명사	사물	한 군데, 학생 두 명, 두 가지의 선택	○	○	○	×
	순서 차례	1등, 첫 번째 질문,	○	×	○	×
동작 단위성 의존명사		한 번, 한 번의 여행, 두 번 보다	○	×	○	○

우리는 2장에서 정리했던 단위성 의존명사의 유형과 그에 허용하는 수량사구 유형을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한다. 아래 표를 통해서 5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도량 단위성 의존명사 중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들은 주로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 형식이고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형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들은 부류화 기능이 강하여 지시대상이 시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시간 2시', '시간 5초'와 같은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둘째, 도량 단위성 의존명사는 보통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도량 단위성 의존명사를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명사' 구조로 쓸 수 없다. 무게, 부피, 화폐 등 단위성 의존명사는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조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

하려면 보통 그 뒤에 '짜리'를 추가하여 '1리터짜리 우유', '만 원짜리 지폐' 등 형식으로 표현한다.

셋째, 보통 사물이나 사람의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들은 세 유형을 모두 허용한다.

넷째, 순서와 차례와 관련된 단위성 의존명사들은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로 자주 쓰이며 '의'가 생략된 '수관형사+단위성의존명사+명사'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섯째,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는 '동사+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의 지시대상이 선행하는 구조를 사용할 수 없다.

3. 오류 분석 이론

3.1. 오류의 정의

이 절에는 오류의 정의부터 오류에 대한 관점, 오류의 유형,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오류 분석의 절차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다룰 것이다.

학습자들의 언어학습에서 오류가 항상 동반되어 있으며 학습자가 이러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 과정을 추진시키고 습득하게 된다. 오류는 '언어 체계에서 일탈된 것', '언어 규범을 위반한 것', '원어민에 의해 이해 불가한 것', '불완전한 언어 사용'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오류'란 무엇인가에 하는 질문에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더(Corder, 1967), 엘리스(Ellis, 1997), 브라운(Brown, 2006) 등의 정의가 많이 인용되고 있다. 우선 코더(Corder, 1967:165)는 오류를 '잘못된 표현(incorrect utterance)'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학습자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엘리스(Ellis, 1997:17)에 따르면 오류란 학습자가 무엇이 정확한지

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언어 지식의 결함 (gaps)' 이라고 한다. 한편 브라운(Brown, 2006)에서는 오류를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체계를 형성할 때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어떤 규범에서 벗어나거나 들어맞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처음에 입수할 때는 팔과 다리를 무작정 휘날리다가 점점 어떠한 패턴을 발견함에 따라 성공적으로 물에 뜨게 되며 물에서 멀리 갈 수 있게 된다. 학습자가 언어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브라운(Brown, 2006:226)은 이러한 비유를 하면서 학습자가 언어를 습득할 때도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또 새로운 시도를 도전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고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카린 클레핀(Karin Kleppin, 1998:30-34)은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통합하여 오류를 판단하는 기준을 아래 (45)와 같이 '정확성, 이해 가능성, 상황에 적절성, 수업에 종속성, 융통성과 학습자 관련성' 등의 5가지로 총괄하였다.

(45) 오류의 판단 기준

기준 1: 정확성-언어 체계를 위반하여 언어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표현은 오류다.

기준 2: 이해할 수 있는가의 여부-대화 대상자나 모국어 화자가 이해 못한 것은 오류다.

기준 3: 상황에 적절한가의 여부-어떤 상황에서 모국어 화자와 다르게 말하는 것은 오류다.

기준 4: 수업에 종속된 기준들-지시규범을 위배되거나 교사가 오류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다.

기준 5: 융통성과 학습자 관련성-오류를 고쳐줘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오류의 개념과 분석 방법은 오류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

다. 1960년대 초반 행동주의와 구조주의 언어학에 기초를 둔 대조분석 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CAH)은 학습자가 제2 언어 습득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 요인을 제1 언어의 간섭이라고 간주하였다. 대조분석 가설을 제기한 라도(Lado, 1957)는 두 언어를 대조함으로써 두 언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학습자가 어려워할 내용을 예측하자고 하였다. 이러한 대조는 어떤 연습이 필요한지 또 어떤 교수 내용 및 교수 방법이 요구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에 도울 수 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교수 내용을 재구성하며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시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가설에 의하면 두 언어가 유사하면 긍정적인 전이가 일어나 습득을 촉진할 수 있는 반면에 두 언어가 다르면 부정적 전이가 일어나고 학습자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된다. 즉, 목표 언어와 학습자 모국어 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학습자가 겪게 될 어려움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조분석 가설은 예측한 내용이 실제로 학습자가 생산한 내용에서 증명되지 않거나 서로 다른 모국어를 가진 학습들도 같은 실수를 한다는 지적을 받기 시작하였다. 두 언어의 차이만으로 학습자의 모든 오류의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점점 드러나면서 연구자들과 현장 교사들이 목표 언어나 모국어보다는 학습자들이 만드는 언어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응용언어학의 한 분약인 오류 분석 가설(Error Analysis Hypothesis, EAH)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오류 분석과 대조분석의 구별은 대조분석이 모국어의 부정적 전의로 인한 오류만 집중하는 데에 비해 오류 분석이 모든 가능한 원인에서 기인한 오류를 고찰하는 것이다(브라운Brown, 2006:227). 오류 분석은 학습자가 범하게 될 오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이미 생산한 오류를 수집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오류의 빈도, 발생한 원인 등을 알아내는 분석 방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조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오류 분석 가설이 대조분석 가설과 비교하면 오류를 바라보는 입장도 다르다. 대조분석 가설은 오류를 부정적이라고

보고 없애야 할 것이라고 보지만 오류 분석 가설은 오류를 학습자들이 제2언어를 습득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한다.

오류 분석은 대조분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코더(Corder, 1981:26)에서 학습자의 오류가 교수자, 연구자 그리고 학습자 이 3가지 다른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교수자에게 오류는 학습자가 목표에 얼마나 나아갔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알려준다. 둘째, 연구자가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면 목표 언어가 어떻게 학습 또는 습득되는지, 그리고 학습자가 언어 습득에서 어떠한 전략과 과정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자신에게는 오류가 학습하고 있는 언어의 본질에 대한 스스로의 가설을 검정하는 한 방식이다. 즉 학습자가 습득 과정 중의 하나의 전략으로서 오류를 생산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의 오류는 습득을 반영하고 학습자 언어가 가지는 특색이며 학습자의 오류를 아는 것은 교수학습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3.2. 오류의 유형

오류의 유형은 의사소통 효과(버트Burt, 1975), 오류의 원인(코더 Corder, 1975), 오류 결과의 판정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우선 버트(Burt, 1975:56-58)는 오류의 의사소통 방해 정도에 따라 '전체적 오류(Global error)' 와 '부분적 오류(Local error)' 로 이분하였다. 여기서 '전체적 오류' 는 어순이나 연결어 측면에서 일어나 문장 전체 구조에 영향을 주는 오류를 말하고 '부분적 오류' 는 문장의 부분 요소에만 나타나 의사 전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류를 의미한다.

듀레이, 버트, 크래션(Dulay, Burt, Krashen, 1982:1154-156)는 언어학적 범주(linguistic category)와 표면 전략적 범주 (surface strategy) 로 오류를 분류하고 있다. 우선 언어학적 범주의 분류는 오류가 발생하는

층위에 따라 음운, 철자, 문법, 어휘, 그리고 담화상의 오류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표면전략적 부류는 목표어와 비교할 때 학습자의 표현에서 중심요소가 어떻게 다른가에 중심을 두고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류는 아래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첫 번째, 생략(omission) 오류는 나타나야 하는 성분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며 초기 단계에서 기능어의 생략으로 많이 나타난다. 두 번째, 첨가(additions)오류라는 것은 나타나서는 안 되는 성분이 나타나는 것으로 '특정 규칙을 너무 충실히 사용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잘못된 변형(misformations)오류는 부정확한 형태나 구조를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잘못된 어순(misorderings)은 목표어 화자가 말하는 방식과 다르게 형태소가 부적절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에서 소개한 오류의 분류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다른 분류기준에 따른 오류 유형

분류 근거	오류의 유형
의사소통 방해 정도에 따른 오류	전체적 오류
	부분적 오류
층위에 따른 오류	음운적 오류
	형태적 오류
	문법적 오류
	어휘적 오류
	담화적 오류
양상에 따른 오류	대치 오류
	누락 오류
	첨가 오류
	오형태 오류
	어순 오류

3.3. 오류의 원인

오류 분석의 목적 중의 하나는 오류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오류의 원인을 알아내면 학습자의 오류를 교정해 주며,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모국어로 인한 언어 간 전이는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지만, 그 외에는 연구자마다 오류의 원인을 상이하게 보고 있다.

리처즈(Richards, 1970:3)에서 오류를 발생 원인에 따라 '언어 간 오류(interlanguage errors)', '언어 내적 오류(intralingual errors)', 그리고 '발달 오류(development errors)'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언어 간 오류는 학습자의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이며, 언어 내적 오류는 목표어 규칙의 과잉 적용 및 규칙의 불완전 적용 등 규칙 습득 과정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 주는 오류이다. 마지막으로 발달 오류는 교실이나 교과서와 같은 제한된 경험을 통해 학습자 나름대로 목표어에 대한 가설을 세워 적용하는 중에 나타나는 오류를 일컫는다. 코더(Corder, 1975:207-208)에서는 리처즈(Richards, 1970)에서 다루었던 언어내 오류와 언어 내적 전이 외에 '학습 환경 요소'를 고려하였다. 교수 방식이나 교수 자료의 문제로 인한 학습자의 오류는 이에 해당한다.

브라운(Brown, 2006:232-234)에서 학습자 오류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학습자가 언어를 배울 때 모국어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발생하는 언어 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이다. 둘째, 목표 언어의 규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된 적용으로 일어나는 언어 내 전이(intralingual transfer)이다. 언어 간 전이가 학습자들의 초기에 특히 많이 일어나며 학습자가 목표 언어 체계에 대해 습득해 나가면서 목표어 내에 전이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셋째는 학습맥락(context of learning)인데 이는 학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학습 환경 및 그 장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교재나 교사의 발화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학생의 오류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 요인은 학습자가 목표어로 의미전달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communication strategies)이다. 학습자들이 의사소

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 사용으로부터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셀링커(Selinker, 1972:215)는 학습자의 오류를 언어학적·심리학적인 면에서 고찰하여 총 다섯 가지의 원인을 제기하고 있었다. 첫째, 학습자의 모국어로 인해 언어 간의 전이(Language transfer)가 오류를 유발한다. 둘째,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사용하고 연습하는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전이(transfer of training)가 있다. 셋째, 학습자가 언어 규칙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학습 전략(strateges of second-language learning)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목표어 화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학습자가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Strategies of second-language communication)도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목표 언어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규칙의 과잉사용(overgeneralization of TL Rules)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카린 클레핀(Karin Kleppin, 1998:45-64)은 총괄적으로 오류의 원인을 정리하였는데 그 원인은 모국어 혹은 외국어의 영향, 외국어 자체 내의 어떤 요소의 영향, 의사소통 전략의 영향, 학습 전략의 영향, 외국어 수업의 어떤 요소 영향 이 외에도 개인적인 요소의 영향과 사회문화적인 요소의 영향 등이 있다. 우선 모국어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배운 다른 외국어 지식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에 간섭 효과를 일으킨다. 다음 목표어 자체로 인한 오류는 과잉 일반화, 규칙화와 단순화가 있는데 '규칙화'는 '비규칙적인 현상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이에 반해 '단순화'는 복잡한 구조의 사용을 피하는 현상이다. 학습자들은 의사소통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제스처나 표정으로 이해를 시키거나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전략들은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한편 사용 과정에서 오류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학습 전략은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학습자가 수정을 받을 수 있게 의식적으로 많이 발화하는 학습 전략이 많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학습자가 연습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내재화하는 것인데 어떤 구조들은 다른 구조보다 더 집중적으로 연습됨으로써 과도하게 부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연습 전이' 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반복적으로 교재나 교사를 통해서 특정 구조를 접할수록 오류가 빈번해질 수 있다. 이상에서 다룬 요인들은 객관적 요인들이며 학습자의 개인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가 피곤하거나 동기를 잃을 때에 틀린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러한 개인적 요인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는 언어를 습득할 때 교실 맥락 외에 사회 문화적 요소에도 영향을 받는다. 학습자의 자국 문화에 허용된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위를 목표문화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그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적 간섭에 대응된 문화적 간섭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위에서 다루는 오류의 원인 및 표현 형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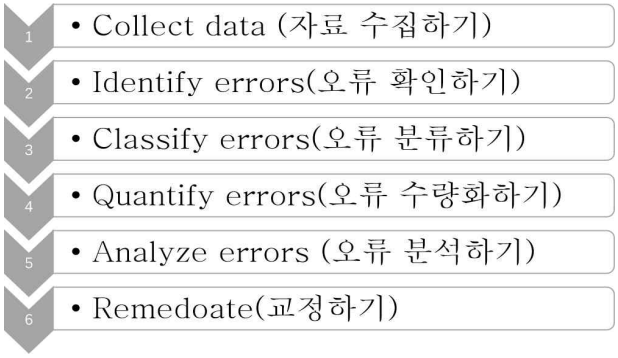
〈표 27〉 오류의 원인 및 표현

원인	표현
모국어의 영향	언어 간 전이, 간섭
목표어의 영향	과잉 일반화
	규칙화
	단순화
학습 환경의 영향	학습 자료의 잘못된 내용
의사소통 전략의 영향	환언하기, 모국어로 표현하기, 새로운 단어를 합성하기, 회피전략
학습 전략의 영향	수정 받으려고 많이 말하는 전략
외국어 수업의 어떤 요소 영향	연습 전이
개인적인 요소의 영향	피곤, 흥미/동기 상실
사회 문화적인 요소의 영향	문화적 간섭

3.4. 오류 분석의 절차

다음은 오류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류 분석은 일반적으로 오류의 수집부터 시작하여 오류의 확인, 분류, 기술, 오류 설명, 오류 평가 등 절차를 통해서 진행된다.

엘리스(Ellis, 1997:15-19)는 오류 분석이 '오류의 식별', '오류의 기술', '오류의 설명' 및 '오류의 평가' 등 네 단계로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코더(Corder, 1981)도 비슷하게 '분석 자료 선정', '오류 식별', '오류 분류', '오류 설명', '오류 평가'의 다섯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가스(Gass, 2013:92) 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오류 분석의 절차를 아래 <그림 3>과 같이 여섯 단계로 기술하였다. 자료 수집단계에서 구어 자료나 문어 자료가 다 오류 분석의 자료가 되어 수집될 수 있다. 그다음 오류 확인 단계는 오류가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며 판단을 한 뒤 같은 종류인 오류들이 분류하게 된다. 또한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각 분류에 속하는 오류가 얼마인지를 수량화해야 한다. 오류 분석의 목적은 오류를 설명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빈도, 위치, 원인 등을 분석해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얻은 결과는 교육을 개선하는 증거가 되어 학습자의 학습을 추진한다.



<그림 3> 가스(Gass, 2013)의 오류 분석 절차

학습자들이 생산한 언어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직면해야 하는 첫 번째 난점은 오류를 식별하는 것이다. 코더(Corder, 1981:276)에서 '표면적 오류'와 '잠재적 오류'의 두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표면적 오류'는 표면적으로 보아도 문법적으로 잘못된 오류이고 '잠재적 오류'는 겉으로는 문법 규칙을 위반하지 않지만 문맥상 적합하지 않아서 정상적인 의미 해석을 할 수 없는 오류를 말한다. 따라서 수집한 자료에서 오류를 선택할 때 문법적이고 문맥적 판단 과정이 필요하다. 표면적으로 문법적 오류가 없고 문맥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면 오류가 없는 문장이며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실제 판단에서 '표면적 오류'를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잠재적 오류'를 추출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오류 분석을 진행할 때 그 오류를 생산한 학습자가 현장에 없으므로 그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학습자의 본의를 추론하여 재구성할 수 없기에 이러한 오류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보편적으로는 문법성(Grammaticality)과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을 오류 확인의 기준으로 삼는다. 문법성은 라이온스(Lyons, 1977)에 의해 제기한 용어로서 의미나 형태적으로 완성된 형식을 갖추었을 때 문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또한, 수용 가능성은 언어적 요인 외에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 문맥 내에서도 자연스러운 경우를 가리킨다. 수용 불가능성과 비교하여 볼 때, 비문법성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교정가능성(Corrigibility)인데, 라이온스(Lyons, 1977)의 정의에 따르면 비문법적인 발화는 목표어 화자가 용인 불가하다고 인식을 하면서도 교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교정 가능성'이라고 부른다.

오류와 실수의 구별이 또한 어려운 문제다. 코더(Corder, 1967:166-167)에서 오류(error)와 실수(mistake)의 구별을 신중하게 다뤘다. '오류'는 학습자가 알고 있는 체계와 다른 목표어 체계를 재구조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체계적인 오용이다. 반면에 '실수'는 언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체계적이고 우연적인 잘못을 말한다. 환언하면 오

류는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서 기인한 것(error of competence)이고 실수는 학습자의 언어 수행(error of performance)과 연관된다. 실수는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학습자가 스스로 인정해서 고칠 수 있는 반면 오류는 학습자에 의해 인식되지 못하며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오류와 실수가 항상 선을 그어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오류와 실수를 분리해 내는 작업은 오류 분석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류와 실수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류를 식별해내기 위해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 및 기준이 삽입될 수밖에 없다. 오류의 발생 횟수를 고려해서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 일어나면 그것을 체계적인 오류로 보는 주장도 있으며 원어민의 판단을 기준으로 언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오류로 인정하는 방법도 있다.

다음으로 오류 분석을 위해서는 오류의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앞에서 오류를 원인별, 현상별, 층위별 등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학습자가 언어를 습득해 가면서 가장 많이 나타내는 오류 유형은 어휘 오류이다. 한국어 어휘 오류에 있어 왕혜숙(1995), 고석주 외(2004) 등이 분류하였다. 우선 왕혜숙(1995:389)에서는 어휘 오류를 의미의 유사성에서 오는 혼돈으로 인한 오류, 형태적 유사성에서 오는 혼돈으로 인한 오류, 어휘 교체, 낱말의 배치 또는 관용어상의 오류, 조어, 축약 또는 반복, 확대 적용, 문자 그대로의 번역(모국어 전이) 등 여덟 가지로 세분하였다.[23)]

---

23) 각 유형의 예시를 붙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미의 유사성에서 오는 혼돈으로 인한 오류-예: 감독이 소중히 (신중히) 배우들을 골라잡아야 합니다.
2. 형태적 유사성에서 오는 혼돈으로 인한 오류-예: 연애결혼이 더 이상하다.(이상적이다)
3. 어휘 교체-예: 제 ex-아내가 후회하고 있겠다.
4. 낱말의 배치 또는 관용어상의 오류-예: 인종차별 문제가 좋아질 겁니다.(문제가 해결되다)
5. 조어- 예: 총각의 생활(독신 생활)
6. 축약 또는 반복-예: 우리는 세상의 생각(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편 고석주 외(2004:69)에서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경우로 세분하여 귀납한 적이 있다.

(46) **어휘 오류의 여섯 가지 유형**

ㄱ. 동일한 품사 체계에서 오류를 보이는 경우

ㄴ. 각 품사 체계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여 오류를 보이는 경우

ㄷ. 상황에 적절한 어휘를 습득하지 못하여 다른 어휘로 풀어 쓰는 관정에서 보이는 오류

ㄴ. 어휘를 생략하여 쓰는 경우

ㅁ. 필요 없는 어휘를 첨가하여 쓰는 경우

ㅂ. 어휘를 잘못 만들어 한국어 어휘 체계에 없는 어휘를 만들어 쓴 경우

ㅅ. 어휘의 형태적인 특성을 잘못 이해하여 오류를 보이는 경우

고석주 외(2004:64)는 어휘 오류가 다른 종류의 오류보다 더 중요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어휘론과 문법론의 경계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모호해졌다. 둘째, 학습자가 어떤 언어를 안다는 것을 그 언어의 어휘를 아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정도로 어휘를 중요하게 여긴다. 셋째, 어휘 오류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관련되어 있으며 어떤 학습자 집단에서는 어휘적 오류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이다. 넷째, 원어민 화자들은 학습자의 어휘적 오류가 다른 종류의 오류보다 학습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가스(Gass, 2013:344)에서 비모국어화자(NNS)의 발화를 해석함에 있어서 발음과 어휘는 문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론도 이것을 뒷받침한다. 학습자가 문법 지식 없이 단어를 나열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에서 의미전달이 이루어지나 부정확한 발음이나 부적절한 어휘 사용으로 오해석이 생길 경우

7. 확대 적용-예: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가지고 아버지의 방(병실)에 앉으시고
8. 문자 그대로의 번역/모국어의 전이-예: 한 날(어느 날)

가 많이 있다. 다섯째, 어휘는 특히 초기 중간언어에서는 더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학습자의 어휘가 중요하고 본고에서 단위성 의존명사 오류 연구의 필요성도 다시 인정되었다.

오류들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한 다음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갈 것이다. 우선 오류를 수량화하고 그중에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 또한 어떠한 수준에 처한 학습자들이 오류를 가장 자주 범하게 되는지 등 문제는 수량화 작업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은 오류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단계인데 오류 설명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오류를 산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류의 근원이 무엇인지, 오류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의 해답을 찾는 단계이다. 앞선 논술한 바와 같이 오류는 내적, 외적, 개인적, 사회적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오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은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은 오류의 교정 단계인데 우리가 오류 분석을 통해 오류의 형태를 기술하여 원인을 규명하여 오류가 나타나지 않게 완벽한 교육 방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류 분석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오류를 수정하여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오류 분석의 절차에 따라 먼저 학습자들의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한 문장을 도출한 다음에 정문과 오류문 그리고 오류와 실수를 구별한 작업을 통하여 오류 분석의 자료가 될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다음은 오류 분석의 틀에 근거하여 오류를 식별하고 태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고는 우선 오류가 발생하는 언어 층위에 따라 의미적 오류, 형태적 오류와 통사적 오류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의미적 오류는 학습자가 단위성 의존명사의 의미자질을 잘못 인식하여 생긴 오류를 말한다. 형태적 오류에 있어 본고에서는 문어 자료와 구어 자료를 동시에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어에서 발생하는 철자 오류와 구어에서 발생하는 발음 오류도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사적 오류는 단위

성 의존명사가 단독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특성상 명사, 수관형사와 통합하여 수량사구를 이룰 때 부적절한 위치에 놓인 오류를 다루는 것이다.

Ⅲ.말뭉치에 나타난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 양상

1. 분석 자료의 통계치

그간 학습자들의 단위성 의존명사의 습득양상에 관한 연구는 모두 학습자의 오류에만 중심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학습자가 정확하게 표현한 언어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학습자의 진보와 발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이 오류를 생산하면서 정확한 표현을 만들어 내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그 언어를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기 전에 학습자들이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숙달도에 따라 그 사용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1.1. 숙달도별 사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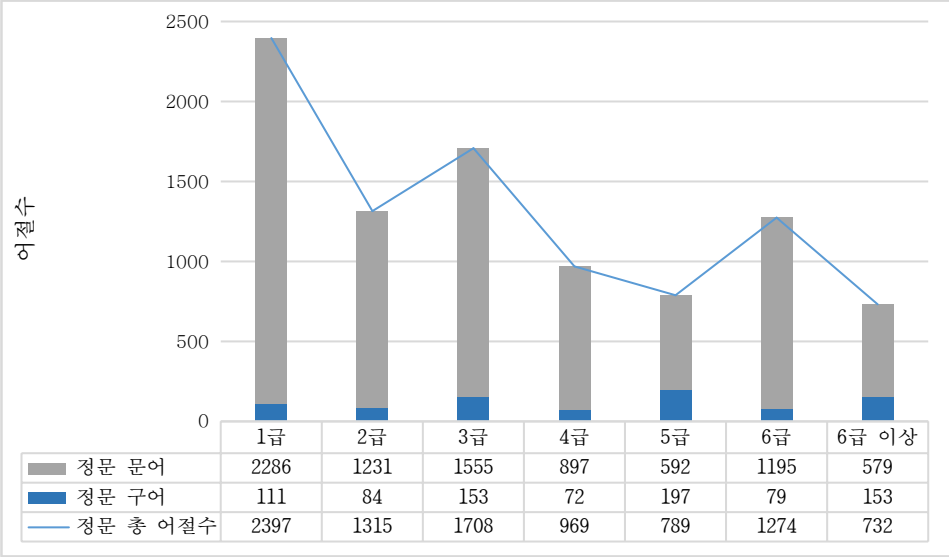
본고에서 학습자 말뭉치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기본 정보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다. Ⅰ장에서 선정된 단위성 의존명사 목록에 따라 총 9612어절(표본 수 3033)이 도출되었으며 그중에 오류를 제외한 정문 어절 수는 9184어절(구어 849어절/문어 8335어절)에 달했다.

<표 28> 전체 말뭉치 자료의 통계적 정보

숙달도	표본 수	총 어절 수 (오류포함)	정문 어절 수	구어 정문	문어 정문
1급	722	2479	2397	111	2286
2급	588	1373	1315	84	1231
3급	626	1808	1708	153	1555
4급	419	1020	969	72	897

5급	321	859	789	197	592
6급	321	1317	1274	79	1195
6급 이상	36	756	732	153	579
합계	3033	**9612**	**9184**	849	8335

중국인 학습자의 숙달도별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양상은 아래 그림을 통해서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각 숙달도에서 모두 많은 수행자료가 수집되어 있으며 1급에서 가장 많은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이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1급에서 시간과 관련된 도량 단위성 의존명사, 개체를 새는 수량 단위성 의존명사 등을 많은 접하게 되면서 실제 사용에서도 충실히 응용하기 때문이다. 가장 적은 사용 빈도를 보인 숙달도는 6급 이상 단계였다.



<그림 4> 숙달도 및 자료 유형별 사용 빈도

문어 자료와 구어 자료를 나누어 볼 때 문어 8335어절, 구어 849어절로 말뭉치의 크기로 인해 사용 빈도 간에 차이도 컸다. 우선 문어 말뭉치에서 전체 사용과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1급 학습자의 사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어 자료 중에 단위성 의존명사가 가장 적

게 사용되는 단계는 5급 단계이었다. 그러나 구어 말뭉치에서 보이는 사용 빈도는 문어와 달리 5급 단계에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절의 단위성 의존명사별의 사용 빈도 결과와 비교하면서 원인을 밝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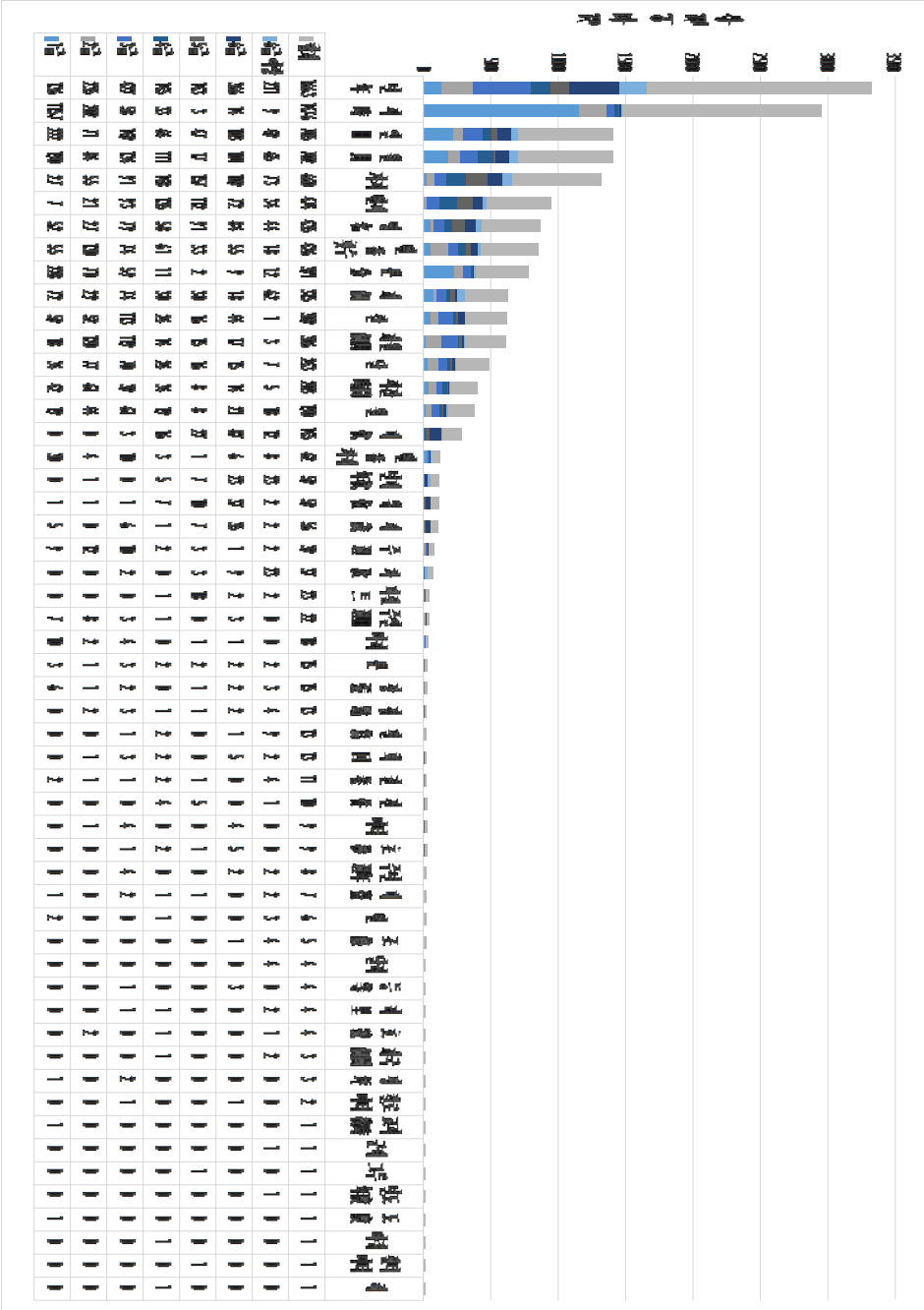
1.2. 단위성 의존명사별 사용 빈도

숙달도에 따른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의 빈도와 다양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각 숙달도에서 각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 빈도를 도표화 하였다. 아래 <그림 5>와 같이 단위성 의존명사가 모든 숙달도의 학습자에 의해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표에서 제시된 분포 수치를 보면 그중에 1급(29가지)과 2급 학습자(28가지)가 가장 적은 종류의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하였으며 '6급 이상' 학습자는 무려 40가지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하고 높은 수준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년(年)'이 가장 자주 쓰이는 단위성 의존명사로서 총 1663어절에서 사용되었다. '시(時)'도 천 번을 넘어 1476어절에서 나타났다. 그다음은 '일(日)'(702어절), '월(月)'(702어절)로 뒤를 이어 이는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도량 단위성 의존명사들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결과 시간과 관련 표현은 먼저 습득되며 학습자한테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24]. 실생활에서의 실용성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물 단위성 의존명사 중에서는 '가지'(660어절), '명(名)'(435어절) 순서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차례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에는 '번째'(474어절)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 계열에서는 '번(番)'이 가장 자주 출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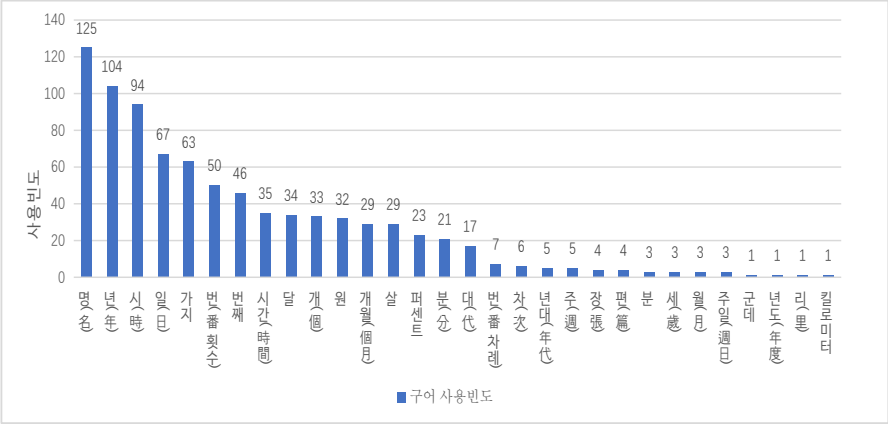
24) 류허란(2020)에서 단위성 의존명사가 『서울대 한국어』, 『연세 한국어』, 『이화 한국어』, 『재미있는 한국어 표준한국어 한국어 등 6가지 교재에서의 출현 빈도를 통계해 보았다. 그 결과 초급 교재에서의 단위성 의존명사 제시 빈도가 보편적으로 높았으며 '년(年)'이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단위성 의존명사로 나타났다. 다음은 시(時)', 원, 번, 월 등이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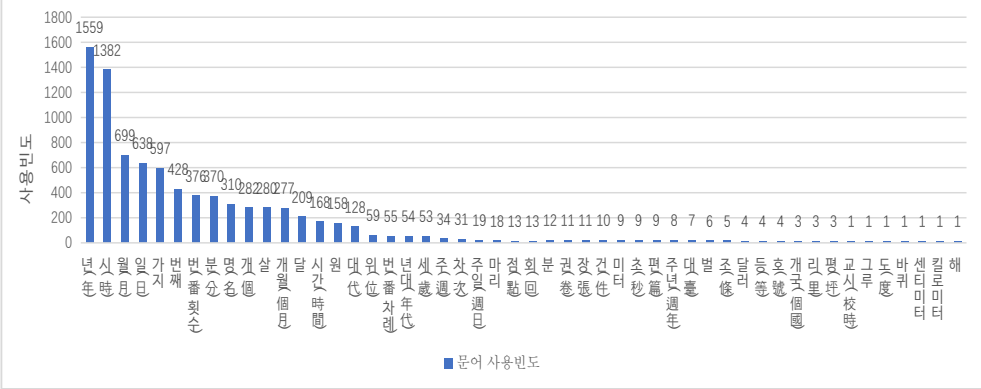
였으나 이 외에 ‘차(次)’, ‘회(回)’ 등은 비교적 적게 사용되었다.



<그림 5> 각 단위성 의존명사의 숙달도별 사용 빈도

각 숙달도별 사용 빈도를 보았을 때 모든 수준의 학습자들이 사용 빈도가 높은 단위성 의존명사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군데’, ‘그루’, ‘년도(年度)’, ‘달러’, ‘센티미터’, ‘조(條)’ 등은 고급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교시(校時)’, ‘도(度)’는 초급에만 나타났다. ‘해-년’, ‘달-월’과 같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고유어 계통과 한자어 계통을 모두 가지는 경우에는 한자어 계통인 ‘년(年)’, ‘월(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림 6> 구어와 문어 말뭉치에서의 단위성 의존명사별 사용 빈도

다음으로 구어 말뭉치에서의 단위성 의존명사별 출현 빈도가 문어 말뭉치에서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본다. 위 <그림 6>에서 보듯

이 말뭉치 규모 차이로 같은 단위성 의존명사가 구어와 문어에서의 사용 빈도 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문어와 구어에서 모두 다양한 단위성 의존명사가 사용되며 문어에서 사용되는 단위성 의존명사 종류가 구어보다 많았다. 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위성 의존명사는 '명(名)'(125어절)으로 나타났으며 문어에서는 '년(年)'이 가장 자주 사용되었다. '개국(個國)', '건(件)', '권(卷)', '마리', '점(點)' 등 단위성 의존명사는 문어 말뭉치에만 나타났으며 구어 말뭉치에서 사용된 용례는 없었다. 이와 반대로 '군데', '년도(年度)', '퍼센트' 등은 구어 말뭉치에서만 사용되었다.

1.3. 장르별 사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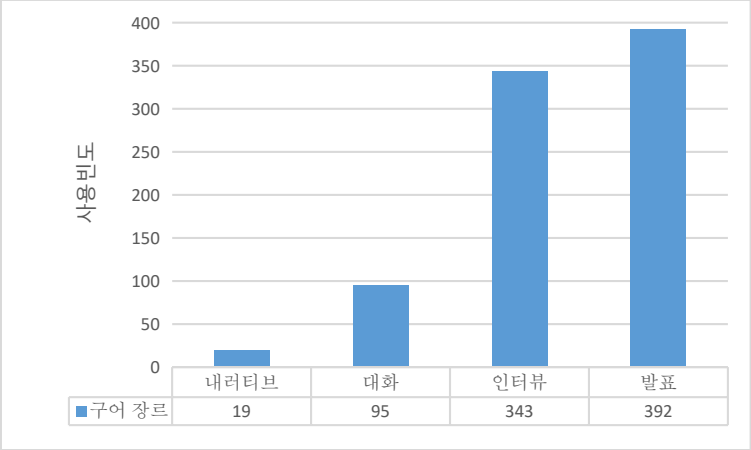
본고에서 학습자가 수행하는 과제의 장르는 모두 17가지였다. 그중에 '내러티브', '대화', '발표', '인터뷰' 이 네 유형은 구어 성격을 지닌 자료이며 나머지 유형들은 모두 문어 자료이다. 장르별 사용 빈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구어 장르와 문어 장르로 이분하고 문어 장르를 다시 이미혜(2011)[25]의 분류 체계에 따라 '정보 전달의 글', '정서·감정 표현의 글', '주장의 글' 등 세 가지 큰 유형으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

25) 이미혜 (2011)에서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장르 분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쓰기 장르는 '정보 전달의 글', '정서·감정 표현의 글', '사교 친교의 글', '주장의 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유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보 전달의 글: 정보 전달 및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예:설명서, 기사문, 예약서, 소개글, 안내문, 논문 등
-정서·감정 표현의 글: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정서를 표현한 글이다.
예:경험담, 기행문, 수필, 일기, 감상문 등
-사교 친교의 글: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 유지 기능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예: 편지, 엽서, 위로글, 사과문, 이메일, 초청장 등
-주장의 글: 의견 제시, 의견 주장, 설득의 목적을 갖는 글이다.
예; 건의문, 논설문, 사설, 광고, 판결문, 시사평론 등

우선 구어 장르에 따른 사용 빈도부터 살펴보겠다. 아래 <그림 7>과 같이 구어 말뭉치 자료 분석 결과 '발표문'(392어절)에서 단위성 의존명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인터뷰'(343어절)가 그다음이었다.



<그림 7> 구어 장르에 따른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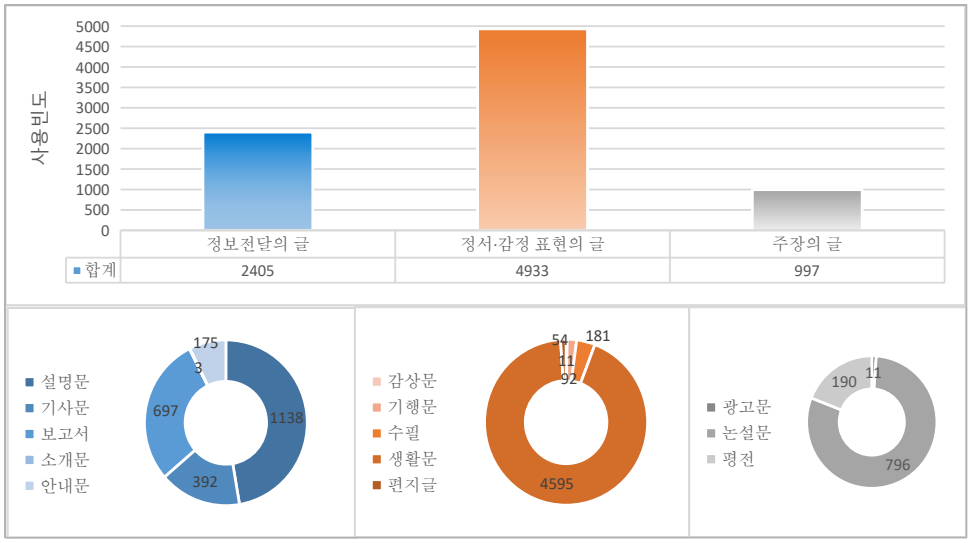
구어 장르에서 나타난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빈도는 849어절이며 총 30가지 단위성 의존명사가 사용되었다. 각 구어 장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5가지 단위성 의존명사를 정리해 본 결과는 아래 <표 29>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와 같이 각 구어 장르에서 시간과 관련된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가장 특징적인 양상은 발표 장르에서 '명', '가지', '번째', '퍼센트'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발표의 장르 유형 특성상 귀납하기, 나열하기, 도표 설명하기 등의 기능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아 이 세 가지 단위성 의존명사를 빈번하게 사용하게 된다.

<표 29> 구어 장르 유형에 따른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양상

장르 유형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빈도				
내러티브	년(年)	번(番 횟수)	개월(個月)	살	명(名)

	7	3	2	2	1
대화	년(年)	원	명(名)	번(番 횟수)	분(分)
	14	14	11	8	7
인터뷰	시(時)	일(日)	년(年)	시간(時間)	달
	70	40	37	26	22
발표	명(名)	년(年)	가지	번째	퍼센트
	96	46	44	42	21

이어서 문어 장르에서 어떠한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양상이 보이는지를 살펴보겠다. 아래 <그림 8>과 같이 문어 장르를 '정보 전달의 글', '정서·감정 표현의 글' 그리고 '주장의 글'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8> 문어 장르 유형에 따른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빈도

각 유형에서에서의 사용 빈도를 보면 '정서·감정 표현의 글'에서의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 빈도는 4399어절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정보 전달의 글'에서는 2405어절, '주장의 글'에서는 997어절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포를 원형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보 전달의 글' 유형 중 '설명문'에서 가장 높은 빈도(1138어절)가 보였으며

‘보고서(696어절)’, ‘기사문(392어절)’, ‘안내문(175어절)’, ‘소개문(3어절)’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서·감정 표현의 글’ 분류에는 ‘생활문’이 4595어절로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실생활에서 시간을 표현하거나 개체의 수량을 나타낼 때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수필’(181어절), ‘기행문’(92) 등 다른 장르에서의 사용 빈도는 생활문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주장의 글’ 유형에서 논설문에서의 796번 나타났으며 사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 광고문에서의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은 11어절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각 장르 종류에서 쓰이는 단위성 의존명사의 양상을 볼 때 ‘정보전달의 글’에서 사용 빈도가 ‘정서·감정 표현의 글’보다 낮지만 총 45가지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하여 가장 높은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정서·감정 표현의 글’에서는 41가지의 단위성 의존명사가 사용되며 ‘주장의 글’에서는 34가지로 가장 적었다. 각 문어 장르 유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가지 단위성 의존명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0>과 같이 ‘정보 전달의 글’과 ‘정서·감정 표현의 글’ 두 유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위성 의존명사들은 대부분 시간 표현과 관련이 있다. ‘주장의 글’에서 전체 사용 빈도가 다른 두 유형보다 낮지만 ‘가지’, ‘번째’, ‘년(年)’을 제외한 시간 관련 단위성 의존명사보다 사용 빈도가 높다는 특징이 보였다.

<표 30> 문어 장르 유형에 따른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양상

정보 전달의 글		정서·감정 표현의 글		주장의 글	
년(年)	492	시(時)	1267	년(年)	241
월(月)	367	년(年)	826	가지	227
일(日)	296	일(日)	317	번째	176
개(個)	134	월(月)	315	명(名)	52
가지	132	분(分)	304	번(番 횟수)	41
명(名)	117	번(番 횟수)	249	대(代)	40
시(時)	111	가지	238	살	25

번(番 횟수)	86	개월(個月)	211	일(日)	25
살	82	번째	182	세(歲)	22
대(代)	72	살	173	개(個)	18

2. 단위성 의존명사의 통사적 사용 향상

2.1. 수관형사와 단위성 의존명사의 결합 양상

2.1.1. 분석의 틀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할 때 대상 명사가 출현하지 않더라도 수관형사를 필수적으로 취해야 한다. 한국어의 수관형사는 관형어의 하위범주에 속한다. 우선 한국어의 수관형사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어원에 따라 고유어 수관형사와 한자어 수관형사로 이분할 수 있다. 아래 (47)과 같이 수사와 비교할 때 고유어 수관형사에 형태적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한자어 수관형사의 경우는 변형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고유어 계통의 수관형사는 1부터 99까지만 존재하며 백 이상의 수량은 한자어 수관형사로 표현한다.

한국어 수관형사의 유형

(47) ㄱ. 고유어 수관형사: 한(첫), 두, 세(서/석), 네(넉), 다섯(닷), 여섯, 일곱, ..., 열, 스무, 서른, 마흔, ..., 아흔...

ㄴ. 한자어 수관형사: 일, 이, 삼, 사, ..., 십, 이십, 삼십, 사십... 구십, 백, 천, 만...

(48) ㄱ. 한두, 두세, 서너...

ㄴ. 두서너, 너더댓...

(49) 일이, 이삼, 삼사, 사오...

(50) 몇, 여러

(51) ㄱ.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ㄴ. 기십, 기백, 기천, 기만...

ㄷ. 십여, 이십여, 백여...

(47)에서 제시한 수관형사들은 객관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정수' 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대응하는 개념은 '부정수' 인데 부정수에는 (48)~(51)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48ㄱ,ㄴ)은 두 개 혹은 세 개의 고유어 정수 수관형사들끼리 합성하여 만들어진 부정수의 예이다. '한두', '두세' 와 같은 두 자리 부정수도 존재하고 '두서너', '너더댓' 등 세 자리 부정수도 사용되고 있다. 한자어 수관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49)와 같이 두 개의 수관형사를 합성하여 부정수를 만든다. (50)의 부정수 '몇', '여러' 는 수관형사의 합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부정수의 또 다른 유형이다. (51)은 한자어 수관형사가 접두사 '수-', '기-' 혹은 접미사 '-여' 와 결합하여 형성되는 부정수 수관형사이다.

(52) ㄱ. 1명(한 명), 12살(열두 살), 3마리(세 마리)

ㄴ. 10(십 년), 1000원(천 원), 3개월(삼 개월)

ㄷ. 5권(다섯 권/ 오 권), 9동(아홉 동/ 구 동)

(53) ㄱ. 30명(서른 명/ 삼십 명)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수를 더 편리하고 명백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고유어 수관형사든 한자어 수관형사든 다 아라비아숫자로 같게 적는데 읽을 때는 단위성 의존명사와의 결합 규칙을 고려하여 읽어야 한다. (52ㄱ)의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표시된 수는 고유어로 읽고 (52ㄴ)은 한자어로 읽는다. 그러나 (52ㄷ)의 경우 기수적인 의미를 나타내려면 고유어로 읽고 서수적인 경우는 한자어로 읽어야

한다. 또한 (52ㄹ)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숫자가 커짐에 따라 고유어 계통이나 한자어 계통이 모두 허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고에서 단위성 의존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수관형사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 3가지 경우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겠다. 즉, 다음 (54)와 같이 한자어 수관형사 계통과 고유어 수관형사 계통, 그리고 아라비아숫자의 세 유형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54) 단위성 의존명사와 결합하는 수관형사의 유형

①한자어 수관형사:

-정수 :일, 이, 삼, 사, 오, ... 십, 이십, 삼십, ..., 백, 천, 만...

-부정수: 일이, 이삼, ... ; 수십, 수백, 수천, ... ; 기십, 기백, 십여...

②고유어 수관형사

-정수: 한(첫), 두, 세, 네, 다섯, ... , 열, 스무, 서른, ..., 아흔...

-부정수: 한두, 두세, ... ; 몇, 여럿(여러)

③아라비아숫자:

-정수: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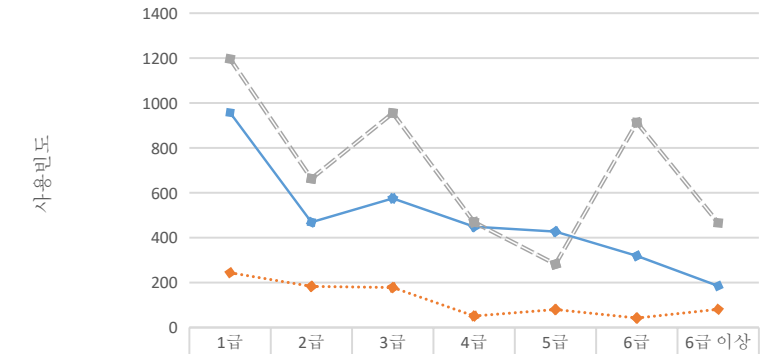
-부정수: 2~3, 5~7, 80여[26)]

2.1.2. 유형별 분석 결과

2.1.2.1. 숙달도에 따른 수관형사 유형별 결합 양상

26) 이처럼 복합적인 경우는 숫자를 표시하는 주요 성분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기로 한다.
예: 100여 -아라비아숫자
몇십-한자어 수관형사

다음으로 실제 학습자들이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할 때 각 유형의 수관형사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겠다. 아래 <그림 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라비아숫자가 거의 모든 숙달도의 학습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아라비아숫자가 한글보다 더 쉽게 인식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위성 의존명사가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할지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으로 아라비아숫자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6급 이상
고유어 수관형사	957	469	575	449	427	319	185
한자어 수관형사	244	183	178	51	80	42	81
아라비아숫자	1196	663	955	469	282	913	466

<그림 9> 숙달도에 따른 수관형사 유형별 결합 양상

고유어 수관형사와 한자어 수관형사의 사용 양상을 보았을 때 고유어 수관형사의 사용은 모든 숙달도에서 한자어 수관형사의 사용보다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앞선 단위성 의존명사별 사용 빈도와 비교해 보면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용 빈도가 높은 '시(時)', '시간(時間)', '살', '개(個)', '가지', '명(名)' 등이 모두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1급 학습자들의 모든 수관형사 사용이 다른 숙달도의 학습자보다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유어 수관형사와 한자어 수관형사의 사용은 1급에서 가장 높았으며 학습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줄어든 추세이다. 이는 초급 단계에서 수관형사와 단위성

의존명사의 결합에 대한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습자도 학습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기 때문이다.

2.1.2.2. 단위성 의존명사 어원별 수관형사 결합 양상

다음으로는 단위성 의존명사의 어원(한자어/고유어/외래어)에 따라 수관형사와의 결합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아래 <표 31>과 같이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든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든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사례가 고유어 수관형사보다 많이 수록되었다. 아울러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가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보다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빈도가 높았다. 학습자들이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와 결합하는 수관형사를 선택할 때 아라비아숫자를 더 많이 선호한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는 역시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지 못하며 한자어 수관형사 혹은 아라비아숫자와만 결합한다.

<표 31> 어원에 따른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결합 빈도

단위성 의존명사 / 수관형사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합계
한자어 수관형사	1884	1497	24	3381
고유어 수관형사	742	93	0	859
아라비아숫자	4600	329	15	4944
합계	7226	1919	39	9184

2.1.2.3. 단위성 의존명사별 수관형사 결합 양상

전술하였듯이 단위성 의존명사와 수관형사의 선택 관계는 그의 어원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의 크기, 단위성 의존명사의 의미 등의 요

소에 따라서도 좌우된다. 상황에 따라 하나의 단위성 의존명사가 동시에 두 가지 수관형사와 결합할 때도 있다. 실제 각 단위성 의존명사와 수관형사의 결합 빈도는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2> 단위성 의존명사별 수관형사 결합 양상

단위성 의존명사 어원		수관형사유형			전체
		고유어 수관형사	한자어 수관형사	아라비아 숫자	
한자어	개(個)	186	0	129	315
	개국(個國)	0	0	3	3
	개월(個月)	2	93	211	306
	건(件)	0	1	9	10
	교시(校時)	0	0	1	1
	권(卷)	6	0	5	11
	년(年)	62	235	1366	1663
	년대(年代)	0	6	53	59
	년도(年度)	0	1	0	1
	대(代)	0	18	127	145
	대(臺)	6	0	1	7
	도(度)	0	1	0	1
	등(等)	0	1	3	4
	리(里)	0	4	0	4
	명(名)	282	12	141	435
	번(番차례)	0	8	54	62
	번(番횟수)	383	5	38	426
	분(分)	1	136	254	391
	세(歲)	0	3	53	56
	시(時)	807	0	669	1476
	시간(時間)	114	0	89	203
	월(月)	1	10	691	702
	위(位)	0	1	58	59
	일(日)	5	162	538	705
	장(張)	14	0	1	15
	점(點)	2	2	9	13
	조(條)	0	0	5	5
	주(周)	4	19	16	39
	주년(周年)	0	0	8	8
	주일(週日)	0	10	12	22
	차(次)	0	8	29	37
	초(秒)	0	0	9	9
	편(篇)	6	4	3	13
	평(坪)	0	1	2	3
	호(號)	0	0	4	4

	회(回)	3	1	9	13
	전체	1884	742	4600	7226
고유어	가지	611	0	49	660
	군데	1	0	0	1
	그루	1	0	0	1
	달	203	1	39	243
	마리	18	0	0	18
	바퀴	1	0	0	1
	번째	465	0	9	474
	벌	6	0	0	6
	분	13	0	2	15
	살	172	1	136	309
	원	5	91	94	190
	해	1	0	0	1
	전체	1497	93	329	1919
외래어	달러	0	0	4	4
	미터	0	0	9	9
	센티미터	0	0	1	1
	킬로미터	0	1	1	2
	퍼센트	0	23	0	23
	전체	0	24	15	39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간관 관련된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 '개월(個月)', '년(年)', '대(代)', '분(分)', '월(月)', '일(日)' 등은 아라비아숫자와 결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 중에는 화폐 단위인 '원'에서만 아라비아숫자를 더 많이 선택하였다. <표 32>에서 고유어 수관형사 혹은 한자어 수관형사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단위성 의존명사도 많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단위성 의존명사는 '명(名)', '번(番-횟수)', '점(點)', '편(篇)', '회(回)', '살', '원' 등이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용 어절의 예를 통해서 결합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55), (56), (57), (58)은 단위성 의존명사가 수관형사를 선택할 때 수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 '살',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 '명(名)', '번(番)', '편(篇)'은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고유어 수관형사가

99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백 이상의 경우에는 한자어계를 사용하게 된다.

(55) ㄱ. 어머니는 마흔 아홉 살이십니다. <#13329, 1급, 문어>
ㄴ. 인류의 평균 수명이 백 살이 넘을 것입니다. <#1957, 4급, 문어>

(56) ㄱ. 아이도 두 명쯤 낳고 싶다. <#5425, 3급, 문어>
ㄴ. 반은 한 팔십 명 됐더라구요. <#14039, 6급 이상, 구어>

(57) ㄱ. 면접 시험을 두 번 봤는데... <#8317, 4급, 구어>
ㄴ. 뉴스에 따르면 한국 사람은 출퇴근 길에 한 백 번 CCTV 화면에 나오는데 공공장소에서 감시되는 느낌 때문에 불편하다고 한다. <#13423, 6급, 문어>

(58) ㄱ. 얼마 전에 한국 영화 한 편을 봤다. <#8521, 4급, 문어>
ㄴ. 한국어 학습자를 학위 논문 각 이십오 편을 선택하여... <#13892, 6급 이상, 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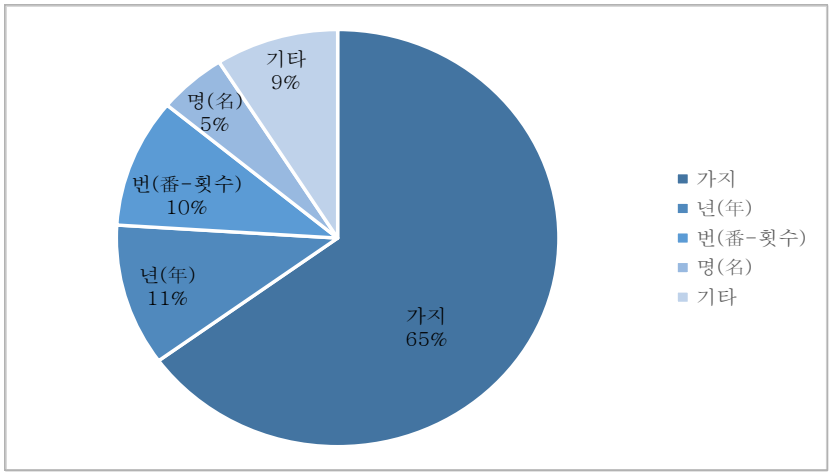
(59) ㄱ. 구름 한 점도 보이지 않다. <#15828, 3급, 문어>
ㄴ. 칠십 점밖에 없으면 안 좋아요. <#4812, 2급, 문어>

(60) ㄱ. 내일부터 하루에 영화 한 편이나 드라마 한 회만 보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준다. <#8553, 3급, 문어>
ㄴ. 환경오염의 원인은 일 회 쓰레기, 생활 쓰레기, 음식 쓰레기가 지금 너무 많다. <#3487, 4급, 문어>

(56ㄴ), (58ㄴ)과 같이 수가 큰 경우에 한자어 수관형사도 허용한다. 앞에 논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형태인 단위성 의존명사인데도 그가 가진 의미에 따라 다른 계통의 수관형사와 결합할 수 있다. (59ㄱ,ㄴ)은 단위성 의존명사 '점(點)'의 사용인데 (59ㄱ)에서는 아주 적은 양을 의미하며 (59ㄴ)에서는 성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쓰인다. 따라서 전자는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며 후자는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한다. (60ㄱ,ㄴ)에서 '회(回)'는 다 횟수를 세는 단위로 사용하지만, 드라마를 헤아리느냐

동작의 횟수를 헤아리느냐에 따라 수관형사가 달라진다.

부정수의 경우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 통계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아래 그림을 통하여 그 특징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 10>이 보여주듯이 부정수와 결합하는 용례는 '가지'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와 같은 표현은 전체 부정수의 사용 어절 수의 절반 이상(65%)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은 '년(年)'과 '번(番-횟수)'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



<그림 10> 단위성 의존명사별 부정수 결합 빈도 분포

부정수가 쓰인 경우를 살펴보면 부정수관형사 '여러'와 '몇'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61) ㄱ.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7667, 1급, 문어>

ㄴ. 수술 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3880, 4급, 구어 >

ㄷ. 우리는 친구가 많이 있지만 진짜 친한 친구는 한두 명 있다. <#4536, 3급, 문어>

ㄹ.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 경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노인은 자녀

와 1년 동안 한두 번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5209, 4급, 문어>

ㅁ. 해방 후에 모두 2000여 개의 연초 상표가 존재하고 있었다. <#13687, 6급 이상, 문어>

ㅂ. 그 시험은 입학 4~6개월 전에 한다. <#263, 5급, 문어>

(61ㄱ,ㄴ)과 같이 '여러 가지'는 관용 표현으로 사물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된다. (61ㄷ,ㄹ)은 고유어 수관형사들끼리 결합하여 형성하는 부정수의 예이다. 말뭉치 자료에서 '일이', '이삼' 등 한자어 부정수 수관형사의 사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61ㅁ)과 같이 수관형사 뒤에 '그 수를 넘음'을 의미하는 접미사 '-여'를 삽입하여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6급 이상 단계에서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1ㅂ)처럼 아라비아숫자의 경우도 일정한 범위임을 지시할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부정수를 사용하여 그 뒤에 오는 단위성 의존명사 및 대상 명사를 수식하고 있었다.

2.2. 수량사구의 사용 양상

2.2.1. 분석의 틀

앞서 2장에서 단위성 의존명사가 개입된 수량사구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대규모 말뭉치 자료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더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각 유형의 하위범주를 만들고자 한다. 단위성 의존명사가 삽입된 수량사구 구성은 아래 표와 같이 세분하였다.

<표 33> 단위성 의존명사 수량사구 분석 세부 기준

구조	하위분류	예시

1)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①양수 표현	삼 개월, 두 시간, 다섯 명
	②서수 표현	첫 번째, 삼 번, 일 등, 2020년
2)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①원시 형태	남자 세 명, 옷 한 벌,
	②조사 삽입형	학생이 세 명, 강아지를 네 마리
3)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관형격조사(의)+명사	①‘의’의 실현형	세 명의 학생
	②‘의’의 생략형	두 가지 방법
4)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동사(구)	①동사 결합형	두 번 말하다, 한 대 치다
	②동사구 결합형	세 번 커피를 마시다

위 표와 같이 단위성 의존명사가 수량사구를 이루는 유형은 총 4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에는 다시 표현 양상에 따라 세분하고 있다. 우선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성은 다시 양수 표현과 서수 표현으로 나누어 다룰 것이다.

(62) ㄱ. 그는 다섯 시간 동안 창밖만 보고 있었다.
ㄴ. 첫 번째, 나라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63) ㄱ. 오늘은 2020년 1월 1일이다.
ㄴ. 그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다.
ㄷ. 기말 시험이 5일밖에 안 남았다.

예컨대 (62ㄱ)은 양수 표현임으로 ‘시간’의 양이 ‘다섯’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62ㄴ)은 순서나 차례를 표현하는 이른바 서수 표현이다. 또한,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도량 단위성 의존

명사는 어떤 시점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일정한 기간을 표현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서수 표현'으로 분류하며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양수 표현'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아래 (63ㄱ)에서 '년(年)'과 '일(日)'은 시점을 표현하는 단위성 의존명사이며 이러한 수량사구는 서수 표현에 속한다. 반면에 (63ㄴ,ㄷ)에서는 '년(年)'이 한 해가 되는 동안을 의미하고 '일'이 하루를 의미함으로써 이러한 수량표현은 양수 표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조도 원시 형태와 조사 삽입형으로 나누어 다룰 것이다. 최형용 외(2017:162)는 '명사+수사(수관형사)+단위성의존명사' 구성에서 명사와 수량사구가 각각 격조사나 보조사를 취할 수 있다고 한 바가 있다. 본고에서는 지시대상인 명사가 조사를 취하는 경우만 고려하여 논의할 것이다. 명사가 취할 수 있는 조사는 격조사 '이/가', '을/를', 보조사 '도', '까지' 등이 있다.

(64) ㄱ. 나는 <u>강아지 두 마리</u> 키우고 싶다.
ㄴ. 나는 <u>강아지를 두 마리</u> 키우고 싶다.
(65) ㄱ. 내 집에 <u>화장실 두 개</u>가 있다.
ㄴ. 내 집에 <u>화장실이 두 개</u>가 있다.
(66) ㄱ. 그 할머니는 <u>아들 세 명</u>을 키웠다.
ㄴ. 그 할머니는 <u>아들도 세 명</u>을 키웠다.

위 (64ㄱ), (65ㄱ)은 조사 없는 표현이며 (64ㄴ), (65ㄴ)은 각각 명사 뒤에 격조사 '를'과 '이'가 삽입된 것이다. 또한 (66ㄴ)은 '아들'과 '세 명' 사이에 보조사 '도'를 추가함으로써 딸도 키웠다는 숨겨진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관형격조사(의)+명사' 구조에 원칙적으로 관형격조사 '의'가 필수적으로 실현되어야 하지만 실제 사용에서 '의'가 생략된 경우도 많이 보인다. 하지만 '의'의 실현 여부는 완

전 수의적이지는 않고 여러 제약을 받고 있다.

(67) ㄱ. 재무부서에는 두 명의 직원이 있다.
ㄴ. *재무부서에는 두 명 직원이 있다.
(68) ㄱ. 낙성대역에 가려면 2번 버스를 타야 된다.
ㄴ. 그 배우는 어제 일 등 상을 받았다.

(67ㄴ)의 경우 '의'를 생략하면 비문이며 '의'를 추가하거나 '직원 두 명'의 형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68)과 같이 순서나 차례를 나타내는 '등(等)', '번(番)', '번째'로 구성한 수량사구에는 '의'가 실현하지 않아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마지막으로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의 경우는 뒤에 오는 동작이나 사건의 횟수를 나타내는데, 본고에서 동사 후행 구조와 동사구 후행 구조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69) ㄱ. 나는 하루의 약을 세 번 먹는다.
ㄴ. 나는 하루의 세 번 약을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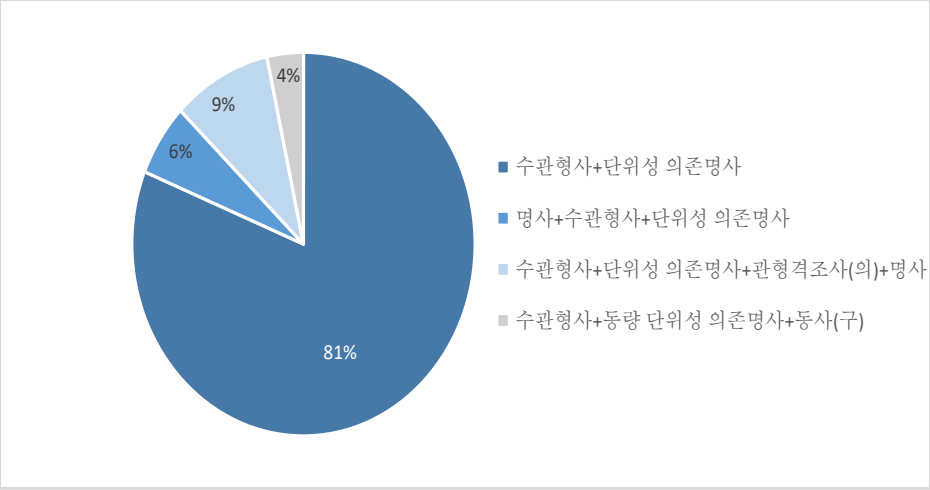
(69ㄱ)과 같이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 '번(番)' 뒤에 '먹다'가 직접 붙을 때, '먹다'의 횟수가 아니라 '약을 먹다'라는 동작의 횟수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69ㄴ)도 '번' 뒤에 '약'이라는 명사가 먼저 오지만 약을 수량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다' 이 동사구의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2.2.2. 유형별 분석 결과

단위성 의존명사가 수관형사와 결합되어 명사 혹은 동사에 붙여 수량사구를 이룬다. 수량사구의 여러 가지 유형을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이 숙달도, 단위성 의존명사의 유형 등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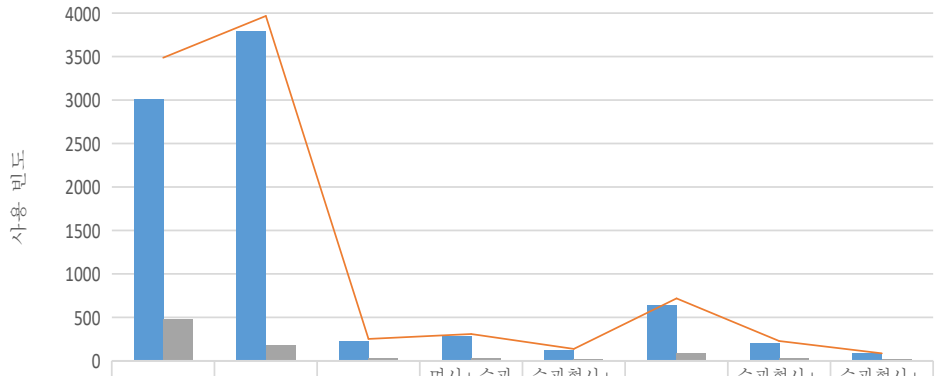
아래 <그림 11>과 같이 전반적으로 4가지 수량사구의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구조 1)인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의 구조이다. 총 9184개의 어절에서 이 구조가 7454어절로 전체 어절 수의 무려 81%를 차지하였다. 명사가 들어간 구조 2)와 구조 3) 중에 명사가 후행하는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관형격조사(의)+명사' 구조(9%)는 명사가 선행하는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6%)보다 더 선호된다는 것도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한국어 교재에서 명사가 선행하는 구조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이 후행 구조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11> 각 수량사구 유형의 분포도

8가지의 세부 유형의 분포 양상은 아래 <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성에서 양수 표현과 서수 표현이 비슷한 수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명사가 선행하는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조에서는 조사를 삽입하여 사용하는 용례가 조사 없이 사용하는 용례보다 더 많이 나

타났다. 명사가 후행하는 구성인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의 세부 분류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학습자가 관형격조사 '의'를 생략한 구조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에 있어서 학습자가 동사구보다 동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특징이 드러났다.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양수)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서수)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명사+수관형사+조사+단위성 의존명사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명사	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동사	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동사구
문어	3008	3785	228	278	120	634	200	82
구어	479	182	24	31	17	84	28	4
합계	3487	3967	252	309	137	718	228	86

<그림 12> 수량사구의 세부 유형 분포도

각 단위성 의존명사의 어원에 따라서 그가 선호하는 수량사구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아래 도표를 도출해 보았다. 아래 <표 34>와 같이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가 모든 구조를 활발히 구성하고 있다.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경우는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보다 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관형격조사 '의'가 생략된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명사' 구조에서 더 많은 사용을 보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 '가지'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점과 연관지을 수 있다. 또한,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는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양수표현)',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관형격조사(의)+명사' 구

조를 이루는 어절만 찾아볼 수 있었다.

<표 34> 어원에 따른 수량사구 유형 사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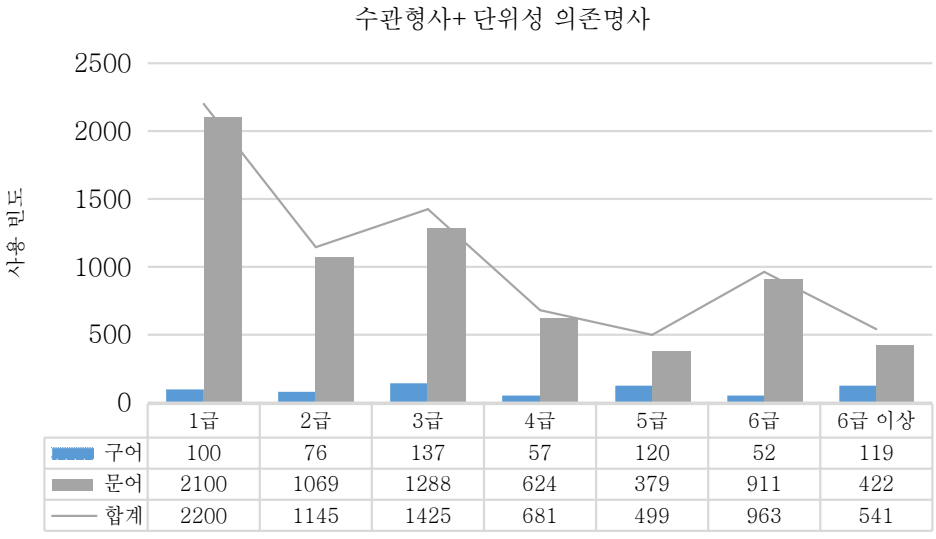
단위성 의존명사 / 수량사구 유형 / 어원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합계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양수표현)	2561	898	28	3487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서수표현)	3620	347	0	3967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216	36	0	252
명사+수관형사+단위성의존명사 (조사 삽입형)	212	97	0	309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관형격조사(의)+명사	101	25	11	137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명사	203	515	0	718
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동사	227	1	0	228
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동사구	86	0	0	86
합계	7226	1919	39	9184

이어서 각 유형에서 학습자들이 단위성 의존명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떠한 특징이 보이는지를 자세한 자료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2.2.2.1.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형의 결합 양상

앞에서 통계 결과를 통하여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 구성이 학습자에 의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래 <그림 13>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숙달도의 학습자들이 이 구성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1급 학습자에 의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초급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시간 표현을 접하게 되며 '년'(年), '월'(月), '일'(日), '시'(時) 등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를 빈번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위성 의존명사는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분류화 기능이 강하여 문장에서 비수식 대상이 '시간'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도 의미 해석에 지장이 없다. 즉 '시간 1년', '시간 5월' 처럼 명사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6급 이상
구어	100	76	137	57	120	52	119
문어	2100	1069	1288	624	379	911	422
합계	2200	1145	1425	681	499	963	541

<그림 13> 숙달도에 따른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성의 사용 빈도

단위성 의존명사의 특성상 수관형사를 필수적으로 취하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단위성 의존명사와 수관형사의 성격에 따라 양수 표현과 서수 표현으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①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양수표현)

(71) ㄱ. 삼 년 동안 시댁 어른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14072, 5급, 구어>

ㄴ. 10개월 후에 기적이 생겼다. <#8717, 5급, 문어>

ㄷ. 뭐 한 달 후에 답장이 온다. <#14039, 6급 이상, 구어>

ㄹ. 한 명은 컴퓨터 게임 하고 놀았어요. <#4984, 1급, 구어>

ㅁ. 방이 많아서 한 개는 부모님이 쓰고 한 개는 남편이랑 쓰고 한 개는 우리 고양이가 쓴다. <#1663, 3급, 문어>

ㅂ. 이번 한국에 오기 전에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두세 권을 가지고 왔다. <#9630, 4급, 문어>

위 예시들과 같이 대상 명사를 붙여 쓰지 않아도 문맥을 통해 비수식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예컨대 (71ㄱ-ㄷ)에서 단위화할 대상이 시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략되었다. (71ㄹ)은 앞 문맥에서 이미 '친구'라는 지시대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성만 사용해도 된다. (71ㅁ,ㅂ)의 경우는 앞에 이미 지시대상이 '방'과 '책'인 것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해석에 전혀 지장이 없다.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 유형에서 특별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는 곧 아래와 같은 '나열 명사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 구조이다.

(72) ㄱ. 중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장 부호에는 쉼표, 마침표, 물음표 등 12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쉼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장 중단 부호이다. <#13692, 6급 이상, 문어>

ㄴ. 색상으로는 대중들이 많이 즐기는 블랙, 화이트, 레드 세 가지입니다. <#13685, 6급 이상 문어>

ㄷ. 또한 지은이는 취미를 직업으로 변화하려면 만족, 보상, 역량과 헌신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3867, 6급 이상, 문어>

ㄹ.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한국의 김치찌개, 이탈리아의 파스타, 미국의 햄버거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5129, 1급, 문어>

위 예문(72)와 같이 대상 명사를 모두 나열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분만 나열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나열한 내용과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사이에 '등의' 혹은 '등'을 붙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나열 명사구의 경우는 학습자의 문어 말뭉치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으나 구어 말뭉치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등', '등의'와 같은 표현이 문어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구어에서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외에 수관형사 '한'과 결합하는 어절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부정극어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 한국어에서 부정적 의미를 표현할 때 '전혀', '결코' 등 부사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도', '한 명도' 뒤에 '없다', '안', '-지 않다' 등 표현과 같이 쓰여 화용적으로 완전의 부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73) ㄱ. 한 장도 못 봤어. <#14039, 6급 이상, 구어>
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할 줄 아는 것이 한 개도 없었다. <#1405, 3급, 문어>
ㄷ. 구름 한 점도 보이지 않다. <#15828, 3급, 문어>

(73)에서 '한 장', '한 개', '한 점' 등이 '도'와 결합하여 '안', '못', '없다', '-지 않다' 등 부정의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쓰임으로써 부정의 정도를 강화시켰다. 여기서 앞에 수관형사 '한'이 수관형사가 원래 지니는 의미에 더하여 보조사 '도'와 같이 쓰여 '가장 적은 수량마저'라는 부연적 의미도 가지게 된다.

②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서수표현)

다음은 서수를 표현하는 수관형사와 단위성 의존명사의 결합 양상을 알아보겠다. 유형 ①에서 단위성 의존명사들이 명사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과 반대로 ②에서의 단위성 의존명사는 대상 명사의 순서, 등급 등을

나타내고 있다.

(74) ㄱ. 그 첫 번째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13892, 6급 이상, 구어>

ㄴ. 이 프로그램은 5년 동안 방송했는데 나는 제1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다. <#1818, 3급, 문어>

ㄷ. 고등학교 졸업 후에 수능 시험 중에서 1등을 따는 우리 아버지가 국내 가장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다. <#10800, 6급,문어>

ㄹ. 제 방은 407호입니다. <#11213, 3급, 문어>

ㅁ. 그렇지만 수요일에는 1교시부터 수업이 있습니다. <#4411, 1급, 문어>

ㅂ. 우리나라 <<노동법>> 54조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대가뿐만 아니라 식대 보조금이나 주택수당도 제공해야 한다. <#569, 6급, 문어>

ㅅ. 2013년에 친구는 저를 데리고 경마공원에 갔다. <2909, 4급, 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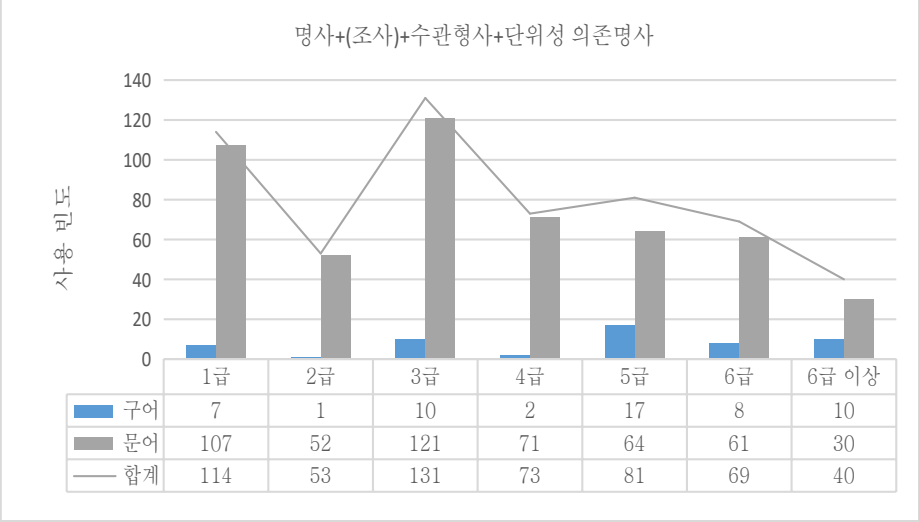
ㄹ. 올해 이 월 이십오 일부터 한국에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왔다. <#4548, 3급, 문어>

위 용례들은 학습자들에 의해 만든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조의 서수 표현의 예이다. (74ㄱ,ㄴ)과 같이 고유어 서수 수관형사 '첫', 혹은 한자어 서수 수관형사 '제일, 제이' 등은 차례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 외에도 단위성 의존명사 그 자체가 순서나 등급의 의미를 지닌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74ㄷ~ㅂ)에서의 '등, 호, 교시, 조' 등이 있는데 (74ㅂ)에서 '54조'가 '제 54번째 조문'으로 뜻풀이할 수 있고 여러 개의 법률 조문 중에 54번째인 것을 가리킨다. 이와 마찬가지로 '1등'도 '제 1등'을 의미하고 '407호'도 '제 407호'를 의미한다. 이 외에 '세기', '학년(學年)', '차(次)', '위(位)', '권(卷)' 등도 서수

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74ㅅ,ㄹ)에서 '년' 과 '일' 은 (71)과 비교할 때 동일한 성분의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71)에서는 양수 표현으로 쓰이고 (74)에서는 서수 표현으로 쓰인다. (71ㄱ)에서 '삼 년' 은 '년' 의 수량을 헤아리며 (80ㅅ)에서 2013년은 년의 해를 세는 단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해의 순서를 강조하는 것이다. (80ㄹ)에서 '25일' 도 이월의 '제 25일' 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2.2.2.2. '명사+(조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형의 결합 양상

'명사+(조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유형의 전체 사용은 유형 1)보다 사용 빈도가 낮게 집계되었다. 아래 <그림 14>와 같이 3급 학습자들이 이 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1급 학습자에게도 비교적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4, 5, 6급 학습자들에 의한 사용 빈도는 유사하며 6급 이상의 학습자에게 가장 낮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구어에서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 5급에서 가장 높은 사용 빈도로 나타났으며 2급에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6급 이상
구어	7	1	10	2	17	8	10
문어	107	52	121	71	64	61	30
합계	114	53	131	73	81	69	40

<그림 14> 숙달도에 따른 '명사+(조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성의 사용 빈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래 <표 35>에서는 어원에 따른 단위성 의존명사별의 결합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모든 단위성 의존명사가 이 구조를 제한 없이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중국인 학습자들에 의한 이 두 유형의 사용은 '개(個)', '명(名)', '가지' 등 소수에 단위성 의존명사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년(年)', '일(日)', '분(分)', '주(週)' 등 시간과 관련된 단위성 의존명사, '미터', '키로' 등 도량에 관한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들은 이 구조를 구성하는 데에 제한을 받는다. 한국인 말뭉치를 분석한 윤희수(2018:91)에서 이 유형은 수관형사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고유어 수관형사가 한자어 수관형사보다 더 활발하게 구성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단위성 의존명사의 관점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로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할 수 있는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이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사용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35> '명사+(조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성의 사용 빈도

어원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명사+조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합계
한자어	개(個)	87	87	174
	건(件)	3	0	3
	권(卷)	3	3	6
	대(臺)	7	0	7
	명(名)	97	110	207
	번(番-횟수)	0	12	12
	분(分)	1	0	1
	장(張)	9	0	9
	점(點)	3	0	3
	편(篇)	5	0	5
	회(回)	1	0	1
	합계	216	212	428
고유	가지	5	97	102
	군데	1	0	1

어	그루	1	0	1
	마리	8	0	8
	벌	3	0	3
	분	10	0	10
	원	8	0	8
	합계	36	97	133

이어서 세분 유형인 조사 없이 실현하는 구조와 명사와 수관형사 사이에 조사가 첨가되는 구조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겠다.

①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75) ㄱ. 기계 한 대는 한 번에 담배 800개비를 생산할 수 있으며 최대로 1400개비에 이를 수 있다. <#13687, 6급 이상, 문어>

ㄴ. 표 두 장 사고 싶어요. <#14276, 3급, 구어>

ㄷ. 저는 방 2개, 큰 거실 하나,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에 살고 싶다. <#131, 1급, 문어>

ㄹ. 집에서 개 두 마리하고 고양이 한 마리를 기릅니다. <#4386, 1급, 문어>

ㅁ. 저는 옷 두 벌, 신발 한 켤레를 샀습니다. <#11655, 1급, 문어>

ㅂ. 특히 지금 고민 한 개 있어요. <#11530, 3급, 구어>

ㅅ. 거기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선족 통역사 한 분 계셨어. <#13870, 6급 이상, 구어>

(75)는 학습자 말뭉치에서 추출한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조의 사용 용례이다. 앞서 다루었던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조와 비교해 보자.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조에서 대상 명사는 문장에서 전제되어 있거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 명사가 청자와 화자의 맥락에 전제되어 있지 않거나 추측이 어려울 경우에는 명사의 출현이 필수적이며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

명사’ 구성을 이룬다. 이때 단위성 의존명사와 대상 명사 간의 의미적 대응 관계가 확실히 보여야 하며 성립하지 못할 때 비문이 된다. 예컨대 (75ㄱ)에서 ‘기계’에 단위성 의존명사 ‘대(臺)’가 쓰이며 (75ㄴ)에서 ‘표’는 ‘장’과 결합한다. (75ㄷ,ㄹ,ㅁ)은 나열하는 경우인데 이때 2장에서도 다루었듯이 명사보다 ‘2개’, ‘한 마리’, ‘두 벌’ 등 수량이 강조된다.

② 명사+조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76) ㄱ. 배가 하도 고파서 빵집에서 산 방을 한 개만 샀다. <#1405,2급, 문어>

ㄴ. 오늘 단어를 10개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일이 생겨서 단어를 안 배운다. <#9318, 4급, 문어>

ㄷ. 제일 중요한 문제가 두 개 있다. <#5156,4급, 문어>

ㄹ. 그 이유는 주로 두 가지가 있다. <#9165, 5급, 문어>

(77) ㄱ. 사람마다 인생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관도 여러 가지 있다. <#12302, 6급, 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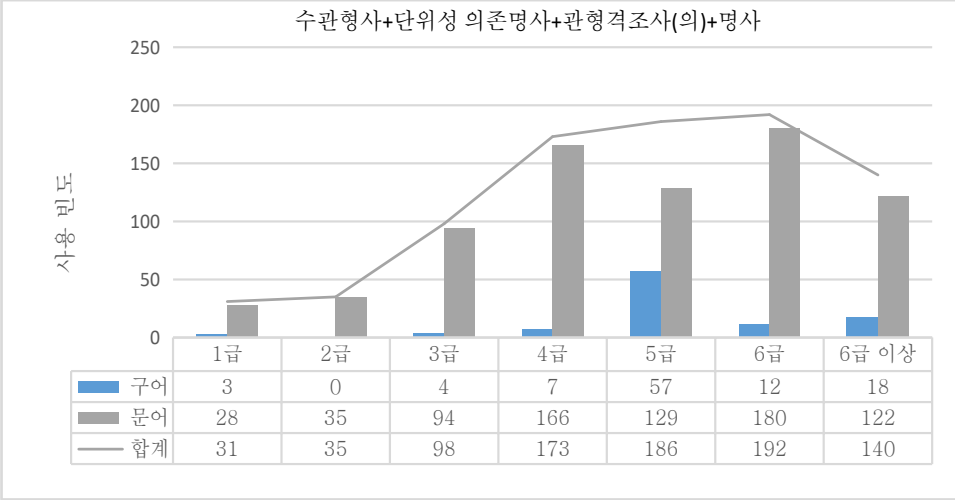
ㄴ. 요즘에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됐는데 문제도 여러 가지 생겼다. <#10869, 5급, 문어>

(76)은 명사와 수관형사 사이에 격조사가 첨가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76ㄴ)을 예로 들자면 이 문장에서 대상 명사와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조가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상 명사 ‘단어’와 ‘10개’가 모두 격표시를 취할 수 있으며 문장 구조로 볼 때 사실상 ‘단어를 10개를 배운다’와 같은 이중 목적어 구문을 형성한 것이다. (76ㄴ,ㄷ)에서는 두 번째 격표시가 생략된 것이며 (76ㄹ)은 두 성분 다 격표시를 취한 예시이다. 또한 (76ㄹ)에서는 조사만 삽입할 뿐만 아니라 정도를 표현하는 부사도 같이 쓰였다. (77)은 보조사 ‘도’를 첨가한 예문들인데 여시는 어떠한 대상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

함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2.2.3.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형의 결합 양상

앞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명사가 후행하는 구조를 전치 구조보다 선호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아래 <그림 15>와 같이 명사 전치 구조의 양상과 반대로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조는 초급 학습자보다 중·고급 학습자들에 의한 사용이 더 많았다. 채완(1983), 서정수(1996)에서 이 유형이 현대 국어에서 문어에 한정되어 쓰인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학습자들이 문어뿐만 아니라 구어에서도 이 유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위 그림에서 확인되었다. 구어 말뭉치의 사용 양상을 보았을 때 사용 빈도가 보편적으로 낮지만 5급 학습자의 사용 빈도가 예외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6급 이상
구어	3	0	4	7	57	12	18
문어	28	35	94	166	129	180	122
합계	31	35	98	173	186	192	140

<그림 15> 숙달도에 따른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성의 사용 빈도

이러한 빈도 차이는 각 숙달도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위성 의존명사에

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 36>은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조에 사용된 단위성 의존명사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36>을 살펴보면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조를 구성하는 단위성 의존명사 중에 '가지', '번째', '번(番-차례)', '대(代)'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에서 단위성 의존명사의 숙달도별 분포와 결합해보면 '가지'와 '번째'는 사용 빈도가 높으며 주로 고급 단계에서 많이 쓰인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조의 사용이 초급에서 고급으로 점증하는 경향이 보였다.

<표 36>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성의 사용 빈도

단위서 의존명사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명사	합계
한자어	개(個)	29	19	48
	개국(個國)	1	0	1
	개월(個月)	1	0	1
	권(卷)	2	0	2
	년(年)	6	0	6
	대(代)	5	83	88
	등(等)	0	2	2
	명(名)	36	2	38
	번(番차례)	0	54	54
	번(番횟수)	3	2	5
	분(分)	1	3	4
	시간(時間)	3	0	3
	일(日)	2	0	2
	장(張)	1	0	1
	주(週)	1	0	1
	주년(週年)	0	2	2
	차(次)	0	36	36
	초(秒)	2	0	2
	편(篇)	4	0	4
	회(回)	4	0	4
	합계	101	203	304

고유어	가지	16	385	401
	마리	1	1	2
	번째	1	126	127
	벌	2	0	2
	분	0	1	1
	살	5	2	7
	합계	25	515	540
외래어	킬로미터	1	0	1
	퍼센트	10	0	10
	합계	11	0	11

또한, <표 36>을 통해서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성에서 '의'의 첨가형과 생략형 간의 빈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6>과 같이 '가지', '번째'를 비롯한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는 거의 다 '의'가 생략된 구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경우는 '개(個)', '명(名)', '년(年)'처럼 '의'가 실현된 구조를 선호하는 것도 있으며 '대(代)', '번(番-차례)', '차(次)'처럼 거의 '의'가 생략된 구조만 사용하는 것들도 있다. 또한,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은 '의'가 실현된 구조에만 찾아볼 수 있었다.

①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일반적으로 명사가 후행하는 수량사구 구조에서는 관형격조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아래 (78)은 학습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장의 예시들이다.

(78) ㄱ. 만약 한 편의 문장이 아무런 문장 부호도 없다면 이는 다른 해석을 생겨 시킴으로써 판단하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3691, 6급 이상, 문어>

ㄴ. 세상은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20명의 사람은 하루 1,000원 미만의 돈으로 끼니를 이어간다. <#13754, 4급, 문어>

ㄷ. 두 개 혹은 세 개의 외국어를 배웠습니다. <#6085, 5급, 구어>

ㄹ. 현존 1,000여 편의 시가 중에 여성 주제 시나 여성 화자의 시가 80여 편에 달하고 그 외에 간접적으로 여성을 언급한 작품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13695, 6급 이상, 문어>

ㅁ. 어 열다섯 명의 한국 사람들은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5급, 구어>

ㅂ. 현대의 신문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진실한 사회를 반영할 수 없다. <#12905, 6급, 문어>

ㅅ. 오십오 퍼센트의 응답자는 생활비가 부족할 때 아주 좋아하는 것에서 돈을 절대 쓰지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4989, 5급, 구어>

여기서 의미적인 측면으로 볼 때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순으로 이루는 수량사구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대상의 수가 아니라 해당 수량으로 한정된 대상 자체이다. 예컨대 (78ㄷ)에서 '두 개 혹은 세 개의 외국어' 라고 함은 '무엇을 배우는가' 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만약 '외국어 두 개 혹은 세 개' 구성으로 바꾼다면 '몇 개를 배우는가' 를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미묘한 의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때 명사 전치 구조와의 상호 교체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78ㅅ)에서 '오십오 퍼센트의 응답자' 는 명사가 전치된 구성인 '응답자 오십오 퍼센트' 로 바꾸어 쓸 수 없다. 굳이 순서를 바꾼다면 명사 뒤에도 '의' 를 추가하여 '응답자의 오십오 퍼센트' 라고 표현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의' 의 기능을 달리하고 있는데 '오십오 퍼센트의 응답자' 에서 수식 표지로 사용된다면 '응답자의 오십오 퍼센트' 에서는 속격 표지로

기능한다.

②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명사 (‘의’ 생략형)

‘의’가 생략된 ‘수관형사+ 단위성 의존명사+명사’ 구조는 나열 명사구의 경우 더욱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수량화 대상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뒤에 오는 명사이며 또 하나는 앞에 나열한 내용들이다. 구체적인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79ㄱ,ㄴ)은 대상 명사를 나열한 뒤 바로 수량사구와 연결하는 방식이며 (80ㄱ)은 나열 명사구와 수량사구 사이의 관형격조사 ‘의’가 삽입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81)은 지시대상을 부분만 나열하고 ‘등’을 붙인 다음에 수량사구와 연결하는 경우이다.

(79) ㄱ. 첫째, 선택 속성 요인 중 ‘시설’과 ‘서비스’, ‘메뉴’, ‘환경’ 네 가지 요인이 고객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고객 만족을 높이는데 시설과 서비스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13734, 6급 이상, 문어>

ㄴ. 사영 공장 16개 중의 大東南(대동남), 華成(화성), 華美(화미), 華明(화명) 4개 공장의 생산량은 사영 공장 생산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13687, 6급, 문어>

(80) ㄱ. 따라서 본 연구는 고객 만족 선택 속성을 서비스, 시설, 메뉴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이러한 선택 속성이 고객 만족과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3734, 6급 이상, 문어>

(81) ㄱ. 뉴스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드라마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1825,

3급, 문어>

ㄴ. 인생관은 나라, 지역, 가정, 학벌, 직업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이가 있다. <#12298, 6급, 문어>

더불어 차례, 순서 등을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는 '의'의 생략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구조는 문어뿐만 아니라 구어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차례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는 '번째', '등(等)', '번(番)', '세(世)', '위(位)', '차(次)', '호(號)', '부(部)' 등이 있다. (82ㄱ,ㄴ)과 같이 '차(次)' 앞에 '제1, 제2' 등 서수관형사 혹은 '일, 이, 삼' 등 양수관형사와 결합하여 뒤에 오는 명사와 직접 결합할 수 있다. (83)은 '번째' 가 서수관형사와 결합하고 뒤에 오는 '문제, 조건, 질문, 특징, 이유, 방법' 등 명사의 순서를 나타내는 예시이다. (84)와 같이 순서나 차례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 '등(等)', '번(番)'도 격조사 없이 직접 명사 앞에 놓여 관형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82) ㄱ. 1911년,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 회담 시작했다. <#3913, 3급, 문어>

ㄴ. 그 일 차 시험에서 그가 집단을 열 명 정도 시험했어요. <#13869, 6급 이상, 구어>

(83) ㄱ. 경석은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한 무신의 딸 채연과 사귀었다. <#13736, 6급 이상, 문어>

ㄴ. 그 두 번째 방법은 효과가 정말 좋다. <#7759, 4급, 문어>

(84) ㄱ. 그래서 대학교 졸업한 후에 중국 국가 1등 배우가 됐다. <#19105, 6급, 문어>

ㄴ. 김철순 때문에 내가 일 급 끝나고 삼 등 상을 받았다. <#4898, 3급, 문어>

ㄷ. 학교에서 은행동까지 612번 버스로 갑니다. <#2998, 1급, 문

어>

ㄹ. 지하철 칠 번 출구 옆에 있어요. <#8306, 1급, 구어>

한 문장 안에서 '의'가 연속적으로 출현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의'를 생략하는 경향도 보인다. (85)와 같이 문장에서 수량사구 전체가 뒤에 오는 명사 '오용 정황'과 '관점'을 꾸며주고 있다. 이때 수량사구 내부에 위치하는 격 표시 '의'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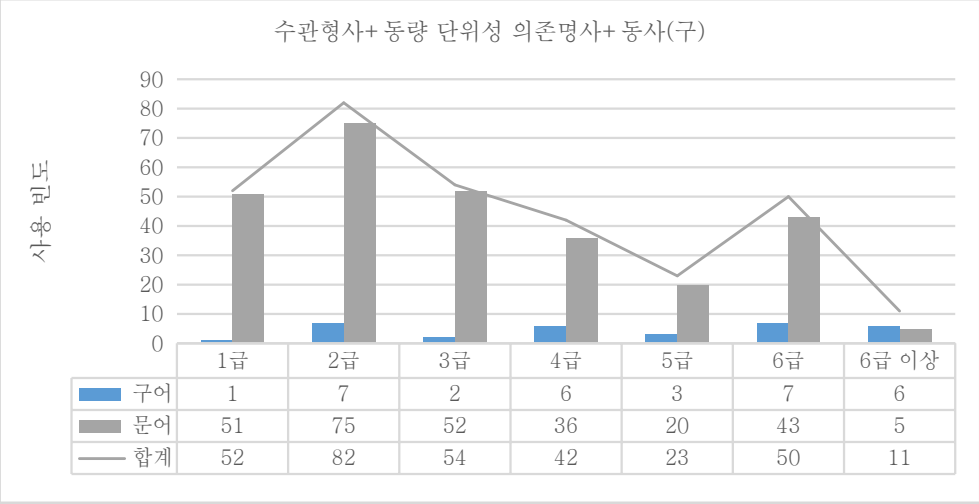
(85) ㄱ. 왕수창(王壽昌)의 <문장 부호의 몇 가지 오용>에서는 오용에 치중하여 중단, 쌍점, 인용 부호, 괄호, 줄표와 생략 부호 등 6가지 문장 부호의 오용 정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13691, 6급 이상, 문어>

ㄴ. 심리적 거리의 4가지 요소의 관점에서 볼 때... <#13697, 6급 이상, 문어>

2.2.2.4. '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동사(구)' 형의 결합 양상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가 포함한 수량사구는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두 가지 특수성이 있다. 첫째로 '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 구조가 뒤에 오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 기능을 행할 수 있다. 둘째로는 단순히 동사를 대상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 발생하는 횟수를 대상으로 하는 점이다. 각 숙달도의 학습자들이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해 수량사구를 이루는 빈도는 아래 <그림 16>에서 반영되고 있다.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은 다른 유형에 비해 용례 수가 많지 않았다. 2급 단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이 보였으며 6급 이상 단계의 사용 빈도는 가장 낮았다. 또한, 구체적인 사용 용례를 살펴보면 이 유형에 사용된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는 제한적이며 '번

(番)’(313어절)과 ‘바퀴’(1어절)의 사용만 수집되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6급 이상
구어	1	7	2	6	3	7	6
문어	51	75	52	36	20	43	5
합계	52	82	54	42	23	50	11

<그림 16> 숙달도에 따른 ‘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동사(구)’ 구성의 사용 빈도

①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동사

첫 번째 하위분류는 ‘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가 동사를 직접 수식하는 경우이다. 아래 (86)과 같이 비수식 대상이 뒤에 오는 동사가 아니라 그 동작이 발생하는 횟수이다.

(86) ㄱ. 하지만 기대하는 것을 많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용감히 몇 번 물어봤다. <#8722, 5급, 문어>

ㄴ. 힘들었던 시기가 없으면 행복을 느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원래 힘들었던 시기를 한 번 지나다가 지금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4967, 6급, 구어>

ㄷ. 그날 만난 후에 우리는 일주일 두 번 만나기로 했다. <#4528, 3급, 문어>

ㄹ. 일주일에 네 번쯤 갑니다. <#5043, 1급, 문어>

ㅁ. 하지만 주인아저씨 덕분에 3번쯤 먹었다. <#1394, 2급, 문어>

이 유형에서 아래 (87)과 같은 특수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어순으로 볼 때 앞부분이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조와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로 앞에 명사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명사와 뒤의 동사로 구성한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컨대 (87ㄱ)에서 '번'이 명사 '거래'를 수량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다' 이 동작의 횟수를 헤아린다. 마찬가지로 (87ㄴ)에서도 명사 '거짓말'의 수량을 세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치 않고 '거짓말을 하다' 이 동작이 발생하는 횟수를 세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87) ㄱ. 전에도 이런 거래를 몇 번 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이번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에서 사기를 당한 것을 아직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2828, 6급, 문어>

ㄴ.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한 아이가 체벌을 받지 않고서는 하다 보니 버릇이 될 수도 있다. <#2670, 5급, 문어>

ㄷ. 먼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아침밥을 잘 먹고 일주일에 요가를 한 번 하고 두 번 이상 조깅을 합니다. <#11766, 2급, 문어>

ㄹ. 그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지만 감옥도 몇 번 갔지만 마음이 순수했다. <#9118, 6급, 문어>

또한, 이 구조에서 수관형사가 '한', '1'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보통 그 수량이 1인 것을 기본적으로 나타내면서 '시도', '기회', '강조'의 의미로 쓰이게 된다. 아래 (88ㄱ)과 같이 수량사구가 '아/어보다' 구성과 통합하여 시도를 권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88ㄴ,ㄷ)도 똑같이 시도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88) ㄱ.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 방법을 한 번 해보세요. <#7741, 4급, 문어>

ㄴ.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가고 싶습니다. <#2561, 1급, 문어>

ㄷ. 제 고향에 가려면 맛있는 아침을 한 번 드셔야 합니다. <#2297, 1급, 문어>

또한, 앞에 언급했던 부정극어의 경우도 동량단위성 의존명사의 구조에서 실현될 수 있다. (89)에서 보듯이 '한 번'과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 사이에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못', '안'을 추가하거나 뒤에 '지 않다' 등을 연결하면 부정의 의미가 더욱 강화된다.

(89) ㄱ. 그래지만 한국에서 여행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2247, 1급, 문어>

ㄴ. 대서양 주는 예전에 책에 썼던 있는데 기술이 부족하니까 한 번도 안 봤다. <#9523, 6급, 문어>

ㄷ. 그런데, 우리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11132, 1급, 문어>

ㄹ. 저는 악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악기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10612, 3급, 문어>

②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동사구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가 문장에서 동작의 횟수를 나타낼 때 그 동작이 위와 같이 단순한 동사만일 수도 있으며 목적어를 가진 동사구일 수도 있다. 이 구조에서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 뒤에 연달아 오는 것은 명사이지만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명사' 구성과 달리 그 명사의 수를 헤아리지 않고 명사와 뒤에 동사가 같이 이루는 동사구가 표현하는 동작이나 사건의 횟수를 나타낸다.

(90) ㄱ. 아침에는 옷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무조건 달라고 해서 한 번씩 짜증이 날 때가 있었죠. <11534, 6급, 구어>

ㄴ. 몇 번이나 수능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과 가족은 그를 거의 포기하게 되었다. <#9068, 5급, 문어>

ㄷ. 요즘 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일주일에 2~3번 버스를 탔으면 좋겠다. <#1121, 4급, 문어>

ㄹ. 그래서 제가 일주일 한 번씩 계획을 세운다. <#9309, 4급, 문어>

(90ㄱ)을 예로 들자면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 '번' 뒤에 연결되는 것은 명사 '짜증' 이지만 수량화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짜증' 이 아니라 '짜증이 나다' 이 동작이다. 같은 의미로 (90ㄴ)에서도 '수능 시험' 의 차례나 수를 헤아리지 않고 '수능 시험을 보다' 라는 사건과 통합하는 것이다. 이 구성은 전술한 (87)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다. (87)은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를 동사구 중간에 놓은 것이며 (90)구성은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가 동사구 앞에서 부사어 기능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목적어를 수관형사 앞으로 옮기고 동사만 뒤에 남겨도 된다. 즉 (90ㄴ)에서 '몇 번이나 수능 시험을 봤다' 는 '수능 시험을 몇 번이나 봤다' 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부정극어의 구조는 동사구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다. (91ㄱ)와 같이 '번' 이 뒤에 오는 '사회 봉사활동을 하다' 의 횟수를 수식하게 되며 이 동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

(91) ㄱ. 나는 한 번도 사회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다. <#9491, 6급, 문어>

ㄴ. 그 후에 나는 한 번도 규칙을 어긴 적이 없었다. <#842, 2급, 문어>

Ⅳ.말뭉치에 나타난 단위성 의존명사 오류 분석

1. 오류의 판정 기준과 판정 방법

중국인 학습자가 단위성 의존명사를 습득할 때 어떠한 오류 양상이 보이는지 또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본고의 목적 중의 하나다. 오류의 원인을 밝히고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류를 정확하게 판별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류 분석 중에 가장 중요한 절차는 오류의 식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류를 식별할 때 정문과 비문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오류와 실수를 구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오류는 화자가 스스로 수정할 수 없는 반면에 실수는 화자가 잘못 발화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제임스 James, 1998:83).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학습자가 생산한 앞뒤 문맥을 결합해서 검토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실수라고 간주하며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27]. 또한, 오류는 체계적이고 한 학습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내거나 여러 학습자가 공통으로 나타낸다는 것도 구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학습자의 문맥을 컴토하여 같은 작문이나 발화에서 학습자가 바르게 쓰다가 한 번만 틀리게 쓰는 경우도 우연한 실수라고 보고 오류에서 배제하였다. 그리고 한 명의 학습자가 여러 번 틀린 경우, 같은 어절에서 같은 단위성 의존명사가 두 번 이상 틀린 경우는 한 번만 계산한다.

오류 판정의 또 다른 기준은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이다. 학습자가 생산한 문장이 목표어 맥락에서 수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총 다섯 명의 한국어 원어민 화자를 구해서 학습자 오류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27) 이러한 기준에서 삭제한 어절들은 아래 와 같이 예를 들 수 있다.
한 아 아홉 개월 구 개월 됐어요. <#4973, 6급, 구어>

판정하였다. 평가자는 총 3개의 척도(1-많이 어색하다; 2-약간 어색하다; 3-어색하지 않다)로 학습자가 생산한 오류문 433개에 대해 채점하였다. 다섯 명의 평가자 간의 일치성을 검정하기 위해 SPSS를 통해 Kendall 계수를 구해보았다. 검정결과 Kendall 계수[28] 가 0.409이므로 평가자가 내린 평가 결과 간에 비교적 높은 일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명의 평가자 중 절반 이상, 즉 3명 이상의 평가자가 '3 어색하지 않다' 라고 판정한 항목은 연구 대상에 제외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걸쳐 최종적으로 오류 양상의 분석 자료로 총 428어절의 오류문이 선정되었다.

<표 37> 평가자 간의 일치성 검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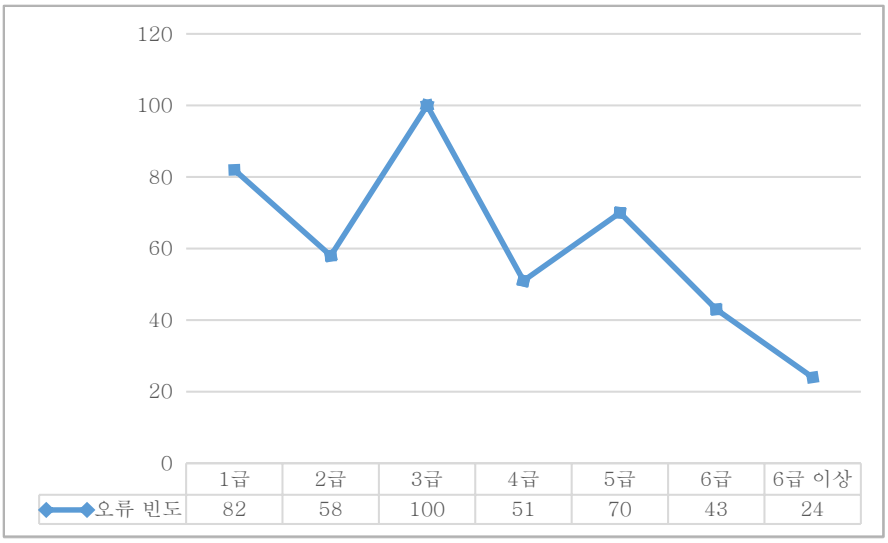
검정 통계량	
N	5
Kendall의 W[a]	.409
카이제곱	883.516
자유도	432
근사 유의확률	.000
a. Kendall의 일치도 계수	

2. 분석 자료의 통계치

2.1. 숙달도별 오류 빈도 및 오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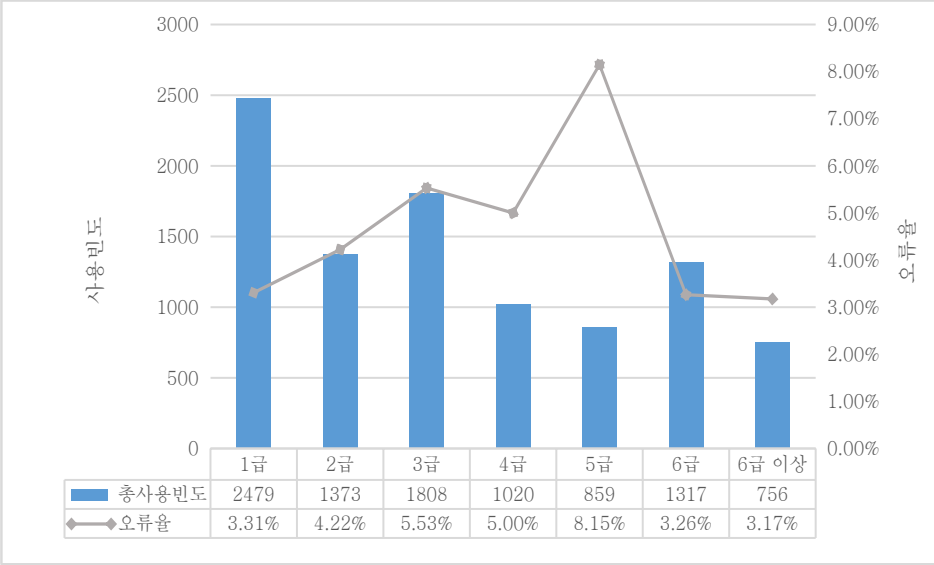
28) 일반적인 Kendall 계수의 판단 기준
<0.2: 일치성이 떨어지다; 0.2-0.4: 일치성이 보통이다; 0.4~0.6: 일치성이 중등이다; 0.6~0.8: 일치성이 강하다; 0.8~1.0: 일치성이 매우 강하다.>
즉 본고에서 5명의 평가자 간의 일치도가 0.409이므로 중등 수준인 일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학습자 말뭉치를 통해서 수집된 중국인 학습자의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어절 수는 총 9612어절(표본 수 3033개)에 달했다. 그중에서 앞 절의 판정과정을 거쳐 총 428개의 오류 어절이 발견되었으며 학습자의 단위성 의존명사 전체 오류율이 4.45%로 계산되었다.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의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이 숙달도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아 먼저 학습자 숙달도에 따른 오류율을 살펴보았다.



<그림 17> 숙달도에 따른 단위성 의존명사 오류 빈도

위 <그림 17>과 같이 각 학습자 숙달도에 따라 오류의 빈도 간 차이가 보이는데 빈도만 보았을 때 3급 학습자가 총 100개로 가장 많은 오류를 생산했다. 1급 학습자의 오류 빈도는 2위로 많으며 6급 이상 학습자의 오류빈도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각 숙달도에서 단위성 의존명사의 출현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류의 빈도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전체 사용 어절 수와 같이 보아 오류가 나타나는 확률을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림 18> 숙달도에 따른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빈도 및 오류율

위 <그림 18>과 같이 1급 학습자의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어절 수가 가장 많았으나 오류를 만드는 확률이 3.31%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학습자가 초급에서 단위성 의존명사를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며 학습을 통해서 용법을 잘 파악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5급 학습자의 사용 빈도가 모든 학습자 중에 가장 낮았지만, 오류율이 8.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에서 오류 빈도가 가장 많은 3급 학습자의 오류율은 5.53%로 2위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단위성 의존명사 오류율이 1급에서 3급까지 상승 추세가 보이며 4급에 잠깐 줄어들었다가 5급에 이르러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29] 이는 학습자가 고급에 올라갈수록 다양한 단위성 의존명사를 접하게 되면 단위성 의존명사의 의미와 용법도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단위성 의존명사의 교재 제

29) 각 수달도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표본(one sample)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아 각 숙달도 별의 오류율 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일표본 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오류율	6.888	6	.000	4.66286	3.0063	6.3194

시 양상과 결합해서 보면 초급 교재에서는 기초 단위성 의존명사를 다루고 있으나 이후 고급 단계에서는 교재 등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 또한 학습자가 고급에서 높은 오류율을 보여주는 원인으로 본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연구 유주명(2007)에서 고급에 올라갈수록 오류율이 낮아진다는 결론과 상반되었다. 하지만 유주명(2007)에서는 오류의 빈도만 계산하고 출현 빈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2.2. 단위성 의존명사 어원별 오류 빈도 및 오류율

단위성 의존명사가 속한 어원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 간에 과연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따라서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 외래어 의존명사 이 세 집단의 오류 빈도와 오류율을 구해보았다. 오류의 빈도만 보았을 때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에 있어 282개의 오류 어절이 발견되었으며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 빈도는 143개였다. 또한,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 집단에서 3개에 불과한 오류가 발생하였다.

<표 38> 어원별 오류 빈도와 오류율

어원	오류 빈도	사용 빈도	오류율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	282	2062	13.67%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	143	7508	1.90%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	3	42	7.14%

각 집단의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도출한 오류율을 보았을 때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율이 13.67%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율(7.14%)이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율(1.90%)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래는 어원에 따른 오류율 차이에 대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결과이다. 검증한 결과 F값이 3.207, p값이 0.048로 유의 수준($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표 39> 단위성 의존명사 어원별 오류율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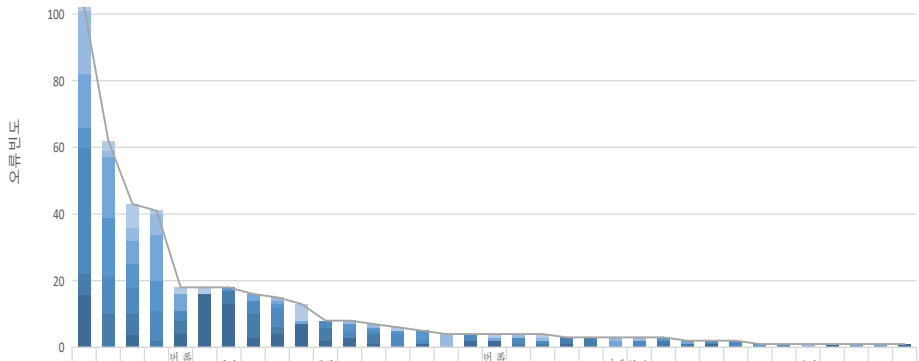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602	2	.301	3.207	.048
집단-내	5.253	56	.094		
전체	5.854	58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율이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율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 중 시간 관련 단위성 의존명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단위성 의존명사들은 사용빈도가 높지만 오류율이 낮다. 이에 비해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 중 '가지', '번째', '달', 등의 사용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지만 총 사용빈도가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보다 낮아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율이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율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2.3. 단위성 의존명사별 오류 빈도 및 오류율

다음으로는 각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 빈도와 오류율이 숙달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도 살펴보겠다. 아래 그림을 통해서 각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 빈도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名)'의 사용에서 현저하게 가장 많은 오류 빈도(102어절)가 보였으며 모든 숙달도에서 나타났다. 그다음 '가지'(62어절), '개(個)'(43어절),

‘번째’(41어절)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네 가지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 수는 전체 오류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단위성 의존명사 ‘시간(時間)’, ‘개월(個月)’, ‘권(卷)’ 등의 오류는 초급 단계까지만 보이고 고급 단계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에 ‘곡(曲)’, ‘퍼센트’에 오류는 고급 단계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각 숙달도 별의 분포 상황을 보면 1급, 2급, 3급에서 가장 다양한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에 오류가 보였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명名	가지	개個	번째	번番-횟수	시時	시간時間	달	월月	분分	개월個月	일日	년年	대臺	해	곡曲	마리	번番-차례	살	장張	권卷	통	퍼센트	학년學年	회回	분	세歲	원	곳	군데	년대年代	벌	위位	채	판板
6급이상	1	3	7	1	2	2	0	0	0	5	0	0	0	1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급	19	2	4	6	0	0	0	0	1	0	0	1	1	0	0	4	0	0	1	1	0	0	1	1	0	0	0	0	0	0	1	0	0	0	0
5급	16	18	7	14	5	0	0	2	1	1	0	0	0	0	0	0	0	1	0	0	0	0	2	0	0	1	0	0	0	0	0	0	1	1	0
4급	6	18	7	9	0	0	1	0	1	0	0	2	1	1	3	0	0	0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3급	38	11	8	9	3	0	0	4	6	0	2	2	1	4	1	0	2	0	2	1	0	0	0	2	0	0	1	2	0	1	0	0	0	0	0
2급	6	10	6	2	4	0	4	7	2	0	4	0	3	0	0	0	0	0	1	1	2	3	0	0	2	1	0	0	0	0	0	0	0	0	0
1급	16	0	4	0	4	16	13	3	4	7	2	3	1	0	1	0	2	2	0	0	1	0	0	0	0	0	1	0	0	0	0	1	0	0	1
합계	102	62	43	41	18	18	18	16	15	13	8	8	7	6	5	4	4	4	4	4	3	3	3	3	3	2	2	2	1	1	1	1	1	1	1

<그림 19> 단위성 의존명사별 오류 빈도

오류가 나타난 이 35개의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 빈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단일표본(one sample) T-검정을 돌려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표 40>과 같이 유의확률이 0.001로 나타나 각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 빈도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0> 단위성 의존명사별 오류 빈도 차이 분석

일표본 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오류 빈도	3.482	35	.001	11.88889	4.9577	18.8201

이상으로 각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 빈도를 비교해 보았다. 그러나 오류의 빈도는 해당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빈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사용 빈도가 높은 단위성 의존명사에는 오류도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각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 빈도와 비교하여 오류율을 도출해 봐야 한다. 아래 <표 41>은 단위성 의존명사들을 총 사용 빈도순으로 나열하고 각각의 오류 빈도와 오류율을 정리한 결과이다. 이 표를 살펴보면 앞에 사용 빈도만 보았을 때 오류 수가 많이 나타난 '명(名)' (18.99%), '가지' (8.59%), '개(個)' (12.98%), '번째' (7.96%)는 오류율도 높게 나타났다. 사용 빈도가 높지만, 오류율이 낮은 단위성 의존명사는 '년(年)' (0.42%), '시(時)' (1.20%), '월(月)' (2.09%), '일(日)' (1.12%), '분(分)' (3.22%), '개월(個月)' (2.55%), '살' (1.28%) 등이 있다. 이 들이 모두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시간과 관련된 단위성 의존명사들인데 학습자가 이 들을 배울 때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사용 빈도가 낮지만 제한된 사용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많이 나타나 높은 오류율을 보여준 단위성 의존명사는 '장(張)' (21.05%), '권(卷)' (21.43%), '마리' (18.18%), '대(臺)' (54.55%), '해' (83.33%) 등이 있다.

<표 41> 단위성 의존명사별 사용 빈도 및 오류율

단위성 의존명사	오류 빈도	사용 빈도	오류율	단위성 의존명사	오류 빈도	사용 빈도	오류율
년(年)	7	1670	0.42%	점(點)	0	13	0.00%

시(時)	18	1494	1.20%	편(篇)	0	13	0.00%
가지	62	722	8.59%	대(臺)	6	11	54.55%
월(月)	15	717	2.09%	건(件)	0	10	0.00%
일(日)	8	713	1.12%	미터	0	9	0.00%
명(名)	102	537	18.99%	초(秒)	0	9	0.00%
번째	41	515	7.96%	주년(周年)	0	8	0.00%
번(番횟수)	20	446	4.48%	벌	1	7	14.29%
분(分)	13	404	3.22%	해	5	6	83.33%
개(個)	47	362	12.98%	조(條)	0	5	0.00%
개월(個月)	8	314	2.55%	곡(曲)	4	4	100.00%
살	4	313	1.28%	달러	0	4	0.00%
달	16	259	6.18%	등(等)	0	4	0.00%
시간(時間)	18	221	8.14%	리(里)	0	4	0.00%
원	2	192	1.04%	호(號)	0	4	0.00%
대(代)	0	145	0.00%	개국(個國)	0	3	0.00%
번(番차례)	2	64	3.13%	통	3	3	100.00%
년대(年代)	1	60	1.67%	평(坪)	0	3	0.00%
위(位)	1	60	1.67%	학년(學年)	3	3	100.00%
세(歲)	2	58	3.45%	군데	1	2	50.00%
주(週)	0	39	0.00%	킬로미터	0	2	0.00%
차(次)	0	37	0.00%	곳	1	1	100.00%
퍼센트	3	26	11.54%	교시(校時)	0	1	0.00%
마리	4	22	18.18%	그루	0	1	0.00%
주일(週日)	0	22	0.00%	년도(年度)	0	1	0.00%
장(張)	4	19	21.05%	도(度)	0	1	0.00%
분	2	17	11.76%	바퀴	0	1	0.00%
회(回)	3	16	18.75%	센티미터	0	1	0.00%
권(卷)	3	14	21.43%	채	1	1	100.00%
				판(板)	1	1	100.00%

각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율 간의 차이는 해당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빈도, 습득 순서, 교재 출현 빈도 등과 관련이 있다. 이정은(2013), 류허란(2020) 등 선행연구에서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단위성 의존명사의 빈도를 단계별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서 대부분의 초급 교재에서 단위성 의존명사가 집중적으로 많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재마다 단위성 의존명사의 출현 빈도가 다르지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시간관 관련된 '년(年)', '시(時)', '월(月)', 화폐 단위인 '원', 차례를 나타내는 '번(番)', 개체 수량을 표시하는 '개(個)', '명(名)', '장(張)' 등이 있다. <표 41>에서 교재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단위성 의존명사 중 '개(個)', '명(名)', '장(張)'을 제외하면 다 낮은 오류율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개(個)', '명(名)', '장(張)' 등을 반복해서 접하지만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주로 중·고 급 교재에서 제시되고 출현 빈도도 비교적 낮은 단위성 의존명사 '곳', '채', '곡(曲)', '회(回)' 등에 높은 오류율이 보였다.

2.4. 수량사구 유형별 오류 빈도 및 오류율

단위성 의존명사는 단독적으로 쓰이지 못하며 수관형사와 같이 뒤에 오는 명사 혹은 동사와 결합하여 수량사구를 이룬다. Ⅲ장에서 수량사구를 총 4가지 큰 유형과 8가지 하위 유형으로 세분하여 그의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큰 유형에 따른 오류 빈도와 오류율은 아래 <표 4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류 빈도만 보았을 때 명사가 통합되지 않는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성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나타났으며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로 이루는 구조에서 가장 적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전체 사용 어절 수를 고려하면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유형이 17.55%의 높은 오류율로 계산되었다. 오류 빈도가 가장 많은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성은 높은 사용 빈도와 비교해 오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4가지 수량사구 유형 중에 명사가 후행하는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조를 구성할 때 정확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표 42> 수량사구 유형별 오류 빈도 및 오류율

수량수구 유형	오류 빈도	사용 빈도	오류율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199	7653	2.60%
명사+(조사)+수관형사+ 단위성 의존명사	35	596	5.87%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182	1037	17.55%
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동사(구)	12	326	3.68%
합계	428	9612	4.45%

이어서 각 수량사구 유형별의 오류율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644는 0.05보다 크기 때문에 각 수량사구 유형의 오류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43> 수량사구 유형별 오류율 차이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009	3	.003	.609	.644
집단-내	.019	4	.005		
전체	.027	7			

수량사구 유형에 따른 오류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해 수량사구를 구성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유형 중에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구성은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 장르별 오류 빈도 및 오류율

본고에서 수집된 말뭉치 자료의 장르 유형은 총 17가지가 있다. Ⅲ장에서 사용했던 분류 방법으로 장르를 재분류하고 각 유형의 오류 빈도

및 오류율을 도출하면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장르 유형에 따른 오류 빈도 및 오류율

장르 분류		장르 유형	오류 빈도	사용 빈도	오류율
구어		내러티브	2	21	9.52%
		대화	12	107	11.21%
		발표	47	439	10.71%
		인터뷰	14	357	3.92%
		합계	75	924	8.12%
문어	정보 전달의 글	설명문	68	1206	5.64%
		기사문	19	411	4.62%
		보고서	15	712	2.11%
		소개문	0	3	0.00%
		안내문	0	175	0.00%
		합계	102	2507	4.07%
	정서・감정 표현의 글	감상문	0	11	0.00%
		기행문	4	96	4.17%
		수필	10	191	5.24%
		편지글	2	56	3.57%
		생활문	185	4780	3.87%
		합계	201	5134	3.92%
	주장의 글	광고문	0	11	0.00%
		논설문	38	834	4.56%
		평전	12	202	5.94%
		합계	50	1047	4.78%

우선 구어 장르의 오류부터 보면 발표 장르에서 가장 많은 오류(47어절)가 발생하였으나 오류율은 10.71%로 대화 장르(11.21%)보다 낮았다. 인터뷰 장르에서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 빈도가 높았지만, 오류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발표 장르에서 오류가 많아 발생한 것은 앞선 진행한 장르별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양상 분석 결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발표 장르에서는 다른 장르와 다르게 '명(名)', '가지', '번째'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은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단위성 의존명사들이다. 그러므로 발표 장르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그 다음 구어 장르 중에 <표 44>와 같이 ‘감상문’, ‘광고문’, ‘소개문’, ‘안내문’의 네 가지 장르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서·감정 표현의 글’ 장르에서 오류가 201번 나타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선 오류의 출현 횟수만 고려할 때 ‘생활문’에서 총 185어절의 오류가 발생하여 압도적으로 일 위를 차지하였다. ‘내러티브’와 ‘편지글’에서 각각 2번씩 오류가 나타났다. ‘주장의 글’에서 오류 수가 적었으나 오류율을 살펴보면 세 가지 문어 장르 유형 중에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여주었다.

위에서 언급한 장르 유형에 따른 오류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밝히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에서 반영하듯이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확률이 0.03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장르에 따른 오류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표 45> 장르 유형별 오류율 차이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009	3	.003	4.095	.030
집단-내	.010	13	.001		
전체	.019	16			

이상과 같이, 학습자의 단위성 의존명사 오류율의 숙달도별, 어원별, 단위성 의존명사별, 수량사구 유형별, 장르별 등 5가지 측면에서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수량사구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측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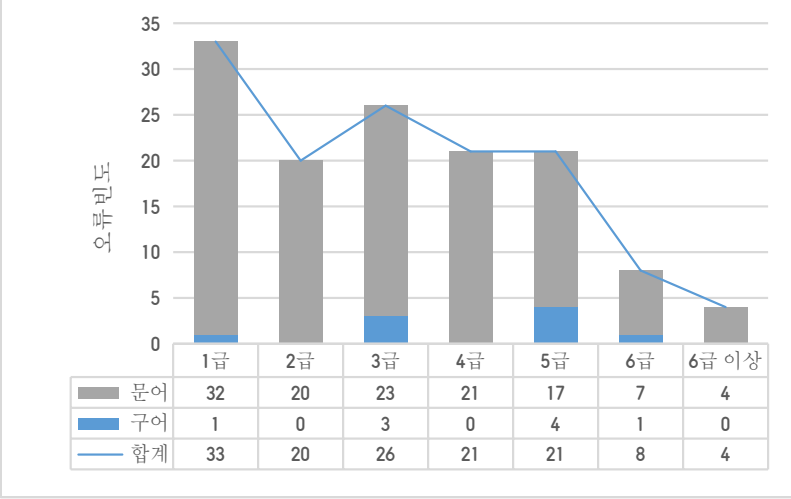
3. 오류 양상 및 원인 분석

3.1. 오류 양상 분석

3.1.1. 의미적 오류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단위성 의존명사는 대상 명사의 단위를 나타내는 동시에 명사가 가진 의지 자질과 호응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위성 의존명사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파악하여 적절하지 않은 명사와 연결하면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학습자 말뭉치에서 수집된 의미적 오류는 총 133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 <그림 2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의미적 오류를 생산한 학습자는 1급 학습자였다. 전체적으로 대개 고급에 올라갈수록 오류 빈도가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6급 이상
문어	32	20	23	21	17	7	4
구어	1	0	3	0	4	1	0
합계	33	20	26	21	21	8	4

<그림 20> 숙달도에 따른 의미적 오류 빈도

의미적 오류의 전형적인 표현은 특정 단위성 의존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의미 관계가 맞지 않은 단위성 의존명사로 대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의 출현 빈도 및 대치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6>과 같다. 대치 오류로 표현된 의미적 오류 중에 '개(個)'에 관한 오류가 총 55개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 다른 단위성 의존명사를 써야 할 자리에 '개(個'

를 사용하는 용례는 51개, ‘개(個)’를 써야 할 자리에 다른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한 용례는 5개가 발견되었다. 그다음에 ‘시간(時間)-시(時)’ 상호 대치 오류 (31개), ‘개월(個月)-월(月)-달’ 세 개의 대치 오류(7개), ‘번(番)-번째’의 상호 대치하는 오류(7개), ‘년(年)-학년(學年)/해’의 대치 오류(8개)가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의미적 오류-대치형의 빈도 통계표

목표형태	오류형태	오류 빈도	합계
가지	개(個)	25	51
곡(曲)		4	
명(名)		4	
번(횟수)		4	
통		3	
대(臺)		2	
마리		1	
개월(個月)		1	
곳		1	
군데		1	
벌		1	
판(板)		1	
장(張)		1	
월(月)		1	
채		1	
개(個)	대(臺)	1	1
대(臺)	장(張)	4	5
		1	
시간(時間)	시(時)	18	31
시(時)	시간(時間)	13	
달	월(月)	3	7
월(月)	달	1	
개월(個月)	월(月)	3	
학년(學年)	년(年)	3	8
해		5	
번째	번(番)	5	7
번(番)	번째	2	

우선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개(個)' 의 의미적 오류 양상부터 보겠다. 보통 하나의 단위성 의존명사는 특정한 성상을 가진 몇 개 심지어 한 개의 명사와 호응 관계를 이룬다. 이에 비해 '개(個)' 는 다양한 부류의 명사들과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개(個)' 를 '일반 분류사' 나 '중립 분류사' 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단위성 의존명사에 비해 널리 쓰인다고 하더라도 그 쓰임에 있어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채완(1996:209)의 '개' 의 의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분류사 '개(個)' 의 가장 기본적인 선택 조건을 '고정된 형태를 갖춘 개체' 라고 총괄하며, 구체적으로 생물(사람/동물/식물), 행위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사건명사, 자연현상, 초자연현상에서 제약된다고 한다. 또한 '개(個)' 를 선택하는 조건은 명사 자체의 의미 자질보다는 화용론적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 예컨대 '냉면' 은 셀 수 없는 명사지만 구어에서 '냉면 한 개' 라는 것은 그것이 담긴 용기(그릇)를 세는 형식으로 볼 수 있다. '개(個)' 가 한국어에 가장 널리 쓰이는 단위성 의존명사로서 그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개(個)' 의 결합 제약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47>과 같다.

<표 47> 단위성 의존명사 '개(個)' 의 결합 제약(오상룡:1994, 채완:1999, 서원:2010참조)

<table>
<tr><th></th><th colspan="2">개(個) ×</th><th>개(個) ○</th></tr>
<tr><td rowspan="5">생물</td><td colspan="2" rowspan="2">사람</td><td>인체 일부(눈, 손가락, 발가락, 이, 점, 사마귀, 여드름...)</td></tr>
<tr><td>판매를 위해 잘라 놓은 부분(족발, 달걀, 꼬리...)</td></tr>
<tr><td colspan="2" rowspan="2">동물(강아지, 고양이, 소, 물고기...)</td><td>해양 생물(조개, 석화, 소라류...)</td></tr>
<tr><td rowspan="2">식물</td><td>식물전체</td><td>뿌리/뿌리처럼 변한 줄기(감자, 고구마, 양파...)</td></tr>
<tr><td>씨앗(쌀, 녹두,...)</td><td>열매(사과, 오이, 호두, 은행...)</td></tr>
</table>

			말린 열매(곶감, 건포도...)
행 위 명사	씨름, 싸움, 등산, 노래 ...		
추 상 명사	희망, 생각, 사랑 ...		
사 물 명사	석탄, 물...		일정한 그릇에 담긴 음식(공기밥, 냉수, 우유, 커피, 곰탕, 매운탕, 냉면...)
	의류 (옷감, 옷, 원피스, 블라우스, 치마, 저고리...)		모자
			도구와 기구 (못, 망치, 칼, 가위, 핀, 열쇠, 자물쇠...)
	기계(비행기, 자동차, 컴퓨터, 자동차, 재봉틀, 선풍기...)		한 손에 잡힐 정도의 크기 (전기 면도기, 헤어 드라이어...)
사 건 명사	사고, 사건, 화재...		
자 연 현상	하늘, 번개, 바람, 비...		
초 자 연 현 상	천국, 지옥, 저승, 신, 귀신, 유령...		

아래는 학습자가 다른 구체적인 단위성 의존명사를 써야 할 자리에 '개(個)'를 사용한 대치 오류의 예들이다.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 '개(個)'는 사람과 결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물성을 띤 명사와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이에 반해 중국어 양사 '個(개)'는 사람을 수식할 수 있는 데에 반해, 오류문 (1ㄱ,ㄴ,ㄷ)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초급 학습자가 '사람', '친구', '딸'에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개(個)'로 세는 오류들이 종종 보인다. 또한 (2ㄱ,ㄴ)처럼 더 세분된 단위성 의존명사가 사용되어야 할 자리에 학습자가 모국어의 결합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수박 한 개’, ‘피자 한 개’와 같은 표현을 구사하였다. (3)과 (4)는 중국어에도 없는 표현이지만 학습자들이 ‘개(個)’가 많은 명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규칙을 적용하면서 과잉 사용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ㄱ. 모두 여섯 개 사람(√여섯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3065, 3급, 문어>
ㄴ. 한국 친구 한 개(√명) 있어요. <#4582, 1급, 문어>
ㄷ. 이 책은 영국 19세기 초기에 한 가족의 5개(√명) 딸의 애정관 이야기다. <#8456, 4급, 문어>

(2) ㄱ. 한국에서 수박 한 개(√통) 아마 만 원쯤이다. <#1401, 2급, 문어>
ㄴ. 피자 한 개(√판)는 만원이에요. <#9035, 1급, 문어>

(3) ㄱ. 저는 네 개 강아지 (√네 마리의 강아지)를 키울 준비이다. <#5429, 3급, 문어>
ㄴ. 그 자수 천 위에 곰 두 개(√마리) 수놓고 있고 진짜 예쁘다. <#3949, 3급, 문어>

(4) ㄱ. 그래서 저는 티셔츠 열 개(√벌)를 사고 싶습니다. <#6133, 1급, 문어>
ㄴ. 그리고 책상 위에 노트북이 2개(√2대) 있고 화장품, 책, 거울 등이 있다. <#255, 3급, 문어>
ㄷ. 김철순은 일주일 동안 화사에서 잤고 라면을 먹고 노래 50개를 만들었다.

다음은 ‘개(個)’가 추상명사와 결합하는 오류들이다. (5.ㄱㄴㄷ)에서 이유, 기술, 조건 등 추상명사는 중국어와 달리 ‘개(個)’와 결합하지 않으며 종류를 강조할 때는 ‘가지’와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모국어로부터 간섭을 받아 중국식 표현인 ‘가지’

를 ‘개’로 통합하는 오류를 생산하였다.

(5) ㄱ. 큰 이유가 두 개(√가지)만 있다. <#9168, 5급, 문어>
ㄴ. 아기가 크면 나는 기술을 한 개(√가지)만 배우고 싶어요. <#11530, 3급, 구어>
ㄷ. 많은 조건 주에서 두 개(√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5217, 4급, 문어>

다음은 수량 단위성 의존명사 ‘개(個)’가 동량 단위성 의존명사 ‘번(番)’을 대치하는 예시이다. 3장에서 다루었듯이 ‘번(番)’은 동사 혹은 동사구와 결합하며 그 동작이나 사건의 횟수를 헤아리는 단위이다. (6ㄱ)에서 학습자가 ‘개(個)’를 사용한 것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에는 ‘챔피언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건으로 간주하여 ‘번(番)’으로 셀 수도 있지만, 챔피언을 대표하는 금메달의 개수를 세는 의미에서 가산명사로 보아 ‘개(個)’로 세기도 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챔피언을 받다’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메달의 개수를 헤아린다는 뜻으로 ‘개(個)’를 오용하였다. (6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1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의 개체로 보아 ‘개(個)’로 셌는데 실제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10년’이라는 기간이 반복되는 횟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번(番)’을 사용했어야 한다. 이러한 화용적인 의미 차이뿐만 아니라 ‘10년’은 형체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개(個)’와의 결합이 어렵다.

(6) ㄱ. 등아평의 일생 중에 챔피언을 18개(√번) 받았다. <#3094, 3급, 문어>
ㄴ. 삶의 시간표 중에 10년이 몇 개(√ 번) 있는지 누구도 말할 수 없다. <#5296, 3급, 문어>

반대로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일반 단위성 의존명사 '개(個)'를 다른 단위성 의존 명사로 대치하는 오류를 야기는 경우도 있다. 아래 (7)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 양사의 결합 관계를 한국어에 적용하여 오류를 생산한 예들이다. 우선 (7ㄱ,ㄴ)은 '개(個)'를 써야 할 자리를 '장(張)'으로 대치하는 경우이다. 단위성 의존명사 중에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국어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들도 있지만 한국어에 차용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변형되어 사용되는 것들도 있다. 중국어의 양사 '張(장)'은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 '장(張)'과 똑같이 종이나 사진과 같은 얇고 넓적한 물건을 셀 때 사용된다. 하지만 그 외에도 책상, 식탁, 침대 등을 세는 단위가 되어 一张桌子 (*책상 한 장), 一张饭桌(*식탁 한 장), 一张床(*침대 한 장)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한국어에는 이에 대응하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따로 없으며 모두 '개'로 헤아릴 수 있다. 학습자가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할 때 모국어와의 의미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7) ㄱ. 문 앞에 창문이 있고 양쪽에 <u>둘 장 침대</u>(√침대 두 개)와 <u>둘 장 책상</u>(√책상 두 개)이 있다. <#3480, 4급, 문어>
ㄴ. 우리 기숙사에서 <u>책상 네 장이</u>(√책상 네 개가) 있고 침대도 <u>네 장</u>(√네 개)가 있다. <#3064, 3급, 문어>

의미적 오류 중에 또 유형화할 만한 부분은 의미가 유사한 두 개 혹은 세 개의 단위성 의존명사를 혼동하여 발생한 오류들이다.

(8) ㄱ. <u>1월</u>(√개월) 동안 한국말을 배웠어요. <#246, 1급, 문어>
ㄴ. 저는 <u>4월</u>(√개월)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1930, 2급, 문어>
ㄷ. <u>9시간</u>(√시)부터 <u>11시간</u>(√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u>11시간</u>(√시) 30분에 밥을 먹습니다. <#2993, 1급, 문어>

ㄹ.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면 두 시(√시간)쯤 걸려요. <#2324, 1급, 문어>

위 예문(8)은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끼리 발생하는 대치 오류인데 이는 3장에서 다뤘던 양수 표현과 서수 표현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월(月)/개월(個月)', '시(時)/시간(時間)' 이 두 쌍의 단위성 의존명사는 모두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지만, 각각 포함하는 의미는 다르다. '시(時)', '월(月)'은 서수적인 의미를 가지며 흐르는 시간 속의 어느 시점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시간(時間)'과 '개월(個月)'은 양수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그에 해당되는 일정한 시간의 길이를 헤아린다. 이렇게 학습자가 의미, 형태가 유사한 두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할 때 두 어휘 간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유사 어휘 간의 의미상, 사용상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신장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의미적 오류 중에 적합하지 않은 단위성 의존명사로 대치하는 사례를 통하여 원인을 분석하였다. 학습자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두 가지 오류를 보이는데, 먼저 실현되어야 할 자리에 통합할 수 없는 다른 단위성 의존명사로 대치하는 대치 오류와 실현되지 않아야 할 자리에 잘못 추가하는 첨가 오류가 바로 그러한 오류이다. 두 번째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가지'의 첨가 오류가 있다.

'가지'와 관형사 '여러'의 결합은 하나의 합성명사가 될 정도로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다. '여러 가지'는 종류가 한둘이 아니고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뒤에 오는 명사를 종류로 나눌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없다. 즉 '상품', '음식', '복장' 등 명사는 다양한 종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 '여러 가지 음식', '여러 가지 복장'이라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종류로 세분할 수 없는 명사는 이 구조를 사용할 수 없다. 아래 오류문 (9ㄱ,ㄴ)과 같이 '나라', '곳'은 종류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가지'를 사용하지 못하며

단지 관형사 '여러'와 결합하여 그 수가 많다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9ㄷ)의 경우는 뒤에 오는 명사가 '종류'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려면 '가지'를 첨가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9) ㄱ. 다큐멘터리를 여러 가지 나라(√여러 나라)의 문화, 인문과 역사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험을 쌓을 수 있다. <#984, 3급, 문어>

ㄴ. 바다에 여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곳(√여러 곳)에 갔다. <#1806,3급, 문어>

ㄷ.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식집에서 아르바이트했는데 여러 가지 종류(√여러 종류)의 손님을 봤다. <#11318, 2급, 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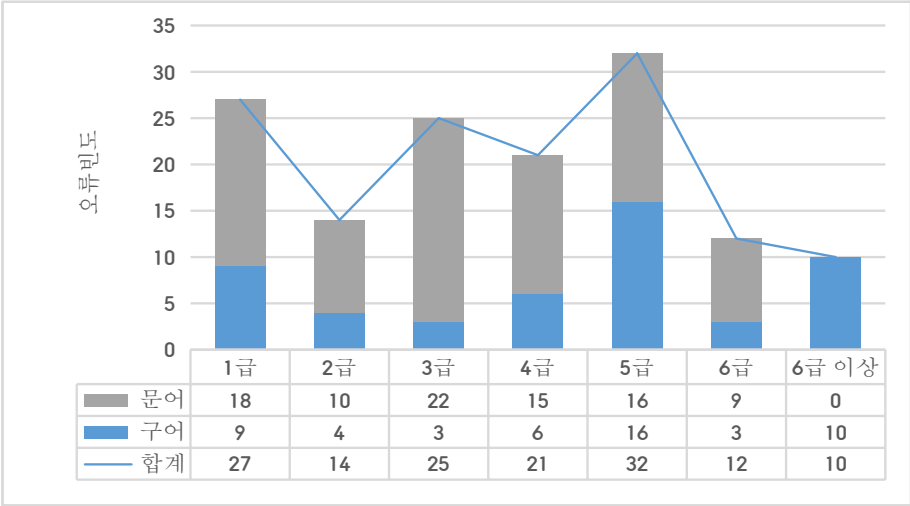
이상으로 단위성 의존명사의 의미적 오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시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의미적 오류는 학습자의 모국어로부터 영향을 받아 나타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한테 단위성 의존명사를 교육할 때 학습자의 모국어를 잘 활용하여 두 언어 간의 의미 차이를 조명하면 학습자가 더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個)'의 과잉 사용, '월(月)-개월(個月)' 등 유사한 단위성 의존명사 간의 대치, '가지'의 첨가는 목표어인 한국어의 복잡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단위성 의존명사는 학습자한테 한 번에 많은 규칙을 알려주는 것보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깨달을 수 있게 많은 예문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연습을 통하여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3.1.2. 형태적 오류

대부분의 형태적 오류는 학습자의 발음 혹은 음운 인식 오류에서 기인한다. 학습자가 모국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은 발음이다. 모국어의 음운 체계는 목표 언어를 말할 때뿐만 아니라 철자까지 오류를 일

으킨다. 이 절에서 학습자 구어에서 나타난 발음 오류와 문어에서 나타난 철자 오류를 같이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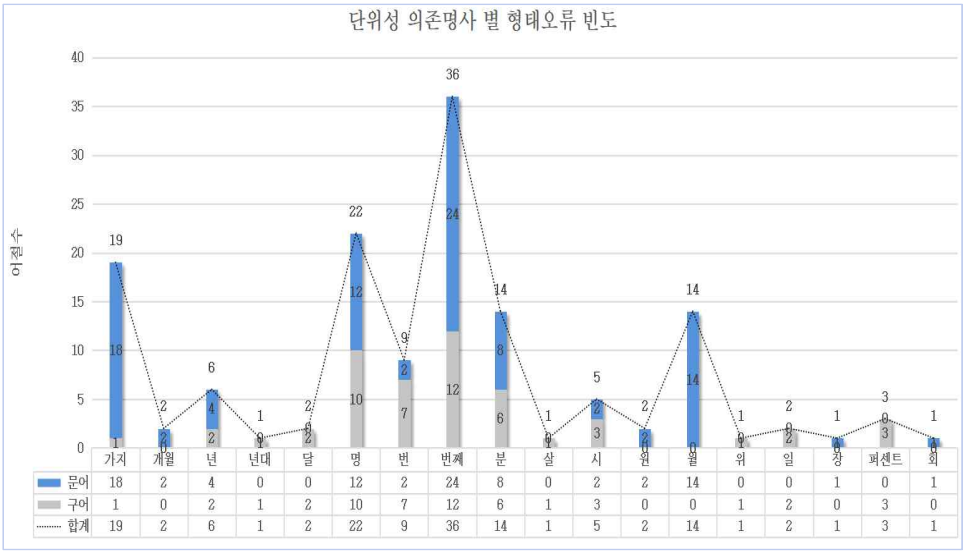
학습자 말뭉치 자료로 수집한 오류에 형태적 오류는 총 141개이며 구어 오류는 51개, 문어 오류는 90개를 차지한다. 또한, 숙달도별로 보았을 때 아래 <그림 21>과 같이 5급에서 가장 많은 형태적 오류가 보이며 6급과 6급 이상에서 가장 적은 오류를 나타냈다. 문어적 철자 오류는 3급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6급 이상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구어 발음 오류의 양상은 문어와 다르며 5급 학습자에 의한 오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3급과 6급 학습자의 오류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6급 이상
문어	18	10	22	15	16	9	0
구어	9	4	3	6	16	3	10
합계	27	14	25	21	32	12	10

<그림 21> 숙달도에 따른 형태적 오류 빈도

발음이나 철자에서의 오류는 모든 단위성 의존명사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위성 의존명사에 많이 몰려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아래 <그림 22>에서 알 수 있듯이 '번째'의 사용에 있어서 문어 24개, 구어 12개 총 36개로 가장 많은 오류 빈도가 보이며 그 다음은 명(名)(22회), 가지(19회), 분(分)(14회), 월(月)(14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지	개월	년	년대	달	명	번	번째	분	살	시	원	월	위	일	장	퍼센트	회
문어	18	2	4	0	0	12	2	24	8	0	2	2	14	0	0	1	0	1
구어	1	0	2	1	2	10	7	12	6	1	3	0	0	1	2	0	3	0
합계	19	2	6	1	2	22	9	36	14	1	5	2	14	1	2	1	3	1

<그림 22> 단위성 의존명사별 형태오류 빈도

다음은 이러한 오류들이 왜 이 단위성 의존명사들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인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서 알아볼 것이다. 우선 가장 많은 오류가 나타나는 '번째'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이를 구성하는 '번'과 '째'가 모두 중국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0) ㄱ. 첫 뻔(√번)째, 학교 원인이다. <#333, 5급, 문어>

ㄴ. 첫 뻔(√번)째는 입시 교육만 중시하면 학생들이 점수만 인생을 좌우하는 생각은 많아질 수 있다. <#337, 5급, 문어>

ㄷ. 첫 번제(√번째)는 연애결혼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생활해서 매우 행복하다고 생각하다. <#4848, 3급, 문어>

ㄹ. 두 번제(√번째), 사람들이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도 크다. <#4553, 3급, 문어>

ㅁ. 첫 뻔체(√번째)는 장애인을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생활에서 어려움이 많다. <#566, 4급, 문어>

우선 (10ㄱ,ㄴ)과 같은 경우는 '첫' 의 종성 때문에 발음할 때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학습자가 '번' 의 형태를 숙지하지 않아 발음대로 적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일으킨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경음화란 파열음 /ㄱ,ㄷ,ㅂ/에 뒤따르는 소리가 경음(된소리)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11ㄷ,ㄹ)과 같은 오류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자주 하는 오류인데 또한 (11ㅁ)은 앞에 언급한 두 가지 오류를 포함한 복합적 예이다.

한국어와 중국어 자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음 방법이다. 한국어의 장애음은 '평음, 경음, 격음' 의 삼원 체계를 가지는 데에 비해 중국어 성모는 '무기/유기' 의 2원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어의 격음이 중국어의 유기음과 대응 관계를 맞을 수 있으나 평음/ 경음이 중국어 무기음은 일대일 대응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자가 '평음/격음/경음' 의 인식과 구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은 구어와 문어에서 모두 드러난다.

(12) ㄱ. 오후 네 씨(√시) 부터 오후 여덟 씨(√시) 까지 쇼핑을 합니다. <#1655, 1급, 문어>

ㄴ. 책장에 여러 까지(√가지) 중국 소설이 있고 한국과 일본어의 사전도 많이 있다. <#105, 5급, 문어>

ㄷ. 두 까지(√가지)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265, 5급, 문어>

한국어와 중국어 자음의 두 번째 차이점은 한국어의 종성 위치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 7개의 자음이 실현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의 경우 종성에 올 수 있는 음소는 오직 /n, ŋ/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중국어에 없는 /ㄱ, ㄷ, ㄹ, ㅁ, ㅂ/을 중국어에 있는 종성으로 발음하거나 아예 종성을 생략하는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아래 오류문 (13)은 이러한 차이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에서의 오류들은 한국어의 없는 종성/ㄹ/를 중국어에 있는 /ㄴ/로 바꾸는 경우이며 (14)는 종성을 생략하는 경우이다.

(13) ㄱ. 내가 한국에 온 지 7 개원(√개월)이 되었다. <#1529, 3급, 문어>
ㄴ. 나는 한국에 6개원(√개월)동안 살았다.<#1825, 3급, 문어>
ㄷ. 작년 9원(√월>에 한국에 처음 왔다. <$8359, 4급, 문어>
ㄹ. 저는 1990년 2원(√월) 베이징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성장했습니다. <#210, 5급, 문어>
ㅁ. 그래서 매월 이십팔만 월(√원)이 진짜 비싸다. <#1674, 3급, 문어>
(14) ㄱ. 음력 팔월 십오 이(√일)입니다. <#8292, 4급, 구어>
ㄴ. 중국에서 열 사(√살) 때 큰 행사 해요. <#8932, 2급, 구어>

한국어의 유사한 모음 때문에 학습자가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 (15)는 학습자가 모음 /ㅗ/, /ㅜ/, /ㅓ/를 혼동하여 나타나는 오류다. /ㅗ/, /ㅜ/, /ㅓ/이 세 모음을 발음뿐만 아니라 형태에도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흔히 오류를 범하는 모음이다.

(15) ㄱ. 걸어서 가면 5본(√분) 걸린다. <#1527, 5급, 문어>
ㄴ. 저는 주말에 보통 11시 30번(√분)에 잠을 자요. <#1093, 1급, 문어>

또한, 두 언어의 음절 구조 차이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아래 (16), (17)은 이러한 음절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어의 음절 구조에 '영, 연, 엉, 언' 등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들을 감지 또는 발음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아래 예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학습자는 '명(名)', '년(年)' 등을 적거나 발음할 때 이 음절들을 혼용하는 양

상이 보인다.

(16) ㄱ. 15녕(√년) 전부터 컴퓨터를 좋아했습니다. <#154, 2급, 문어>
ㄴ. 그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는 벌써 못 본 지 육 녕(√년) 이 되었습니다. <#13666, 3급, 구어>

(17) ㄱ. 저는 가죽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하고 저 무도 4 면(√명) 있어요. <#244, 1급, 문어>
ㄴ. 저는 한국 친구가 한 멈(√명) 있어요. <#246, 1급, 문어>
ㄷ. 한국에서 친구 한 면(√명) 있습니다. <#1885, 2급, 문어>

위해서 살펴본 단위성 의존명사의 형태적 오류를 아래 <표 48>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가 모국어 음운 체계의 간섭 받아 평음, 격음 경음의 구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중국어에 없는 발음이나 음절로 인해 형태적 오류가 발생한다. 발음이나 철자의 오류를 줄이려면 우선 모국어 발음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발음이나 철자 오류에 교사의 교정적 피드백이 필요하며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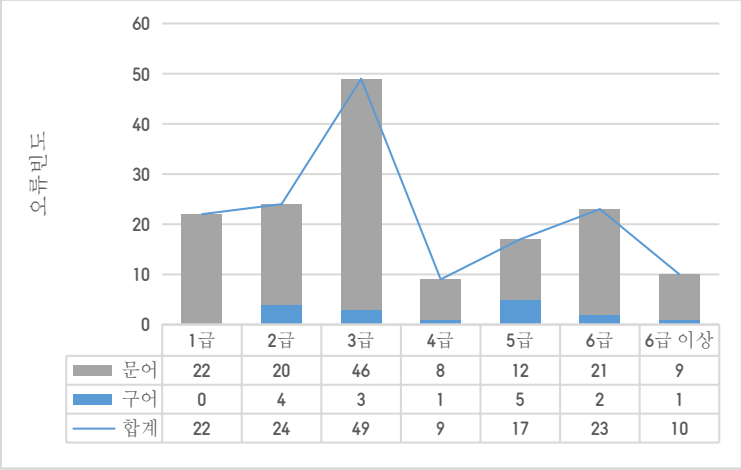
<표 48> 학습자 형태적 오류 유형

유형		원형태	오류 형태
평음, 격음, 경음 구별	ㅂ→ㅃ	번째, 번(番), 분(分)	뻔째, 뻔, 뿐
	ㄱ→ㄲ	가지	까지
	ㅉ→ㅈ	째	재
	ㄷ→ㄸ, ㄷ→ㅌ	년대(年代), 달	년때, 탈
	ㅅ→ㅆ	시(時)	씨
모음	ㅏ,ㅗ,ㅜ	퍼센트	포산트, 포센트,
		분(分)	본, 번,
	ㅐ, ㅔ	째	쩨
ㄹ		달,일,월	다, 이, 원

음절	번(番)	본, 분, 븐, 방,
	년(年)	녕, 낸, 냔,
	명(名)	면, 며, 멈,
종첩 오류	번째	뻔재, 번체, 본재, 뻔체

3.1.3. 통사적 오류

단위성 의존명사가 단독적으로 쓰이지 못하며 명사, 수관형사와 공기 관계를 이루어 수량사구를 구성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단위성 의존명사의 통사 오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오류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수관형사와 연결할 때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 오류는 수량사구 구조를 어긴 것이다.



<그림 23> 숙달도에 따른 통사적 오류 빈도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서 총 154개의 통사적 오류가 발견되었다. 위 <그림 23>은 숙달도에 따른 오류의 분포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급 학습자 집단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4급에서 낮은 오류 빈도가 보이다가 고급에 올라갈수록 통사적 오류의 수가 다시 많아졌다. 구어 자료에서 5급 학습자에 의한 오류 수가 가

장 많았으며 문어 자료에서는 3급 학습자가 가장 많은 오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통사적 오류의 양상을 살펴본다. 먼저, 단위성 의존명사와 수관형사와의 결합 오류의 양상이다.

(18) ㄱ. 10년 후에 이십팔 살(√세)이고 직업이 갖고 있을 것이다. <#5429, 1급, 문어>

ㄴ. 10년 후에 나는 스물아홉 세가 (√살이) 된다. <#5293, 3급, 구어>

(19) ㄱ. 저는 신촌동에서 산 지 구 달(√개월) 된 김철순이라고 한다. <#5482, 1급, 문어>

ㄴ. 한 개월(√한 달) 32만 원이다. <#1526, 3급, 문어>

위 예문 (18), (19)는 학습자들이 단위성 의존명사와 고유어 수관형사나 한자어 수관형사 간의 선택제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오류들이다. 한국어에 같은 수량 단위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단위성 의존명사가 고유어계와 한자어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의미가 같은 이 두 가지 단위성 의존명사는 고유어 수관형사를 취할 수도 있으며 한자어 수관형사를 취할 수도 있다. (18ㄱ)와 (19ㄱ)에서 한자어 수관형사와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같은 한자어계 단위성 의존명사인 '세(歲)' 와 '개월(個月)' 인데 학습자자 이러한 선택제약을 혼동해서 오류를 나타냈다. 반면에 (18ㄴ)와 (19ㄴ)에서 고유어 수관형사 '스물아홉' 과 '한' 과 통합될 수 있는 단위성 의존명사는 고유어계 단위성 의존명사 '살' 과 '달' 이다. 살/세, 개월/달 이 두 쌍의 단위성 의존명사에 있어 고유어 표현과 한자어 표현이 모두 가능하지만 수관형사를 잘 가리면서 사용해야 한다.

통사적 오류의 두 번째 유형은 학습자가 단위성 의존명사를 포함한 한국어 수량사구의 구성 형식을 파악하지 못해 생기는 오류이다. 이는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표현 형식은 단위성 의존명

사가 필요하지 않은 구성에서 불필요하게 첨가를 해서 생기는 오류이다. 이러한 첨가 오류는 '명(名)', '개(個)' 의 첨가가 대부분이었는데 우선 '명(名)' 의 첨가 오류부터 원인을 분석해 보겠다.

(20) ㄱ. 왕따란 한 명 사람(√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따돌림을 받는 현상이다. <#268, 5급, 문어>
ㄴ. 오후 4시 20분가량 한 명 여자(√한 여자)랑 같이 우주선을 타고 갔다. <#2856, 6급, 문어>
ㄷ. 한 3시 50분에 우주선의 문을 열고 한 명 외계인(√한 외계인)이 우주선에 나갔다. <#2856, 6급, 문어>
ㄹ. 두 명 친구(√두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올해에 27살인데 남자 친구가 없어요. <#2257, 2급, 문어>

(20)은 수관형사와 명사 '사람', '여자', '외계인', '친구' 사이에 단위성 의존명사를 삽입하여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만드는 예들이다. 전술하였듯이 한국어의 수량표현 형식이 다양하며 단위성 의존명사 없이 실현되는 구조도 많다. 한국어에 일부 명사들은 자립명사이지만 수관형사 뒤에 쓰여 단위명사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명사들은 학자에 따라 '자립적 단위명사' 로 칭하기도 한다. 뒤에 오는 명사가 '자립적 단위명사' 인 경우에는 단위성 의존명사를 삭제하여 '수관형사+명사' 구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아래 (21)은 '개(個)' 를 잘못 첨가하는 예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 '개(個)' 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명사가 많다. 의미적으로 특정화하지 않는 개체 명사가 보통 다 '개(個)' 와 통합하여 쓸 수 있으나 (21ㄱ)에서 '좌우명' 과 같은 추상명사 혹은 '초원' 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명사는 '개' 와 결합하지 못한다. 이럴 때 단위성 의존명사를 삭제하고 '명사+수관형사' 로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21) ㄱ. 대학교 입학 후에 저는 좌우명 한 개(√좌우명 하나) 만들었다. <#12296, 6급, 문어>

ㄴ. 후룬베이얼초원은 세계 중에서 제일 유명한 3개 초원(√삼대 초원) 중의 하나이다. <#11347, 2급, 문어>

중국인 학습자가 앞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단위성 의존명사가 포함된 수량사구 구성을 사용하는 양상의 원인은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 때문이다. 단위성 의존명사와 대응하는 중국어의 문법 범주는 양사이다.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의 수량표현 구성에 양사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수관형사+양사+명사' 의 순서로 쓰이는 것이 유일한 구성이다. 중국어 수량표현 구성에 익숙한 학습자들이 한국어 수량표현의 구조를 완전히 습득하지 못할 때 흔히 모국어의 문장 구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일으킨다.

수량사구 구성 오류의 두 번째 표현 형식은 문장에서 출현되어야 할 단위성 의존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다. 앞서 수량사구가 단위성 의존명사 없이 성립하는 조건을 언급하였다. '명사+수관형사' 구성은 앞에 오는 명사의 자질에 따라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진다. 가장 기본적인 성립 조건은 앞에 오는 명사가 가산명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물 둘', '모래 하나' 와 같은 표현은 비문법적인 표현이다. 하지만 가산성을 띤 명사라고 해서 언제나 '명사+수관형사' 구성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중에 명사가 '사람' 인 경우가 가장 자연스럽고 셈 용법[30]에도 허용된다. 아래(22ㄱ)은 사과의 수량과 바나나 주스의 수를 나열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뒤에 오는 '바나나 주스 여섯 병' 의 구조와 대응시켜 '사과 다섯 개' 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아울러 '명사+수관형사' 의 구조에 수관형사의 크기에 제한을 받는 셈이며 보통은 크기가 5 이하인 수관형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5 이상에 경우는 단

30) 셈 용법이란 '연필 셋, 지우개 다섯, 볼펜 하나' 와 같이 여러 가지 사물을 세는 용법이다.

위성 의존명사의 삽입을 요구한다. (22ㄴ,ㄷ)은 모두 '일(日)'이 누락된 오류인데 이러한 오류는 학습자 모국어의 영향일 것이다. 중국어에서 몇 월 며칠을 표현할 때 한국어처럼 '수관형사+월', '수관형사+일'의 형식으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어에서 뒤에 오는 단위성 의존명사 '일(日)'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학습자가 한국어를 구사할 때 모국어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일(日)'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2) ㄱ. 사과 다섯(√사과 다섯 개)에 바나나 주스 여섯 병을 샀어요. <#242, 1급, 문어>
ㄴ. 시월 이십팔(√이십팔 일)에 친구와 같이 백화점에 가고 쇼핑할 거에요. <#7714, 1급, 문어>
ㄷ. 우리는 팔월 십 일부터 팔월 십이(√십이 일)까지 명동에 갈 거예요. <#2325, 1급, 문어>

이처럼 필수적인 단위성 의존명사의 생략은 비문법적인 문장을 생성하게 된다. (22ㄱ)과 같은 오류에서 교수자가 학습자한테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을 가르쳐줄 때 단위성 의존명사가 삽입된 수량사구 구조는 물론 단위성 의존명사가 삽입되지 않은 수량사구 구조도 같이 비교하여 다른 구조 간의 의미 차이나 알아내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량사구 구성 오류의 마지막 표현 형식은 단위성 의존명사 뒤에 오는 관형격조사 '의'를 생략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앞선 오류들에 비해 복잡한 구성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 ㄱ.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집에서 두 마리 고양이(√두 마리의 고양이/고양이 두 마리) 를 키우고 있습니다. <#397, 1급, 문어>

ㄴ. 안방에 두 명 학생(√두 명의 학생/ 학생 두 명)이 산다. <#189, 3급, 문어>

일반적으로 '명사+ 수관형사+ 단위성 의존명사' 와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이 두 구조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II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사가 선행하는 구성과 명사가 후행하는 구성 간 의미적 차이가 존재한다. 두 표현 중 어떤 표현을 사용할 것인지는 문맥상 강조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24)와 같이 수량사구가 '있다' 문장에서 사용될 때 숫자를 강조한다고 판단되면 명사가 선행하는 구조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만약 명사가 후행하는 구조를 쓰려면 '의' 의 삽입이 요구된다.

(24) ㄱ. 우리 집 안에 세 개 방(√방 세 개/*[31]세 개의 방)이 있다. <#1666, 3급, 문어>

ㄴ. 우리 반에 10명 학생(√학생 10명/*10명의 학생)이 있다. <#7815, 1급, 문어>

ㄷ. 우리 반에 네 분 선생님(√선생님 네 분/*네 분의 선생님)이 있어요. <#4773, 2급, 문어>

지시대상의 수를 강조할 필요가 없고 지시대상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의+명사' 구조가 더 적합하다. 예컨대 (25ㄱ)에서 그 7명의 사회자가 한 집합체로 인식되어 명사가 후행하는 구성이 더 자연스럽다. (25ㄴ)은 수량사구 앞에 지시사 '이' 가 오는 예시인데 여기서 '6명의 연예인' 으로 수정하는 방식이 훨씬 적합하다.

31) 별표 하나로 표시하는 교정형태는 가능하지만 덜 자연스러운 교정형태이며 별표 두 개로 표시하는 교정형태는 조금 어색한 교정형태임을 의미한다.

(25) ㄱ. 7명 사회자(√7명의 사회자/*사회자 7명)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회자는 김종국이다. <#942, 3급, 문어>

ㄴ. 조사한 30명 학생 (√30명의 학생/*학생 30명) 중에 9번 쉼표를 잘못 쓴 학생은 2명이 있으며 8번 잘못 쓴 학생은 1명이 있다. <#13692, 6급 이상, 문어>

ㄴ. 이 6명 연예인 (√6명의 연예인/**연예인 6명)이 주마다 한국의 곳곳에서 게스트랑 같이 1박 2일로 보낸다. <#939, 3급, 문어>

수량사구에 '총', '각', '모두' 등과 같은 표현이 선행할 때 명사가 선행하는 구조보다 수관형사가 선행하는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26ㄱ)을 예로 들자면 '총 88개의 휴게소' 라는 표현에 비해 '총 휴게소 88개' 라는 표현이 다소 어색해 보인다.

(26) ㄱ. 이 해저 고속도로는 총 88개 휴게소(√88개의 휴게소/ **휴게소 88개)가 설치되어 있다. <#7782, 6급 문어>

ㄴ. 거실 옆에 각 4개 침실(√4개의 침실/**4개의 침실)이 있다. <#3360, 4급, 문어>

이상으로 단위성 의존명사의 통사적 오류 중 수량사구를 이룰 때 생기는 오류 양상을 파악하였다. 중국인 학습자가 수량사구 구성 오류를 범하는 주요 원인은 모국어의 수량사구 구성이 한국어와 다르기 때문이다. '수관형사+양사+명사' 의 구성은 중국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 수량표현 구성인데 한국어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의 구조와 달리 중국어 수량표현에 격조사 '의' 에 대응하는 '的' 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국어의 어순을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하며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오류가 나타난 또 하나의 원인인 교재로 귀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이 그간 '한 명의 사람' 과 같은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성보다는 ‘사람 한 명’과 같은 ‘명사+수 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 구성을 더 많이 접해 왔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성의 제약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이를 모국어 구성과 동일시하고 오류를 범한 것이다.

3.2. 오류 원인 분석

이 절에서는 위의 오류 양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할 때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중국인 학습자가가 단위성 의존명사 오류를 범하는 원인은 모국어의 간섭, 목표어의 영향, 교육 과정의 영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2.1. 모국어로 인한 오류

학습자가 외국어 어휘를 학습할 때 모국어의 어휘 체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목표 언어의 형태와 의미가 학습자의 모국어와 유사할 때 학습자가 학습하는 데에 부담을 가장 적게 느끼며 학습에 유리할 수 있다. 반면에 형태는 유사하나 의미가 다른 경우에는 학습자가 혼란을 겪게 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는 중국어 양사와의 대응 양상이 복잡하여 학습자가 의미 간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앞선 오류 양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가 단위성 의존명사가 가진 의미 자질을 모국어 양사와 혼동하여 생긴 오류가 많았다. 예컨대 단위성 의존명사 ‘개(個)’의 사용에 있어 가장 많은 의미적 오류가 나타났으며 그중에 다른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학습자가 모두 ‘개(個)’로 대치하는 오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었다.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 '개(個)'와 중국어 양사 '個(개)'는 양국 언어에서 널리 사용하는 단위성 의존명사이다. 그들의 쓰임에 공통점이 많으나 다른 결합 제약도 받고 있다. 예컨대 중국어 양사 '個(개)'는 [사람]의 자질을 가진 명사, 일반적인 개체 명사 등과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 '개(個)'는 그렇지 못한다. 중국어 학습자가 이러한 의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개(個)'의 일반성을 적용하면 *'사람 한 개', *'친구 한 개', *'수박 한 개'와 같은 오류를 만들었다. 반대로 한국어의 결합 규칙으로 '개(個)'로 헤아릴 수 있는 명사에 중국어 양사의 영향을 받아 다른 단위성 의존명사로 대치하는 용례도 많았다. 예컨대 침대, 책상 등은 중국어에서 양사 '張(장)'으로 헤아린다.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 '장(張)'은 중국어에 비하여 의미 범주가 축소되어 주로 종이 등 얇고 넓적한 물건을 셀 때 사용한다. 학습자가 이러한 의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침대, 책상 등을 헤아릴 때 중국어를 그대로 번역하여 '침대 한 장', '책상 한 장'과 같은 오류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의미적인 오류 외에 형태적인 오류도 학습자의 모국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선 학습자의 형태적 오류를 발음 오류와 철자 오류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에 따르면 '번째', '명(名)', '가지', '분(分)', '월(月)' 등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에 집중적으로 오류가 나타났다. 오류의 양상은 주로 초성에 평음, 격음, 경음의 오류, 종성에 'ㄹ'의 관한 오류, 음절의 오류 등으로 표현되었다. 평음, 격음, 경음의 오류, 예컨대 '가지', '시(時)', '년대(年代)', '달' 등 평음으로 시작한 단위성 의존명사는 학습자가 *'까지', *'씨', *'년때', *'탈'과 같이 격음 혹은 경음으로 발음하거나 적는 양상이 보였다. 이는 학습자가 모국어의 '유기/무기' 이원 음운 체계와 한국어의 '평음, 격음, 경음' 삼원 체계 간에 일대일의 대응 관계를 이루지 못하여 혼란을 격게 된 것이다. 또한, 종성의 경우 학습자가 중국어에 없는 /ㄱ, ㄷ, ㄹ, ㅁ, ㅂ/ 등을 중국어에 있는 자음으로 발음하

거나 아예 생략하는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개월(個月)', '월(月)', '일(日)' 등 /ㄹ/를 포함한 단위성 의존명사를 *'개원', *'원', *'이'와 같이 발음하고 발음대로 적는 오류가 종종 생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해 수량사구를 구성할 때도 모국어의 간섭을 받아 오류를 범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수량사구의 구성 형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국인 학습자는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성에 비해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의 구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중국어 수량사구 구성에 하지만 한국어의 명사 후행 단위성 의존명사 구성에서 원칙적으로 수관형사 '의'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수량사구 어순에서 영향을 받아 수관형사, 단위성 의존명사, 명사를 순으로 나열하지만 관형격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컨대 '세 개의 방' 혹은 '방 세 개'라고 표현해야 할 때 학습자가 '세 개 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모국어의 수량사구 어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2.2. 목표어로 인한 오류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때 자신의 모국어의 언어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습득한 목표어 체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학습자가 목표 언어 지식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언어 규칙을 과잉 일반화하거나 불완전하게 적용시키면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우선 학습자가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결합 규칙이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휘만 사용하는 경우를 보겠다. 한국어의 개체명사는 대부분 '개(個)'와 통합하여 단위화될 수 있다. 그러나 단어의 의미 자질에 따라 각각 다른 단위성 의존명사를 취하게 될 때도 있다. 예컨대 '노래', '티셔츠', '노트북', '강아지' 등 명사에는 구체적인 자질을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 '곡(曲)', '벌', '대(臺)',

‘마리’ 등이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가 해당 단위성 의존명사를 습득하지 못하거나 ‘개(個)’가 대부분 개체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규칙을 일반화 시킬 때 오류가 발생한다. *‘노래 한 개’, *‘티셔츠 열 개’, *‘노트북 두 개’,*‘강아지 두 개’는 학습자의 모국어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학습자가 스스로 규칙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를 생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형태나 의미의 유사성이 존재한 두 개 혹은 세 개의 단위성 의존명사 때문에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오류 분석 단계에서 ‘시간(時間)-시(時)’, ‘번(番)-번째’, ‘개월(個月)-월(月)-달’, ‘년(年)-학년(學年)/해’ 등의 사용에 대치 오류가 규칙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학습자가 목표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들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시간(時間)’과 ‘시(時)’는 모두 60분이 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형태도 비슷하다. 그렇지만 ‘시간(時間)’은 일정한 기간을 헤아리는 반면에 ‘시(時)’는 시점을 나타내다. 학습자가 이러한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며 두 단위성 의존명사를 혼용하는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단위성 의존명사와 수사의 결합에 복잡한 제약이 존재하는 것도 학습자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는 한자어 수관형사와 어울리고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는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는 고유어 수관형사와 어울린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할 때 단지 어원을 기준으로 수관형사를 선택해서는 안 되며 단위성 의존명사의 의미, 수의 크기 등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학습자가 이러한 규칙을 적용할 때 많은 예외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된다. 예를 들면 ‘년(年)’, ‘주(週)’, ‘분(分)’, ‘초(秒)’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간 관련 단위성 의존명사는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한다. 그러나 ‘시(時)’, ‘시간(時間)’은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것이 규칙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이러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삼 시간’, *‘오 시’와 같은 오류를 생산할

수 있다.

학습자의 발음이나 철자의 형태적 오류는 대부분 학습자의 모국어와 연관을 지을 수 있다. 이 외에 학습자가 목표어의 음운 체계, 어휘의 형태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오류도 있었다. 학습자의 철자 오류 중에 '번째'를 *'뻔째'로 적는 용례가 많았다. 이는 앞에서 논의했던 두 언어의 음운 체계의 차이와 관련이 있지만 학습자가 한국어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몰라서 생긴 것일 수도 있다. 특히 '번째'가 수관형사 '첫'과 같이 발음할 때 경음화가 일어나 /첫-뻔째/로 발음하게 된다. 학습자가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과 표기 간에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음대로 적어 오류를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3.2.3. 교육 과정으로 인한 오류

교육 과정은 목표 언어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학습 기획, 학습 목표, 학습 방법, 평가, 교사와 학생의 역할 등 내용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개념이다. 교육 과정에서 사용된 학습 재료, 즉 교재, 강의 자료 등은 오류를 유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본고의 말뭉치 자료를 생산한 학습자들은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며 사용한 한국어 교재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재에서 단위성 의존명사의 제시 빈도 및 제시 양상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뤘으며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대부분의 한국어 초·중급 교재에서 단위성 의존명사가 시간 표현하기, 물건 사기 등 내용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교재마다 단위성 의존명사의 유형 및 빈도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초·중급 단계에서 다양한 단위성 의존명사를 높은 빈도로 많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과 관련된 단위성 의존명사들과 '명(名), 개(個), 병(甁), 장(張), 권(卷), 마리'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단위성 의존명사들은 보통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학습되며 이 외에 읽기나 듣기 문맥에서 한두 번씩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현황이 학습자의 오류율에서 반영된

다. 앞서 숙달도별 단위성 의존명사 오류율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초급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단위성 의존명사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오류율은 3.3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고급에 올라가면서 5급 학습자에서 8.15%의 높은 오류율이 보였다. 이는 학습자가 초급 단계에서 많은 단위성 의존명사를 학습하고 잘 파악하였으나 점점 단위성 의존명사가 다양해지고 결합 규칙이 복합해지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학습자가 한 번에 하나의 단위성 의존명사가 하나 혹은 두 개의 명사와 결합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경우 특히 '개(個)'와 같은 대응 관계가 복잡한 단위성 의존명사에 대해서는 모국어와의 의미 대조가 필요하다. 또한 고급 학습자에게 높은 오류율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급에 가서도 새로운 단위성 의존명사를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교재에서 단위성 의존명사로 수량사구를 구성하는 형식도 단일하다. 보통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 두 가지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형은 제시 빈도가 비교적 낮다. 아울러 수량사구의 관한 문법적인 설명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습자가 모국어 영향을 받아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성을 더 선호하지만 어순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중국어 어순으로 표현하게 되고 오류를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교재에서 단위성 의존명사 및 수량사구의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학습자가 규칙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연습 및 과제를 구성해야 한다.

4. 교육적 제안

4.1. 단위성 의존명사 쌍의 의미 대조

단위성 의존명사는 단위를 나타내는 기능뿐만 아니라, 단위의 대상이 되는 명사 혹은 동사의 의미 자질도 동시에 나타내 준다. 오류 분석에서 단위성 의존명사의 의미 자질을 파악하고 명사 혹은 동사와 연결하는 것이 중국인 학습자의 난점으로 보였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한테 단위성 의존명사를 교육할 때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와 그에 대응하는 중국어 양사와의 대조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태나 의미가 유사한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끼리의 의미 대조가 필요하다.

우선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경우 중국어로부터 차용하면서 의미와 쓰임에 큰 의미 변동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의미 범위에 변화가 생기거나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경우도 있다. 학습자가 목표언어를 습득할 때 흔히 모국어와 대조하면서 유사성을 찾아내어 적용해 보려고 한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모국어와 유사한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를 적용하는 것은 학습에 유리한가 하면 의미와 용법의 차이 때문에 오류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모국어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예를 들어 '동(棟)', '병(瓶)', '개월(個月) 등은 그에 대응하는 중국어 양사와 동일한 의미와 용법을 가지고 있다. '개(個)', '권(卷)', '편(篇)' 등은 중국어 양사와 부분적으로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의미상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건(件)', '부(部)', '시간-時間' 등은 중국어 양사와 완전 다른 의미를 갖게 되며 연결할 수 있는 명사도 달라진다. 이처럼 단위성 의존명사와 그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쌍을 짓고 설명하는 것 중국인 학습자한테 유용할 것이다..

유사 단위성 의존명사끼리의 의미 대조도 필요하다. 학습자를 헷갈리게 하는 '시(時)/시간(時間)', '월(月)/개월(個月)', '년(年)/학년(學年)' 등을 예시를 통해서 같이 보여주면서 차이점을 밝히면 학습자가 의미 혼동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4.2. 연어적 능력의 향상

광의의 연어는 단순한 두 단어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협의의 연어는 통사적 혹은 의미적으로 공기 관계를 보인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단위성 의존명사의 경우 의미적으로 그의 대상이 되는 명사 혹은 동사와 긴밀히 연관된다. 아울러 수량사구를 이루는 과정에서 수사(수관형사)의 개입이 또한 요구되고 있다. 즉 단위성 의존명사, 명사/동사, 수관형사 이 세 요소가 서로 제약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의 집합체를 형성한다.

따라서 학습자한테 단위성 의존명사를 가르칠 때 하나의 어휘에만 머물지 않고 그와 어울려 쓰이는 단어의 결합 관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위성 의존명사 '대(臺)'를 가르칠 때 차나 기계 등과 결합하여 그의 단위를 나타낸다는 규칙을 알려주면 학습자가 차, 기계 외에도 세탁기, 피아노, 비행기 등 명사와 결합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관형사의 선택의 있어 어떠한 단위성 의존명사는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고 어떠한 단위성 의존명사는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하는지를 반영한 결합 관계를 인식시켜야 한다.

관용적 표현, 노래 가사 등에서 나오는 수량사구를 활용하는 방법은 명사, 단위성 의존명사, 수관형사의 연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의 취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7) ㄱ. <u>세 살</u> 버릇 여든까지 간다.
ㄴ. <u>명태 한 마리</u> 놓고 딴전 본다.
ㄷ. 발 없는 말이 <u>천 리</u> 간다.
ㄹ. <u>말 한 마디에</u> 천 냥 빚도 갚는다.
ㅁ. <u>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u>

위와 같은 속담을 통해서 학습자가 명사-단위성 의존명사의 의미 관

계, 수관형사- 단위성 의존명사의 결합 제약, 수량사구에서 명사, 수사 그리고 단위성 의존명사의 배열 순서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학습자한테 단위성 의존명사, 수관형사, 명사/동사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훈련시키는 연습은 학습자의 연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의미적 의미적 오류, 수량사구를 이룰 때 생기는 통사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

4.3. 수량사구의 구성 교육

한국어의 수량사구 구성 유형이 다양하며 구성요소의 배열 순서 간 차이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 두 가지 구성만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성은 적게 제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수량사구 어순에 관한 설명이 교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단위성을 사용하여 수량사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를 구성하는 요소의 배열 순서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모국어 어순의 영향을 받아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성을 많이 사용하는 경양이 보이는데 수량사구의 어순에 관한 교육이 부족으로 인해 통사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성은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성보다 문어적 느낌을 나타내며 구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두 구성 간의 의미 차이가 존재하고 각각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어순으로 인한 화용적 의미 차이도 학습자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가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성을 사용할 때 흔히 관형격조사 '의'를 생략하여 '한 명 사람'과 같은 오류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수량사구 구성을 교육할 때 명사 앞에

‘의’가 원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같은 언어권 학습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통사적 오류에 대해서는 교사가 모국어의 영향임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가 뉴스, 문학 작품 등을 읽고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형 수량사구를 찾아내어 적는 연습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수량사구 구성의 학습에 유용할 것이다. 학습자가 ‘의’의 필수성에 대한 인식을 가진 후에 ‘의’를 생략해도 되는 경우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Ⅴ.결론

한국어에 다양한 단위성 의존명사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단위성 의존명사는 항상 명사, 수관형사와 공기관계를 이루어 수량사구를 구성하는데 구성할 때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우선 단위성 의존명사가 명사의 단위를 나타내는 기능뿐만 아니라 명사가 속한 분류의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로 인해 단위성 의존명사를 학습할 때 어떠한 명사와 통합할지는 그가 가진 의미 자질과 연관되어야 한다. 또한, 단위성 의존명사를 선행하는 수관형사로는 한자어와 고유어 두 계통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관형사를 선택할 때도 어원의 영향을 받는다. 아울러 명사, 수관형사, 단위성 의존명사가 문장에서 나열하는 방식도 몇 가지가 있으며 문맥에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의사소통의 장애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단위성 의존명사의 중요성이 점점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와 중국어 양사를 대조하고 교육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학습자가 단위성 의존명사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떠한 오류를 많이 범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대규모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실제 사용 양상 및 오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오류 분석 결과를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연구의 자료 수집 단계에서 총 68개의 단위성 의존명사를 연구 목록으로 선정하여 국립국어원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목록에 맞는 정문 말뭉치와 오류 말뭉치를 재구성하였다.

다음으로는 말뭉치에서 나타난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 양상부터 분석

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달도별는 1급 학습자의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6급 이상 단계에서 가장 낮은 사용 빈도가 보였지만 무려 40가지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하고 높은 수준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단위성 의존명사별의 사용 빈도를 보았을 때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 빈도가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보다 높으며 '년(年)', '시(時)', '월(月)' 등 시간과 관련된 단위성 의존명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개체의 수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 중 '가지', '명(名)', '개(個)'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셋째, 수행자료의 장르 유형으로 나누어 볼 때 구어 장르에는 '발표', 문어 장르는 '정서·감정 표현의 글'에서 단위성 의존명사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쓰임이 다양했다. 넷째, 학습자의 단위성 의존명사의 구체적인 사용 양상 분석은 단위성 의존명사와 수관형사(한자어 수관형사/고유어 수관형사)의 결합 양상부터 진행되었다. 그 결과 단위성 의존명사가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와는 관계없이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사례가 고유어 수관형사보다 많이 나타났다. 아울러 학습자들은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와 결합하는 수관형사를 선택할 때 아라비아숫자를 더 많이 선호한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외래어 단위성 의존명사는 역시 한자어 수관형사와 결합하지 못하며 고유어 수관형사 혹은 아라비아숫자와만 결합한다. 다섯째,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해 수량사구를 구성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단위성 의존명사가 포함된 수량사구를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그리고 '수관형사+동량 단위성 의존명사+동사(구)'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4가지 유형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구조는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조이며 전체 어절 수의 무려 81%를 차지하였다. 명사가 들어간 구조 중에 명사가 후행하는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관형격조사(의)+명사'(9%)는 명사가 선행하는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6%)보다 더 선호되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다음 오류 분석 단계에서는 총 428개의 오류문을 도출하고 통계적으로 기술한 뒤 유형을 형태적, 의미적, 통사적 측면인 세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오류 양상을 분석하기 전에 숙달도별, 어원별, 단위성 의존명사별, 수량사구 유형별, 장르별 등 5가지 측면에서의 오류 빈도와 오류율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첫째, 숙달도별의 오류율에 있어 1급 학습자의 단위성 의존명사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오류율이 3.31%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에 5급 학습자의 사용 빈도가 모든 학습자 중에 가장 낮았지만, 오류율이 8.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급 학습자들이 주로 기초적이고 단순한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하나 고급에 올라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한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하게 되어 더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또한, 초급 교재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설명되어 있으나 고급 교재에서는 단위성 의존명사의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1급에서 3급까지 상승 추세아며 4급에 잠깐 줄어들었다가 5급에 이르러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초급 단계에서 단위성 의존명사로 이루어진 수량표현을 많이 접하게 된 후에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언어 지식을 내재화하여 습득해 나간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율이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단위성 의존명사별로 보았을 때 '명(名)'의 사용에서 가장 많은 오류 빈도(102개)가 보였으며 모든 숙달도에서 나타났다. 각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율을 비교해 본 결과 명(名)'(18.99%), '가지'(8.59%), '개(個)'(12.98%), '번째'(7.96%) 등 사용 빈도가 높은 단위성 의존명사들은 오류율도 높게 나타났다. 사용 빈도가 높지만, 오류율이 낮은 단위성 의존명사는 '년(年)'(0.42%), '시(時)'(1.20%), '월(月)'(2.09%), '일(日)'(1.12%), '분(分)'(3.22%), '개월(個月)'(2.55%), '살'(1.28%) 등이 있다. 반면에 사용 빈도가 낮지만 제한된 사용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많이 나타나 높은 오류율을 보여준 단위성 의존명사는 '장(張)'(21.05%), '권(卷)'(21.43%), '대(臺)'(54.55%), '해'(83.33%)

등이 있다. 넷째, 여러 가지 수량사구 유형 중에서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성의 오류율이 17.55%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구성임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장르별 오류율을 보았을 때 구어 장르의 오류율(8.12%)이 문어 장르의 오류율(4.2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구어 장르에는 ‘대화(11.21%)’, 문어 장르에는 ‘주장의 글(4.78%)’이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여주었다,

오류의 구체적인 양상 및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오류를 의미적, 형태적, 통사적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그 원인을 검토하였다. 우선, 의미적 오류는 초급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개(個)’의 과잉 사용과 ‘월(月)-개월(個月)’, ‘시(時)-시간(時間)’ 등 형태나 의미가 비슷한 단위성 의존명사 간의 대치 오류가 대부분이었다. 형태적 오류는 ‘번째’, ‘명(名)’, ‘가지’, ‘분(分)’, ‘월(月)’ 등 개별 단위성 의존명사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5급 학습자의 오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 통사적 오류는 학습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오류인데 통사적 오류에는 수관형사와의 결합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 수량사구 구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 그리고 중국어 수량사구 어순의 영향을 받아 생긴 오류 등이 있었다.

본고에서 이러한 오류 양상 분석을 토대로 학습자의 오류를 모국어로 인한 오류, 목표어로 인한 오류, 그리고 교육 과정으로 인한 오류로 분류하고 원인을 탐색하였다. 우선 중국인 학습자들이 단위성 의존명사를 사용할 때 모국어 양사에서 간섭을 받아 혼동을 느낀 경우가 많았다. 전술한 형태적 오류 중에도 학습자가 모국어 음운 체계의 영향을 받아 발음이나 철자에서 오류를 일으킨 용례가 많았다. 또한, 수량사구의 어순 및 구성 성분의 오류도 학습자의 모국어와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새로운 어휘와 문형을 습득하고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위성 의존명사의 의미나 형태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학습자 오류 중에 ‘個(개)’의 과잉 사용, ‘시간(時間)-시(時)’, ‘번(番)-번째’, ‘개월(個月)-월(月)-달’ 등의 대치 오류는 바로 목표 언어 규칙의

복잡성에서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단위성 의존명사의 교재 제시 빈도, 제시 방법도 오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초·중급 교재에서 다양한 단위성 의존명사가 높은 빈도로 많이 제시되어 있으나 고급에 갈수록 출현 빈도가 줄어들며 설명도 부족하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가 모국어 영향을 받아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성을 선호하지만 교재에서는 주로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성만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다양한 수량사구 구성의 어순 및 의미 차이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오류를 생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사용 양상과 오류 양상 분석을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한테 단위성 의존명사의 교육 내용을 마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교육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와 중국어 양사, 비슷한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끼리의 의미 대조가 필요하며 학습자의 연어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단위성 의존명사를 교육하는 동시에 수량사구의 구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 중에 모국어 혹은 이미 습득된 목표어 지식을 사용해서 의사를 표현하려고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단위성 의존명사의 오류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학습자가 오류를 통해서 목표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둘째, 단위성 의존명사를 학습할 때 의미의 대조가 필요하다. 한자어 단위성 의존명사의 경우 중국어로부터 차용되어 사용해 왔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부 단위성 의존명사의 의미와 용법이 변화하였다.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 중에도 중국어 양사와 복잡한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고유어 어휘가 단위화 기능을 가지게 되면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 단위성 단위명사와 고유어 단위성 의존명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생겼다. 따라서 학습자가 단위성 의존명사의 의미

자질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여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가 학습자들이 동일시하는 어휘 쌍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거나 예문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그것을 구별해 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동일한 모국어 배경을 가졌을 경우, 교사가 학습자의 모국어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단위성 의존명사의 구성 교육이 필요하다. 통사적 오류는 중국인 학습자한테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이다. 단위성 의존명사의 특성상 항상 명사, 수관형사와 공기 관계를 이루어 사용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나열하는 어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단위성 의존명사의 교육이 어휘의 측면에만 초점을 두어 이루어지기 보다는 명사-단위성 의존명사-수관형사를 분리하지 않고 연어의 차원으로 교육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교재에서 많이 제시된 '명사+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구조를 교육할 뿐만 아니라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의)+명사' 구조의 요소 배열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국내 논저

강범모(2003), 언어, 컴퓨터, 코퍼스 언어학: 컴퓨터를 이용한 국어분석의 기초와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강창석(2009), 국어의 수량(數量) 표현 문법 1-개념과 용어의 문제를 중심으로, 인문학지, 39,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5-45쪽.

강현화(2017),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중간언어 분석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4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5-47쪽.

고석주 외(200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 분석, 한국문화사.

고영근・구본관(2018), 개정판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곽추문(1996), 한국어 분류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커뮤니케이션북스.

길혜빈(2018), 한국어 조건 연결어미 교육 연구-학습자 말뭉치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광해(1981), ‘의’ 의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경(2017),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및 사용 양상 연구 - 중・고급 학습자의 ‘이/가’, ‘은/는’ 오류 및 선택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진(2003), 국어 명사의 단위적 용법 연구 - 분포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2018), 한국어 학습자의 정도부사 사용 및 오류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홍(1994), 수량사를 가진 명사구의 논항구조, 배달말, 19, 배달말학회, 1-48쪽.

나옥봉(2016),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와 중국어 양사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자루딘((2010),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수 분류사 비교 연구-‘개’와 ‘buah’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등림(2015), 한국어 단위 명사와 중국어 양사(量词) 대비 연구 및 지도 방안,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루준언(2017), 중국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오류 연구, 경희대학교 삭사학위논문.
류허란(202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단위명사 교육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리우팡(2016), 한국어 분류사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한국문화사.
마릉연(201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말뭉치 기반 한국어 동사 유의어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묘우(2018),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와 중국어 양사 대조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자(2001), 오류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한국어 지도 방안 연구: 초급 단계 중국인 학습자들의 작문에 나타나는 오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훈(1998), 단위어사전, 민종서림.
박소영(2017), 한국어 명사구 생략의 통사론-수분류사 구성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사회, 31,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91-422쪽.
박정준(1996), 한국어 양화명사구의 통사구조와 양화사 유동: 자료관찰 및 문제제기, 언어연구, 13,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 53-98쪽.
박종언・박명관(2020), 한국어 수분류사구의 통사구조, 복수성 및 조응해석. 언어와 언어학, 88,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107-133쪽.
박철우(1990), 한국어 수량 표현의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박호관(2003), 국어 수량 명사 구문의 통사 구조,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23쪽.
백봉자(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사타 자코모(2019), 한국어 명사의 단위 명사적 쓰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원(2010), 한국어 분류사 '개' 와 중국어 양사 '個' 의 대비 연구, 동국 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서정수(1996), 국어문법: 수정증보판, 한양대학교출판원.
시정곤(2000), 국어 수량사구의 통사구조, 언어, 25(1), 한국언어학회, 73-101쪽.
양주동・유목상(1968), (인문계 고등학교)새 문법, 대동문화사.
양하얀(2012), 현대국어 단위성 의존명사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호(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단위 의존명사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오상언(2014), 한중 분류사구에 관한 비교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5(1),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5-233쪽.
왕슈에(2013), 한국어 분류사 교육 방법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왕혜숙(1995), 영어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어휘상 오류 분석, 이중언어학, 12, 이중언어학회, 383-399쪽.
왕흠범(2019),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용 분류사 선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형식(1996), 분류사의 수량 명사구 분석, 한어문교육, (4),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373-388쪽.
우형식(1998), 국어 수량화 구성의 분포와 기능 분석, 담화와인지, 5(2), 담화・인지언어학회, 57-80쪽.
우형식(2000), 수 분류사의 특징과 한국어 분류사, 언어과학, 7(2), 한국언어학회 동남지회, 127-146쪽.
우형식(2001), 한국어 분류사의 범주화 기능 연구, 박이정.

우형식・정기영・서민정・배도용・최판림(2005), 한・일 양어 수 분류사의 명사 부류화 기능에 관한 대조적 연구, 제이앤씨.
유동준(1983), 국어분류사와 수량화, 국어국문학, 89, 국어국문학회, 53-72쪽.
유력몽(2012),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 사용 오류 연구-초・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주명(2007), 중국인의 한국어 학습상 분류사 오류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수정(2019), 한국어 어미 '-게' 의 문법적 기능에 따른 사용 양상 연구 - 국립국어원 외국인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희수(2018), 한국어 교육을 위한 수량사구 연구-코퍼스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혜(2011),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장르 분류 연구, 외국어교육, 18:3, 한국외국어교육학회, 391-412쪽.
이선영, 신혜원(2013), 한국어교육학: 한국어 학습자의 수 분류사 습득과 입력빈도의 영향, 새국어교육, 95, 한국국어교육학회, 391-422쪽.
이숭녕(1968), 문법, 을유문화사.
이은경(1999), 중국어 양사 연구: 한국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이은서(2017), 중국어권 학습자의 접사 사용 연구- 학습자 중간언어 분석을 통하여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익섭(1973), 국어 수량사구의 통사기능에 대하여, 어학연구, 9-1, 서울대 어학연구소, 46-67쪽.
이익섭・이상억・채완(2005), 한국어의 언어, 신구문학사.
이정은(2013),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단위명사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홍빈(1979), 複數性(복수성)과 複數化(복수화), 한국학논총, 1, 국민대학

교 한국학연구소, 179-218쪽.
임홍빈(1991), 국어 분류사의 변별 기준에 대하여, 석정 이승욱 선생 회갑기념논총, 335-377쪽.
장위(2020), 한국어 단위성 의존명사와 중국어 양사의 대조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홍수(2010),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한자어계 분류사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중국어 양사와 대조연구를 바탕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경재(2010), 분류사 수량화 범주의 통시적 변화,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학술대회,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11-223쪽.
정연실(2010),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의 수량 표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우영・양호 (2013), 한국어와 중국어 수량 표현구의 구조 비교, 철학사상문화, 16,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189-216쪽.
정은실(200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분류사의 선정과 교수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려봉(2017), 한국어 수 분류사의 범주에 대한 고찰, 중한언어문화연구, 12, 천진사범대학교 한국문화연구중심, 9-25쪽.
진봉매(2010), 한・중 분류사 및 수량표현구의 대비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쭈타맛 분추(2006), 한국어와 태국어의 분류사 비교연구,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옥자(2012), 한국어의 동작이나 사건의 횟수를 세는 동작단위사에 대하여, 국어학, 64, 국어학회, 301-325쪽.
채옥자(2014), 한국어 수량표현 연구, 역락.
채완(1982), 국어 수량사구의 통시적 고찰-어순변화의 예로서, 진단학보, (53, 54), 진단학회, 155-170쪽.
채완(1983), 국어 수사 및 수량사구의 유형적 고찰, 어학연구, 19(1), 서울

대학교 어학연구소, 19-34쪽.
채완(1990), 국어 분류사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70, 진단학회, 167-180쪽.
채완(1996), 국어의 분류사 '개'의 차용 과정과 의미, 진단학보, (82), 진단학회, 193-215쪽.
최은지(2017), 중국어권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관형격조사 오류: 첨가 오류와 누락 오류를 중심으로, 언어학, (77), 한국언어학회, 3-24쪽.
최정도(2017), 한국어 수량 표현의 계량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현배(1955), 우리말본, 정음사.
최형용・박민희・김정인・김혜지・김종현・심유경・...SAKJABUTDINOVA LUIZA(2017), 한국어 분류사 연구, 역락.
추청(201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한국어 분류사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송화(1999), 수사와 수량사구, 사전편찬학 연구, 9,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265-289쪽.
한송화(2018), 한국어 학습자의 종결어미 사용 양상과 오류 연구, 문법교육, 33, 한국문법교육학회, 165-210쪽.
홍용철(2019), 명사 후 분류사 구문의 구조, 생성문법연구, 29(3), 한국생성문법학회, 485-515쪽.
홍은진(200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연구-대치 오류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315-358쪽.

국외 논저 및 번역서

Brown, H. D.(2006),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ition), Pearson Education.
Burt, M. K.(1975), Error analysis in the adult EFL classroom, TESOL

quarterly, 53-63.

Corder, S. P.(1967),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RAL-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5(1-4), 161-170.

Corder, S. P.(1975), Error analysis, interlanguage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Teaching, 8(4), 201-218.

Corder, S. P.(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신승용 · 김지민 · 이승용 옮김(2011), 중간언어와 오류 분석, 박이정].

Da-Mi Lee · Kwee-Ock Lee(2002), The acquisition of Korean numeral classifiers by Korean/English bilingual children,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3(1), 265-278.

Dulay, H., Burt, M. & Krashen, S. D.(1982), Language two, Oxford University Press.

Fillmore, C. J.(1992), 'Corpus Linguistics' or 'Computer-aided armchair linguistics', In Directions in corpus linguistics, Proceedings of Nobel Symposium, 82, 35-60.

Gass, S. M.(2013),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 introductory course, Routledge.

Hwang, S. H.(2016), The Acquisition of Korean Numeral Classifier Constructions by English-Speaking Learners, 현대문법연구, 88, 99-122.

James, C.(1998), Errors in language learning and use: Exploring error analysis, Harlow, UK: Addison Wesley Longman.

Karin Kleppin(1998), Fehler und fehlerkorrektur, [최영진 옮김(2007), 외국어 학습자의 오류 다루기, 한국문화사].

Lado, R.(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pplied Linguistics for Language Teacher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Richards, J. C.(1974), Error analysis: Perspective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ongman.
Rod Ellis(1997),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Selinker, L.(1972), Interlanguage, IRAL-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10(1-4), 209-232.
韩红敏(2010), 韩国语分类词和中国语量词对比及教学方法, 延边大学 硕士学位论文.
刘月华, 故韡 & 潘文娱(2001), 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吕叔湘(2002), 吕叔湘全集-第一卷-中国文法要略, 辽宁教育出版社.
赵大汉(2007), 汉语量词与韩国语单位名词的语义对比研究, 复旦大学 博士学位论文.

기타 자료

국립국어원 『2019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연구 및 구축 최종보고서』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네이버 국어 사전 『표준어 규정』

Abstract

A Study on Usage and Errors Patterns of Korean Unit-Bound Nouns of Chinese Korean Learners - Focus on Learners' Corpus-

YANG, FEI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xpressions of the number of things exist in all languages. In Korean, there are various ways to express numbers and the use of numeral phrase consisting of unit-bound nouns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The study of unit-bound nouns, which has been carried out so far, mainly focuses on the arrangement of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and the contrast with unit-bound nouns in other languages. The learner's actual use and error patterns were treated poorly compared to their importance. In response, this study aims to use the Korean Language Institute's Korean Learners' Corpus to

identify the actual language usage patterns of learners in the corpus and to find out how Chinese learners acquire unitary dependent nouns or what difficulties they are facing at.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tents has been included.

First, in the data collection stage of the study, a total of 68 unit-bound nouns were selected as the study list and the corpus were reconstructed to fit the study list.

Analysis begins with the pattern of the use of unit-bound nouns shown in the learners' corpus, with the following analysis results. First, given the degree of proficiency, the frequency of unit-bound nouns used by first-class learners was the highest. Although the lowest frequency of use was shown in Level 6 and above, it uses as many as 40 unit-bound nouns and shows a high level of diversity. Second, the use of unit-bound nouns was higher in Sino-unit-bound nouns than native or foreign unit-bound nouns. Third, given the frequency of use by unit-bound nouns, nyeon' is the most frequently used unit-bound noun by used for 1663 times. followed by il'(702 times) and 'wol' (702 times) all of which represent time. Among unit-bound nouns indicating the number of objects, 'gaji' (660 times), 'myeong' (435 times), 'gae' (315 times), is ranking ahead. In terms of genre type, it showed high frequency of use in 'presentation' in colloquial genre and 'writing of emotion and emotion' in literary genre.

The analysis of the specific usage patterns of learners' unit-bound nouns was divided into the combination patterns of unit-bound nouns and numeral (Chinese/Inherent) and the aspects of forming a quantity phrase using unit-bound nouns. The most frequently used structure by Chinese learners was the structure of 'numeral+unit-bound nouns' ,

accounting for 81% of the concerns of the total number of corpus. It was concluded that the use of the ‘numeral+unit-bound nouns+ ‘ui’ + noun’ structure was preferred at 9%, over the ‘noun+numeral+ unit-bound nouns’ (6%) structure.

In the error analysis stage, a total of 428 errors were derived and statistically described, And the specific aspects were examined by dividing them into three types: semantic, form, and syntactic. First of all, there was a low error rate of 3.31 percent for first-class learners who used unit-dependent nouns the most in terms of error rates by proficiency. On the other hand, the error rate for class 5 learners with the lowest frequency of use was 8.15%. It was concluded that the error rate of each proficiency degree showed an upward trend from grade 1 to grade 3, which briefly decreased to grade 4, and then reached level 5 and showed the highest error rate. In terms of specific aspects of errors, first of all, significant errors occurred a lot in the beginner level, most of which were overuse of ‘kae’ and replacement errors between unitary dependent nouns with similar form or meaning. Formal errors are concentrated on individual unit-bound nouns such as ‘beonjjae’ , ‘myeong’ , ‘kaji’ , ‘bun’ and ‘wol’ and it is believed that learners were interfered with by the phonemes in Korean and their native languages to produce errors. The syntactic error is the most frequently error by Chinese learners, which is that the learner has violated the quantitative syntactic structure due to a lack of syntactic knowledge of monotonic dependent nouns.

Solving the Chinese learner’s unit-bound nouns learning problems requires finding the cause of the error.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s of errors in Chinese learners in three aspects: native language, target language, and learning process. Most of the errors in unit-bound nouns

of Chinese learners were caused by the influence of their native language. A number of semantic errors have been found by confusing the semantic qualities of a Chinese-language unit-bound noun with both languages, pronunciation or spelling errors influenced by the phonological system of the native language, and syntactic errors by applying native quantile sandal order.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cases where learners fail to learn target language rules properly, causing errors by overgeneralizing them or applying them incompletely. In particular, the identification of unit-bound nouns with similar meanings and forms, and the combination relationship with numeral, are difficult for learners. Finally, the frequency of presenting textbooks of unit-bound nouns, and the uniqueness of the form of quantity dune, were also identified as the causes of the learner's error.

In the final step, we present suggestions that can be referenced in the training site based on the learner's analysis of error patterns and error causes. When teaching Chinese learners of unit-bound nouns, a native language should be used to contrast pairs of unit-bound nouns, and the salmon ability to choose nouns or investigations that can be linked to those unit-bound nouns should proceed. In addition, the word order should be constructed so that quantitative phrases can be made using monotonic dependent noun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use of unit-bound nouns was revealed one step further from deriving them through multiple-choice questions through actual corpus analysis. Second, we examine the type of learner error and the patterns of change by segmenting them into profrgiciency levels from 1st to 6th or higher. Third, we analyze the causes of learner errors for monotonic dependent nouns and provide the necessary basic information for the

design of training content based on them.

Key words: Chinese Korean Learn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Unit-Bound Nouns, Learner's Corpus, Corpus Analysis, Error Analysis

Student number: 2018-23991